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월 9일 수요일(주간) 제 351 호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상월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무료분양 전국 어느 곳이든 천축사

법석 조대 **혜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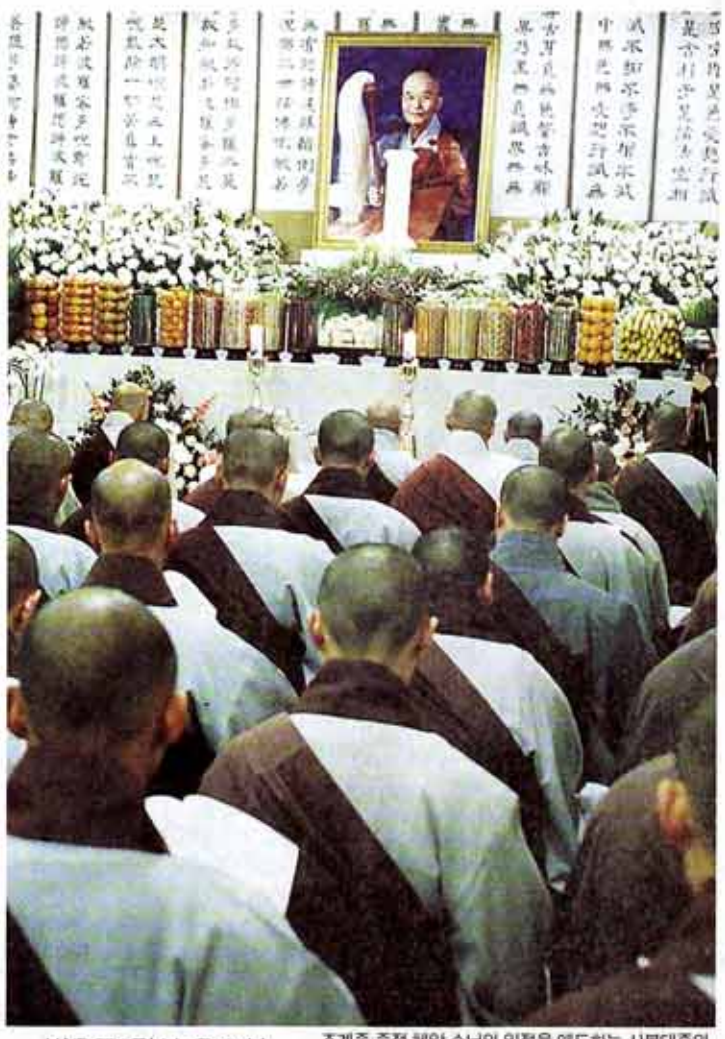
"이 세상에 제일 수지맞는 일중의 하나가 공부하다 죽는 일인데 목숨 내놓고 정진하다보면 견성이 가까워오고 죽음은 멀어집니다."

"모든 인류는 절대평등한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자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3면

조계종 종정 혜암 대종사 圓寂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서
6일 오전 11시 영결식 … 종단장 봉행



빛으로 다시 오소서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사부대중의 행렬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분향소가 마련된 해인사 궁현당에서 200여 스님들이 저녁 예불후 금강경 독경을 하고 있다. 사진= 고영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가 원적에 들었다.

'가야산의 대복'이라 불리며 올곧은 수행을 이어온 혜암당 성관 대종사는 12월 31일 오전 10시 23분 주석처인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微笑窟)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종게를 남기고 세수 82세, 법랍 55세로 입적했다.

1920년 전남 장성에서 출생한 혜암 종정스님은 46년 가야산 해인사에 출가한 날로부터 평생토록 눕지 않고 정진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와 하루에 한끼만 먹는 일일일식(一日一食)을 하며 오로지 위법망구의 두타(頭陀)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고 청정하게 수행 고행정진으로 참선수행에 몸두해온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승이었다.

일생을 청정한 수행자로 올곧게 살아온 혜암스님은 93년 성철 방장의 뒤를 이어 하인총림의 방장을 역임하였으며, 94년 4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99년 4월 조계종 제10대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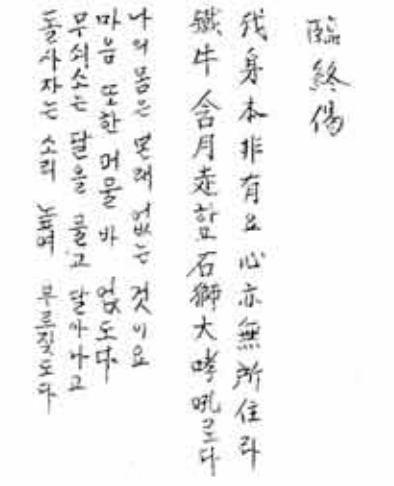
스님은 형소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여 당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으로서 94년 조계종 개혁불사와 98년 조계종 종단사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1일 혜암 스님의 원적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자 스님들과 불자들의 추모 행렬이 해인사로 이어졌다.

해인사 궁현당에 마련된 빈소에는 원로회의 의장 법전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 스님, 원로의원 성수 보성 청화 지관 스님,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 송광사 회주 법흥,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 1만4천여명(4일 현재)이 해인사를 찾아 헌향하고 스님의 열반을 추모했다.

또 각계인사들의 조문과 조전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불교협회(회장 도슬인)는 4일 "혜암선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중한 양국불교의 전통우의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조전을 보내왔다. 민주당 김기재 연등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직접 조문한 것을 비롯해, 천주교 주교회의도 조전을 보내 혜암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스님의 법체는 1일 오후 3시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과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스님, 원로의원 성수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인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을



臨終偈

幻身本非有 (환신본비유)
歸牛舍月走 (귀우사월주)
나의 몸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싣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

◇혜암 스님 친필 임종게

비롯해 70여 문도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관식을 마치고 궁현당에 모셔져 영결식이 열리는 6일까지 분향객들을 맞고 있다.

스님의 영결식은 6일 오전 11시 보경당 앞마당에서 조계종단장으로 치러진다. 2천여 장의 만장이 휘날리는 가운데 수만송이 국화꽃으로 장엄된 법구차에 의해 2km쯤어진 연화대로 이운된 뒤 오후 1시 다비식이 봉행된다.

☞다비식 기사 다음호에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관련기사

사설, 분향소 · 다비식 준비 2면
혜암 스님 수행 행장 3면
추모사 · 조사 4면
글과 그림으로 본 큰스님 12~13면
50년 시봉 103세 보살 23면

김대통령 추모 弔辭

김대중 대통령은 4일 혜암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조사를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97년 저에게 지도자의 덕목에 관한 큰스님의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홀연히 가시다니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만 느껴진다"며 "문득 저를 찾아 '방생'의 참뜻을 화두로 던져주시면서, 인간방생을 실현하라고 하신 말씀은 국정운영을 하는데 커다란 가르침이 되었다"고 추모했다.

김대통령은 또 "올해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해"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융성을 바랬던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 합심하고 단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사찰 환경 · 성보 보존 운동' 전개

불교 전국산악인聯

대한불교 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정인악)는 '사찰 환경 및 불교문화재 보존' 운동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산악인연합회는 40여 단위 산악회에 산사를 방문할 때마다 환경과 불교문화재 실태를 파악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또한 단위 산악회에서 파악한 훼손 사례는 봄 · 가을 열리는 임원 워크숍 자리에서 논의한 후, 해당 사찰과 행정 당국에 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전국산악인연합회는 '사찰 환경 및 불교문화재 보존' 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15개 신규 산악회도 창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효행상 대상자 및 장학생 선발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 밝히기 대장정 등도 연속 사업으로 진행한다.

오종욱 기자

종단협 16일 신년하례법회

불교계 종단과 신행단체들이 신년하례법회를 갖고 밝은 새해를 설계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16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26개 회원종단 간부스님들과 주요사찰 주지, 불교단체장, 불자의원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한다.

원당암 재가선객들의 애도

"문없는 문을 타파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라고 항상 강조하셨던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이 12월 31일 원적에 들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 사무치고 간절하게 정진해서 낮인지 밤인지, 밥을 먹었는지 건너뛰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진하는 것을 출가자의 유일한 일로 여길 만큼 정진에 철처하셨던 스님의 빈자리가 임오년 벽두부터 너무나 크고 깊다.



특히 해인사 원당암의 재가선방인 달마선원에서 정진중이던 선객들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린 길 앞에서 망연해 하고 있다. 달마선원은 재가불자들의 참선 정진을 돕겠다는 혜암스님의 자비심으로 개설된 선방인데다 혜암스님이 재가자들과 함께 돈소 정진하면서 화두를 내려주고 공부를 지도해 온 곳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21년 전 혜암스님은 선불당에서 안거를 원하는 재가자들을 받아들여 함께 수행 정진했고 그것이 공부법을 지도하는 첫인연이 되었다. 스님은 재가자와 똑같이 하루 8시간 참선과 철야정진을 했으며 재가자들이 미혹을 거두고 밝은 본성을 깨우치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후 가까이에서 큰스님의 사자후를 접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원당암은 재가자들에게 둘도 없는 수행처가 되었고 1995년 달마선원 개설과 함께 스님의 재가자 공부지도는 더욱 본격화되었다. 현재에도 정진 중인 103세의 공명화 보살을 비롯 연기영 동국대 법과대학장, 이창우 서울 허리우드극장 사장 등 1천 여명을 넘는 재가자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이제 달마선원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안으로는 본심을 깨닫고 밖으로는 남을 도우라"고 강조하셨던 스님의 뜻대로 토요 참선, 청소년 참선 등을 통해 재가자들의 생활 속에 불교 수행의 요체를 전하는 재가 수련의 요람이 되었다.

불교가 재가불자의 삶 속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자칫 불교의 생명력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찍이 재가 불교의 중요성을 간파한 혜암스님의 선견지명은 더욱 빛을 발한다. 달마선원을 거쳐간 숨한 사람들은 생활 곳곳에서 혜암스님의 가르침을 21세기 속에 담아내며, 불법의 향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미희(부산 주재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법회참석 빈도**

1. 불자님께서는 사찰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①매주 ②월1회 ③월2회 ④년 4회 이하
2. 불자님께서는 한 달에 몇 번 절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4회 ②3회 ③2회 ④1회
3. 불자님께서는 일요법회나 초하루 법회 등 정기법회에 참석하십니까?
   ①꼬박꼬박 참석 ②가끔 참석 ③참석 안함 ④초파일에만 참석

설문 참여: 1월 10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2호 9면에 실습니다.

訃告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慧菴堂 性觀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2월 31일(음 11월 17일) 오전 10시 23분 海印叢林 海印寺에서 世壽八十二를 일기로 入寂하셨기에 謹告합니다.

■ 永訣日時 : 불기 2546년 1월 6일 일요일(음 11월 22일) 오전 11시
■ 永訣式場 : 해인총림 해인사
■ 茶毘場 : 해인총림 해인사 연화대

慧菴堂 性觀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證明 : 서옹 서암 월하
顧問 : 법흥 고송 성수 관응 종산 동원 동헌 원경 지홍 성우 청화 활안 덕명 송암 녹원 보성 일우 월탄 정관 월운 동주 지관
指導委員 : 지유 고산 월우 능가 총림 직계 총무 해인 정대 법흥 도문 일운 혜거 법륜 월탄 보후 고송 정관 총림 원명 종화 성파
諫 : 법진
葬儀委員長 : 정대
副委員長 : 지하 무비 도영
委員 : 법장 법안 혜우 진홍 정곡 만근 혜월 진여 법정 성견 법희 성타 법보 정념 무여 명정 무홍 고우 정홍 혁기 성우 금타 일각 일연 현응 현명 보월 정찬 현문 법보 정찬 보선 중원 혁세 지환 정대 정천 영진 성우 지선 통응 혜성 현정 정천 묵집 현제 혜안 학능 능해 명안 일화 종원 혜명

사 설

혜암스님 수행정신 잇자

출가사문의 본분은 자기수행과 중생교화에 있다. 특히 수행은 불교의 종교적 특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불가의 전통적 가풍이기도 하다. 예전의 스님들이 이런 가풍에 따라 작은 세속적 욕망에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도를 깨닫지 못해 떨어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통곡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도 남는다.

그러나 요즘 출가사문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사회적, 종단적 여건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환경이 어떠하든, 출가자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수행자의 기풍을 지녀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열반한 혜암 종정스님을 흠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혜암스님은 한평생을 장좌불와에 하루 한끼 공양으로 수행에 매진하였다.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여 신도들을 멀리 했으며, 한겨울 불도 때지 않은 방에서 정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지어 구법망구의 정신으로 구들장을 파버린 유명한 일화도 남기고 있다. 도반들과 더불어 여러 차례 결사를 한 것만 보더라도 스님의 수행정신을 읽을 수가 있으며, 종두소임을 볼 때 화두를 잡고 있느라 범종조차 제대로 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스님의 평소 신념은 오직 한가지였다.

"공부하다 죽으리라!"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스님의 수행정신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혜암스님의 대쪽같은 수행가풍을 잇는 일이야말로 자기를 건지고 한국불교를 건지는 요체라는 점을 출가사문들은 겸허하게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부산 불교계 뜻있는 연대

부산 불교계의 '청정화합 시민연대'가 드디어 창립을 한다. 그 동안 승가와 재가가 힘을 모아 준비를 해오던 일이 새해 들어 구체적인 결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참으로 새해 벽두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 지역의 불교 시민운동에 대하여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부산 지역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 2의 도시라 할 수 있는 큰 도시이고, 그 지역의 불교적 잠재력은 제 2를 붙이는 것을 주저할 정도로 막강하다. 그 큰 불교적 잠재력이 우리 사회를 좀더 밝고 맑은 사회로 만드는 힘으로 현실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실로 부산 불교계의 승가와 재가가 화합된 힘이요, 시민사회운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활동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시적인 일보다는 구체적인 일에서 성과를 드러내도록 차분하게 움직여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다행히 부산의 '청정화합 시민연대'는 출가자와 재가자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창립 배경에 깔려 있다. 시민 사회운동에 직접 나서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던 출가자들의 요구와, 출가 승단의 지원 없이는 보다 큰 운동을 일으키기 힘들었던 재가 시민사회운동 지도자들의 요구가 만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청정화합 시민연대'가 더 큰 힘들을 모아가면서 구체적인 일들을 성취해 낼 가능성이 있다.

양자의 요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시작한다면 부산의 불교계를 일거에 바꾸는 쾌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밝고 큰 앞날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그 창립을 축하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사회발전 정책대안 제시

'청정화합 시민연대' 18일 출범

부산 불교단체 연합
상임대표에 정각스님

부산시불교연합회 부설 시민운동단체인 청정화합시민연대(상임대표 정각)가 1월 18일 출범한다.

지난해 11월 가시화된 청정화합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24일 창립 준비모임을 갖고 상임고문, 공동대표, 운영위원을 비롯한 조직과 활동 범위 등을 최종 확정했다. 18일 코모도 호텔에서 기념 법회를 갖고 정식 출범하는 청정화합시민연대는 국가적 사회적 현안들에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불교 시민운동의 단일화된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 시민운동계의 대부로 통하는 정각스님을 상임대표로 부산시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부산시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원스님, 부산시불교법조회 안석태 변호사 등이 상임고문을 맡았으며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 진각종 부산경남교구장 일원 정사, 강호일 부산불교언론인협의회장, 김용태 부산교수불자회 회장 등 주요 사찰 주지스님과 신행단체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운영위원으로는 부산교계의 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승가와 재가를 영입해 각 분야의 연계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탄탄한 인맥을 구축한 청정화합시민연대는 부산불교계의 결집된 힘으로 대사회적 대안 제시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시민운동모임으로 급부상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청정화합시민연대는 종교관계위원회 위원장 정여스님, 문화복지위원회 범산스님을 비롯, 환경, 인권, 언론대책, 연구교육, 지역발전, 여성위원회 등 11개의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로써 청정화합시민연대는 불교적 우주관, 생명관을 토대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환경운동, 통일운동, 시민복지운동, 인권, 교권 수호 등 광범위한 시민운동 영역을 아우르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상임대표 정각스님은 "청정화합시민연대는 승가와 재가의 화합되고 단일화된 힘으로 불교계의 지혜를 대사회적 문제 해결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태고종 종단 간부 스님들이 신년하례식에서 서로 맞절을 하고 있다.

주요종단 시무식

조계종·태고종·천태종·진각종은 신년하례식 및 시무식을 갖고 임오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조계종은 3일 총무원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 교육원장 무비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공사와 9월로 예정된 중앙종회의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태고종은 3일 성북구 총무원청사에서 은산 총무원장, 법장 사정원장, 우담 종회부의장 등 1백여 종단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으며, 천태종(총무원장 운덕)도 2일 구인사에서 시무식을 봉행하고 4년제 '금강대학' 설립 박차, 구인사 광명당 신축 등 종단 불사에 매진하기로 했다.

진각종은 3일 총인원에서 혜일 총인과 효암 통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시무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김 영 민



잘 가꾸자

제보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한 스님이 다비행렬때 사용할 만장(輓章 · 죽은이를 애도하여 지은 글, 또는 그 글을 명주나 기(旗)처럼 만드는 것)을 쓰고 있다.

혹한 아랑곳 조문행렬

해인사 분향소 표정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스님이 입적한 지난해 12월31일부터 해인사와 원당암은 영결식 준비와 조문객들의 분향발길로 분주하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도 차분하고 엄숙함을 잃지 않은 해인사의 표정을 정리했다.

○…스님의 법구는 원당암에서 해인사로 이운됐고 열반을 알리는 범종이 108번 타종됐다. 오후6시 방장 법전스님과 선원, 강원, 율원의 대표와 각 산내암자 도감 및 본사 7직 스님들이 참석해 산중회의를 열어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영결식 준비에 들어갔다.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2시 혜암스님의 법구를 입관하고 상좌스님들이 성복제를 거행했다. 성복제는 속가의 상주들이 상복을 입는 의식과 같은 의미. 보경당에서는 만장을 쓰기 시작했다. 당초 5백여 장을 쓰려 했으나 다음날 1천5백장을 추가 제작하기로 해 6일 영결식에서는 유래 없이 긴 만장행렬이 이어질 전망.

○…2일부터는 매일 아침 7시 영결식 준비 실무 스님들의 회의가 진행되어 준비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으며 9시에는 취재기자들에게 하루의 일정과 특기사항들을 전하는 정기브리핑을 가져 일사불란한 진행이 돋보였다.

다비때 숯·나무 2.5톤 한대분 사용계획
천주교 종교간대화위서도 조화 보내와

○…매일 저녁 6시 산내의 전 대중과 신도들이 혜암스님의 법구가 모셔진 궁현당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모습도 장엄스러운 풍경을 연출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인사 경내에는 혜암스님의 육성법어가 계속 방송되고 있다.

○…3일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법전스님과 종회의장 지하스님,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3당대표의 조문이 이어지고, 각계의 조전과 조화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분향소는 종단의 지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천주교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회에서 보내온 조화가 눈길을 끌었고,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다른 종단 지도자들의 조문도 이어지고 있다.

○…혜암 종정스님을 추모하는 조가(弔歌)도 작곡됐다. 운문스님이 작사하고 정부기 중앙대교수가 작곡한 조가는 6일 영결식에서 조계종 연합합창단에 의해 울려 퍼질 예정.

○…다비장은 해인사 서쪽 2킬로미터 지점으로 성철스님의 다비가 봉행됐던 곳. 거화할 연화대는 직경 3미터 높이 2미터 10센티의 규모로 제작되고 있으며 다비에는 참숯과 2.5톤 트럭 한 대분의 나무가 사용될 계획이다.

○…자원봉사들의 활동도 특기할 만하다. 기자실과 행정 보조, 공양간 작업등에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보태지고 있다. 해인사 수련회나 인터넷 등을 인연으로 해인사에 온 봉사자들은 "추운 날씨에 절에서 먹고 자는 일이 쉽지 않지만 큰스님의 수행정신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웃음을 보였다. 해인사=김두식 기자

圓 曹溪宗 宗正 慧菴堂 性觀大宗師 寂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101-62
전화 : 031-470-3100
팩스 : 031-470-3116

조계종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 예하의 원적을 애도하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국회 불자 회원

한나라당 불교 신도회원 일동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 열반을 이천만 불자와 함께 진심으로 애도하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불기 2546년 1월 6일

새천년민주당 연등회 회원일동 합장

회 장 국회의원 김기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4호
TEL 02)788-2082, FAX 02)788-3224



◇해인총림 선원에서 죽비를 들고 후학들을 경책하였던 혜암 스님은 선방 남자들이 수행하는데 표상이 되었다.

혜암 중정 수행 이력

1920년 3월22일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에서 출생. 속명은 남영
1945년 17세에 일본유학
1946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효봉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 법명 성관
1947년 경북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 시작
1948년 해인사에서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수지
1951년 인곡 은사스님으로부터 "혜암당" 이라 법호 받음
1957년 오대산 사고암 토굴에서 용맹정진 중에 심경을 게송으로 읊음
1967년 해인총림 유나
1970년 해인사 주지
1979년 해인총림 선원에서 90년(71세)까지 12년간 안거
1985년 해인총림 부방장
1987년 조계종 원로의원
1991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1993~96년 해인총림 제6대 방장
1994~99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1999년 5월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

'평생 청정한 계행' 후학들에 師表

조계종 혜암 종정 행장

장좌불와 · 1일1식 '두타고행 철저'

"안으로 정진하고 밖으로 남 도와라"

12월 31일 원적에 든 혜암당 성관대종사는 50년간 두타행을 몸으로 실천하고, 장좌불와 수행을 해온 조계종단의 대표적 선승이다. 스님은 특히 '종헌종법 수호'라는 원칙론을 중시하며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손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시켰다.

스님은 선원대중들에게 항상 "공부하다 죽어라" "밥을 적게 먹어라" "안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밖으로 남을 도와라" "주지소임 맡지 말라" "한벌의 옷과 하나의 밥그릇으로 청빈하게 살라"고 가르치며 납자로서 철저히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금도 스님의 선방생활 기준은 수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혜암 종정스님은 장성읍 성산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원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17세에 일본으로 유학하여 구약과 신약, 유교의 사서삼경, 불교의 조사어록등을 두루 섭렵하며 동양철학을 공부한 스님은 25세 되던 해 일본의 고승전집을 읽다가 〈일휴선사 모친의 유언서〉에 감화를 받고, 또한 〈선관책진〉을 탐독하다가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으되, 항상 큰 광명을 놓도다'라는 대목에서 크게 발심하여 일본 임제종의 유나(維那)로 있던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을 뵙고 〈금강경〉 한권과 '참선을 하라'는 말씀을 얻은 뒤 출가를 결심하고 즉시 귀국했다

스님은 46년(27세) 초여름, 가야산 해인사에 입산출가하여 출가일로부터 50년간 일일일식과 장좌불와를 하며 용맹정진 하였다.

초가을 무렵, 공양주를 계속하며 행자로서 당시 가야총림의 조실인 효봉스님을 찾아 뵙고 "無"자 화두를 결택받아 생사를 뛰어넘는 용맹정진을 계속했다. 백련암 뒷편 환적대로 올라간 스님은 바위굴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장좌불와하며 육일 동안 삼매에 들어 단식 용맹정진하였다.

46년 늦가을 혜암 스님이 인곡 스님의 상좌로 들어가게 된 일화는 아직도 불가에서 흥미로운 얘기로 전해지고 있다. 인곡 선사가 '어디서 왔느냐' 고 묻자 혜암 스님은 '아~악' 이라고 일갈했다. 인곡 선사가 다시 '네 고향이 어디냐' 하자, 혜암 스님은 즉시 손가락으로 허공에다 원을 그렸다.

이에 인곡 선사는 '우리 집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이웃집 말이 배탈났다. 천하의 명의를 불러서 말의 병을 고쳐달라 했더니 아랫집 돼지의 넓적다리에 뜸을 떴다. 이 이치를 아느냐' 고 물었다.

그러자 혜암 스님은 주먹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인곡 선사는 빙그레 웃으며 혜암 스님을 상좌로 받았다.

그리하여, 스님은 10월 15일(음)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득도하고, '성관' 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혜암 스님은 금오 · 효봉 · 경봉 스님 등 당대의 큰스님들로부터 남다른 총애를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큰스님들에게 직언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혜암이는 조실을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 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혜암 스님은 출가이후 가야산 해인사 선원에서 수선안거이래 오대산 상원사와 오대, 희양산 봉암사, 금정산 범어사, 설악산 오세암, 태백산 동암,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 영축산 통도사 극락암,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지리산 상무주암과 칠불암, 조계산 송광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당대 선지식인 한암, 효봉, 동산, 경봉, 전강 선사를 모시고 45하안거를 성만했다.

57년 초겨울 혜암 스님은 "공부하다 죽으리라" 결심하고 오대산 사고암(영감사) 토굴에 들어갔다. 영하 20℃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에도 방에 불을 때지 않고 오직 잣나무 생잎만을 따먹으면서 초인적인 그행정진을 하였다. 몇 달이 지나자 통편이 되지 않아 단식정진을 반복하고 나서 하루에 잣잎과 생콩 10알씩을 먹으며 용맹정진 하였다. 혜암 스님은 이 때에 수마를 완전히 항복받아 4개월 동안 한 순간도 혼침에 빠지지 아니하고 수면이란 본래 없는 것임을 확연히 체험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게송을 읊었다.

迷則生滅心(미즉생멸심)이요,
悟來眞如性(오래진여성)이라.
迷悟俱打了(미오구타요)하니,
日出乾坤明(일출건곤명)이로다.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미혹과 깨달음 모두 쳐 부수니,
해가 돋아 하늘과 땅이 밝도다

스님은 재가불자 지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81년 원당암에 재가불자 선원을 개원하여 매년 하 동안거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를 21년간 주관하였다.

96년에는 달마선원(시민선원, 108평)을 신축하여 이 해 가을부터는 원당암에 주석하며 매 안거마다 100여 안거대중과 200여 일주일 용맹정진 대중 그리고, 매월 500여 토요 철야법회 대중에게 참선을 적극 지도함으로써 선의 대중화, 생활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스님은 해인사와 종단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70년 4월, 해인총림 쇄관에서 결사 안거 중에 발생한 소위 "구들장 사건"이 수습되지 않고 방장 스님과 주지의 사퇴로 확대되었다. 이에 총림대중은 쇄관에서 3년 결사중인 혜암스님에게 이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혜암스님은 8월까지 5개월간 주지직을 수행하여 사태를 해결한후, 바로 사임하고 문경 봉암사 백련암으로 들어가 이듬해 여름 안거까지 정진하였다.

85년에는 해인총림 부방장에 추대되어 총림의 발전과 총림대중의 용맹정진 가풍진작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94년 4월, 원로회의 의장으로 추대되어 조계종 개혁불사시 개혁회의를 출범시켜 개혁종단을 탄생케 하고 그 이후에도 종단의 안정과 지속적인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98년 11월, 조계종 종단사태시에도 원로회의 의장으로서 '종헌종법 준수'의 기치를 높이 천명하여 사태가 합법적으로 해결 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생을 청정한 계행과 장좌불와, 일일일식등 철저한 두타고행으로 수행정진한 혜암 스님은 99년 4월 2일 종정추대회의에서 조계종 제10대 종정으로 추대된 뒤에 "우리 종단이 혼란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막행한 결과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율을 엄정하게 지켜서 승가의 본분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지계청정(持戒淸淨)', 종단의 바른 가풍을 드러내자는 '종풍선양(宗風宣揚)',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자는 '전법도생(傳法度生)'을 당부한다"고 천명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헌 종법 수호를 위한



◇혜암 스님이 98년 종단사태 당시 조계종 승려대회에서 종헌종법수호 법어를 내리고 있다.

분규 등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개혁의 길' 열어

종단 안정 이끈 혜암 스님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은 조계종 종풍을 세운 것은 물론 폭력으로 얼룩지고 종권 다툼으로 분열된 종단을 법력(法力)으로 고비를 넘기게 하고, 종단안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947년 성철 우봉 자운 도우 법전 일도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들어 참선수행을 뼈대로 각종 불교 예식과 전범을 세워 초계종풍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94년 조계종 개혁불사 때는 원로회의 의장으로서 개혁파 스님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한국불교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 개혁불사 때, 서암 전 종정스님과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절친한 도반임에도 사사로운 정을 의식하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을 정도로 혜안을 갖춘 큰 스님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98년 11월 조계종 종단사태 때는 '누구든 종헌종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강한 소신으로 종단을 이끌었고 사태를 합법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앞장섰다.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실천적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산에서 내려와 종단을 바로 세우고 안정시킨 혜암스님. 원칙과 소신,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죽비 역할을 해온 것은 스님의 철저한 수행력이 그 바탕이 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금강불교대학 2546년(2001)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과	지역 (기수)	교육년한	교과목	교육일시	지원자격	특전
불교학과	기본과정	1년	의례와 수행, 불교입문, 원시불교, 불교문화사, 불전이해, 불교학개론	매주 월, 화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수업료는 증단에서 지원 · 수료 후 중급반 진학 자격취득
	중급과정 (서울19기, 부산14기)	1년	반야사상, 법화경(1)(2), 비교종교론, 천태선, 정토사상, 유식사상, 불교사개설, 기신론	매주 목, 금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본교 기본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수업료는 증단에서 지원 · 졸업 후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 취득
교법사과정	서울(9기) 부산(9기)	1년	천태종학(1)(2), 화엄학, 밀교사상, 대승불교론, 기신론, 포교방법론, 포교실습	매주 수, 목 1교시 :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 오후 8시 00분 ~ 90분간	① 본교 중급과정 졸업자 또는 ② 불교전문 교육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는 증단에서 지원 · * 졸업 후 별도 시험 과정을 통하여 증단내 교법사 선발

학과	모집정원		제출서류	면접일시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료	전형방법	입학식
불교학과	서울 · 부산 각 120명	기본과정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반명함판사진 5매(원서용포함)	*서울 2002년 2월 20일오후 6시 *부산 2002년 2월 23일오후 6시	가. 기 간 : 2001년 11월 20일~ 2002년 2월 5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원서료 : 5,000원	가. 1차 서류 나. 2차 면접	*서울 : 2002년3월1일 오전 11시 *부산 : 2002년3월3일 오전 11시
		중급과정	가. 기본과정 수료증명서 1통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서울 2002년 2월 19일 오후 6시 *부산 2002년 2월 22일 오후 6시				
교법사과정	서울 · 부산 각 50명		가. 입학원서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1통 다. 반명함판사진5매(원서용포함) 라. 본 대학 중급과정 졸업증명서 1통					

2. 교수진 소개 (불교계 국내 최고의 정상급 교수진)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원의범-동국대명예교수 정태혁-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자-동국대명예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장충식-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조용길-동국대교수
이봉춘-동국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김용표-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김사업-동국대교수
장휘옥-동국대교수 최종석-동국대교수 지창규-동국대교수 김승일-동국대교수 최기표-동국대교수

3. 원서교부처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무과 02-576-6401 신촌성룡사 02-336-2052 봉천동명락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망우동삼룡사 02-496-3839 구로명화사 02-854-0196 인천연화사 032-873-0747 수원용광사 031-255-4105
안양대안사 031-459-3666 성남화성사 031-745-1482 구리금성사 031-563-9364 평택법장사 031-655-9090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무과 051-808-0730 울산정광사 052-277-7100 마산삼학사 055-244-6464 대구대성사 053-651-6108
포항황해사 054-277-3611 김해해성사 055-336-3585

4. 면접장소

◈ 서울 금강불교대학 ◈ 부산 금강불교대학

5. 합격자발표

◈ 2월말 개별통보

6. 대학위치

◈ 서울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 (02)576-6401~2 FAX : (02)574-1541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05, 06번 버스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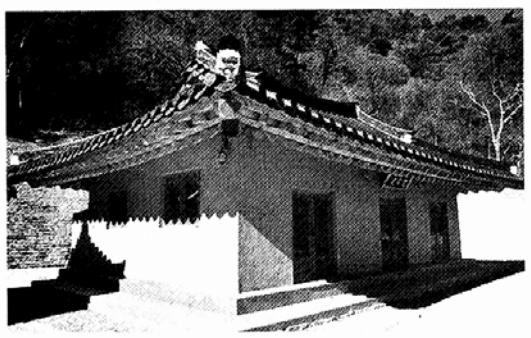
◈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 (051)808-0730,0713 FAX :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

몸소 보여주신 '수행의 빛' 불자 가슴속 영원히…



◇99년 혜암문도회 스님들이 혜암 스님의 생신날 해인사 원당암 선방앞에 모였다.



◇스님이 말년에 주석한 미소굴 전경.



◇스님이 평소 앉아 경전을 읽던 법좌.

"時·空 부리며 살라" 가르침에 환희심

추도사 법전(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하늘과 땅 밖에 뿌리하시고 삼천 대천세계를 몸집 삼아 유유적적 오고감이 없고, 생사 없음을 보이신 종정스님의 모습 앞에 저희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으며, 비봉산은 첩첩하고 미소굴은 본래한데 스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돌아 가셨다 해도 옳지 못한 것이요, 설령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해도 옳지 못한 일이니, 이러한 때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크게 발심하여 해인사로 출가한 이래로 평생토록 눕지 않고 정진하는 장좌불와와 하루에 한끼만 먹는 일종식을 하면서 위법망구의 두타 고행정진을 열반하실 때까지 계속 하시어 어떤 것이 중노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수행의 빛은 종도들의 가슴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가시는 듯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시대 마지막 천진도인" 아쉬움

영결사 정대(조계종 총무원장)

종정 혜암 큰스님! 정녕, 오늘 우리 곁을 떠나십니까. 스님께서는 얼마 전 신년법어와 함께 모두가 본래 부처이니 용서하라 하시고, 대립과 투쟁의 마음을 쉬어 청정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지켜 보시지도 않고 오늘 가시다니요!

스님의 영정 앞에 서니 순수를 잃어 가는 오늘의 세태에서 어쩌면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남은 천진 도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아쉬움은 더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슬픔만으로 스님의 가심을 어찌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스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큰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스님을 잃은 슬픔을 대신하고, 이 땅에 다시 정법을 구현하고 불국정토를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금 사바에 법체 현현 하옵소서"

조 사 지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혜암 종정 큰스님! 정녕 미흡한 중생들이 더 이상 뵈올 수 없는 것이옵니까?

대종사시여! 다시금 사바세계에 법체를 현현하옵소서!

조계종의 선맥이신 큰스님께서 불교계의 기풍을 바로 세운 봉암사 결사를 이끄시고, 대쪽같은 올곧음으로 어려움 속에서 불교를 건져내어 오늘에 이르게 하시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큰스님의 법체는 가야산을 갔으나, 가르침은 법보산(法寶山)에 영원한 법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야산의 밝은달이 온누리를 비추이듯, 혜암큰스님의 높은법문 삼계중생 건지었네.

한광옥 새천년 민주당 총재

큰스님! 어디에 계시옵니까! 한국불교계의 밝은 빛을 비추셨던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큰스님의 일생은 신념과 원력으로 진퇴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정한 수행자로 곧게 매진하는 길을 걸으시면 서도 어느 때에는 해인사주지, 원로회의 의장, 해인총림 방장, 종정 등 대외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쌓아온 모든 경륜을, 원칙과 뚜렷한 소신으로 종단사태를 해결하고 조계종의 종지를 수호하고 종단의 중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요익중생의 대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사부대중이 청청한 마음을 되찾고 이 사회가 원융화합이 이루어지는 대작불사를 시현하여 주옵소서.

요익중생대원으로 다시 오셔서
원융화합 대작불사 시현하소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몇해 전, 스님께서는 종정으로 추대되실 때, '삼라만상이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모든 일이 道가 아닌 것이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혜암 큰스님! 돌이켜보건대 스님의 한결같이 깨끗한 성품과 정갈한 행동은 이 시대의 정화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당신께서 염원하시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 가시는 길에 부디 저희들의 부끄러움까지 함께 짊어지고 가시다 불살라주십시오. 그리하여 새로 시작되는 올해부터는 모두가 자기를 버림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스님과 같은 용기와 신념으로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 를 세워 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기를 서원합니다.

깨끗한 성품과 행동은 정화수
우리 부끄러움도 불살라 주소서

김종필 자민련 총재

혜암종정께서는 스스로의 수행에 그치지 않으시고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지도하시는 데에도 많은 현신을 하셨습니다. 큰스님을 떠나 보내면서 일깨워주신 이타정신을 깊이 되새깁니다.

"안으로는 자신의 본모습을 깨치도록 철저히 수행하고, 밖으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성이 메마르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세상에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나라 지도층이 행동으로 앞장서 실천해야 할 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모든 중생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열리기를 마음으로부터 회원합니다.

항상 일깨워주신 이타의 가르침
지도층 행동으로 실천할 금언

백창기 조계종 中信會 회장

본래 오고 감도 없고 머문 바도 없는 것이 일생을 위법망구 활구참선하시며 청정계풍의 사자후로 광도중생하신 큰스님의 본분가풍이라지만 미망의 안개 속을 헤매는 저희에게는 스님이 떠나신 빈자리가 너무도 큽니다.

일생을 일일일식 오후불식 장좌불와 정진하신 스님의 청정수행가풍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종단을 구하고 종풍을 바로세운 당간지주이자 상처받고 흩어진 종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또한, 번뇌망상과 탐진치 삼독에 빠져 생사윤회하는 중생에겐 무생법인의 활로를 일러주신 고구정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평소 강조하신 다섯가지 계행은 승속을 아우르는 깨달음의 지침서였습니다.

종도마음 하나로 모은 구심점
중생에겐 스님 빈자리 너무 커

보름전에도 은사님 뵈었는데…

원각 스님 (고견사 주지)



◇혜암 스님의 두번째 상좌 원각스님.

마지막 스님을 뵈온게 보름 전쯤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계시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런 변을 당하니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경입니다.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유나소임을 맡으셨습니다.

혹시 대중들이 사하촌인 신부락에라도 갈라치면 꾸짖으시고 정진에만 열중하도록 경책하셨지요. 그 후로 지리산 상무주, 문수암, 각화사 동암, 남해 용문사, 칠불암 등 여러 곳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스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도량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방사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시고 다른 대중들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산중에서 대중들과 정진만를 하고 첫해인 총림선원에서

약수암서 시험준비하다 스승과 인연

"적게 먹고 용맹정진" 실천
톱질·장작패는 법도 일러줘

제가 처음 스님을 뵈온 게 66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약수암에서 시험준비를 하다가 봉철스님과 인연이 되어 출가를 결심하고 중봉암에 있을 때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출가를 허락하시며 하시던 그때 말씀이 지금도 역력합니다. 상좌를 잘못 가르치면 동타지옥에 빠진다시며 인과를 믿고 훨저히 수행할 것과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젊을 때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시키는 대로 수계하시다가 근년에는 종단에서 중책을 맡으시고 종단 제반사에 중심적 역할을 맡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칙에 입각해서 소신있게 처리하시려고 노력하였셨지요.

그리고 스님들과 신도들께 법문하실 기회만 있으면 오로지 참선할 것을 권하시면서 그것이 '수지맞는 일' 이라고 강조하시던 스님,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 속히 오셔서 광도중생 하시옵소서.

방명록을 펼쳐보니

天地天堂俱淨土(천지천장구정토) 虎穴魔宮總蓮邦(호혈마궁총연방)
天下無碍家鄕路(천하무애가향로) 刹刹塵塵自在遊(찰찰진진자재유)
땅과 하늘이 모두 정토이며, 호랑이 굴과 마귀의 궁전이 모두 연꽃핀 곳이로다.
천하가 모두 걸림없이 고향가는 길이니, 어느 곳에서나 자재하게 노닐도다.
법흥(송광사 회주)

長坐不臥五十年(장좌불와오십년) 菩薩修行爲衆先(보살수행위중선)
慧菴無心曹溪蜂(혜암무심조계봉) 性觀古佛本來邊(성관고불본래환)
장좌불와 오십년에, 보살행과 수행이 뭇 중생들의 스승이 됨이라.
혜암스님께서는 무심히 조계봉에 오르셨으니, 성품을 관한 고불이시여, 본래자리로 돌아오소서.
근일(고운사 회주)

去來所去(거래소거) 來無所來(래무소래)
大千世界(대천세계) 本無來去(본무래거)
가도 간 곳이 없고, 와도 온 곳이 없다.
대천세계는, 본래 오고감이 없구나.
법산(조계종 고시위원장)

새해에는 원불 조성 봉안하는 원력을 세워야겠습니다.

- 원불. 아미타 영구 위패불 -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힘이 들수록 빈 가슴에 채워지는 갈등과 번민은 살아갈수록 삶이 더욱 어렵다는 생각 뿐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지난날에 지어놓은 복이 이렇게도 없나 여겨집니다.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 복 지을 기회도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도 작은 복이지만 부처님 법 만남을 행복해 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하는 일이 안될 때에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도 안될 때에는 제사를 정성스러이 지내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정성스러이 지냈는 데도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재산을 헐어 보시하라." 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 전에는 결단코 성불하지 않겠다." 고 하였습니다. 고통받는 증생을 위해 지금도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문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충만케 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보원사(寶圓寺)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영가를 극락세계로 맞이하는 영구 위패 불(1.5x 1.2x 0.8)과 생(生)자의 원력과 소원을 담은 행복한 삶을 위해 원불(願佛:법륜마크)을 조성 봉안하고자 합니다.
조상의 위패를 아미타 부처님 품안에 영구히 모시고 정성스러이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것은 유주 무주 애혼 고혼의 모든 영가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인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대 발원의 의미이며, 원불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 원불에 자신의 발원과 원력을 싣고, 원력과 발원을 실은 원불을 모신 공덕으로 팔만 사천 불 보살님과 선신(善神)의 보호와 가피로 스스로의 하는 일이 잘되고 가정이 화목하며 자식이 크게 성장하는 지름길을 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추는 곳에 죽어 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부처님 그림자가 비추는 곳에 천마와 외도가 자취를 감춰 모든 재앙이 즉시에 소멸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큰 공덕은 수학 공식으로도 비유할 바가 아니라" 했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원불을 모시는 원력을 세워야겠습니다.
원불을 모신 원력과 공덕으로 남은 생과 미래생에 무량복덕을 수용하며 이웃사랑으로 남겨두는 여유를 두려 합니다.
오는 새해 불국토를 장엄한 공덕으로 무량 복 받으소서.

불기2546년 원단 정안 합장

동참방법 원불 1인 1영구 위패 불
동참 발원금(일시불 - 200만원, 100만원씩 - 2회, 20만원씩 - 10회)은 분납하셔도 됩니다.
* 축대 불사 동참 10만원 * 농 협 227050-51-180421 강보원(보원사)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26-1 전화 031-585-4897, 011-703-0408

대한불교 조계종 보원사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 양성을 위한

출강 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학인으로 인연맺어 일체 선근을 증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 교수합니다.

본 대학에서는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 ❶출강반 ❷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의식)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의식)
6. 교육 장소 : ❶서울 본 대학 ❷부산 학습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종단에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 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일주문



'올해의 대구인' 선정

혜공 태고종 총무부장(대구 관암사 주지)은 구랍 20일 대구 사랑시민회의에서 주최한 '올해의 대구인'으로 선정됐다.



중·고생에 장학금 전달

지원 부산 문수사 주지는 구랍 26일 부산문화회관 영빈관에서 중·고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미군아파트 반대 시위

진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용산 미군 아파트 건설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한다.



영가천도 위한 법문

수진 전 해인사 승가대 학장 스님은 구랍 26일 부산 구룡사에서 영가천도를 위한 법문을 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성덕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장은 17일 연합회 강북법당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다.



발전다짐 신년인사회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8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박물관, 미술관 발전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다보강좌 초청강연

정병조 동국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강좌에 초청돼 강연한다.(02)719-1855



4불자회 합동송년법회

장영효 MBC불교연구회장은 구랍 27일 여의도포교원에서 여의도 소재 4개 불자회와 합께 합동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청년회 26대회장에

오홍수 진각종 전국청년회 수석부회장은 구랍 23일 열린 제28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전국청년회 26대 회장에 선출됐다.

인 사

태 고 종 ◇총무원 총무국장 겸 기획국장=진허 스님, 교무국장 겸 재무국장=법타 스님

"직장상사·동료·후배가 스승"

임오년을 뛰는 불자 ① 한국은행불교회 하용이 간사장



"불자에게 가장 소중히 미덕은 하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직장 내 포교 문제를 항상 생각하는 저는 이 배움을 한 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부처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 동료, 후배 모두 불성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그들을 저의 거울, 스승으로 삼는 데서 올해 포교의 첫 걸음을 내딛을 겁니다."

14년째 한국은행 불교회 살림을 도맡아 온 하용이 간사장(49 · 한국은행 은행국 대외협력팀장 · 사진). 그는 IMF 이후 금융가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임오년 새 해 한국은행 불교회원들의 수행과 신심을 다지고 일반 행원들에게 전법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우선 하 간사장은 작은 풀 하나, 굴러가는 돌멩이에도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2백여 회원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서로를 믿고 따르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러 스님과 법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법회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펴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 불교회는 매주 정우, 묘주 스님과 김태영, 박남수 법사의 법문을 번갈아가며 듣고 있는데, 다양한 주제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회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 간사장은 "14년 동안 불자회의 실무를 맡고 보니, 이제 법회에 회원이 몇 명이나 나올까, 법사님 섭외는 잘 될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참회하고 정진하다 보면 자연히 남들이 모두 도와주고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체득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하 간사장의 마음 씀씀이는 수십 년의 신행 활동으로 닦은 원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는 한국은행 불교회의 정기법회며, 전국금융단 불교연합회의 합동법회나 용맹정진법회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한국은행 광주지점에서 근무할 때 무각사와 문빈정사의 거사림법회에도 꾸준히 나갔다. 이와 함께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룸비니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도 한 몫을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모르면서 불교를 가르쳐 준다고 초심자들에게 이런 저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항상 반성하고 있다"는 하 간사장은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행원 불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임오년 새해를 맞으며 행원 불자들을 위한 수행 공간 마련을 서원했다는 하용이 간사장은 "행원 불자 중에는 퇴근 시간을 쪼개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금융기관이 많은 서울 중심가에 행원 전문 수행처를 마련해 행원 도반들의 신심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행원 초발심 유도 진력…서울도심에 수행공간 마련 서원

"내겐 동국대가 신행원찰 '생활경전' 금년안에 제작"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정인악 회장



"내게 있어 동국대학은 불교를 배우는 상아탑 이전에 신행과 수행의 원찰입니다.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를 원찰의 단위 신행단체라 생각하고 키워나가겠습니다."

11일 동국대학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정인악(69 · 남양사 회장,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총재) 신임 회장은 총동창회를 불교를 배우고 신앙을 성취할 수 있는 모임으로 한 단계 이끌어 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이 우선사업으로 내세운 것이 장학회 설립이다. 하지만 이 장학회는 여느 장학회처럼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보시용 〈생활경전(가칭)〉 발간을 주목적으로 하게 된다.

"불교학자들과 동국역경원의 자문을 얻어 불자들에게 가장 요긴한 경전내용을 뽑아 1천 쪽 분량의 〈생활경전〉을 연내 제작할 생각입니다. 동문들에게는 성경처럼 항상 휴대하며 신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 회장은 이의에도 동문회보를 펴내고 여성합창단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보는 2천여 동문들의 신행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계간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이고, 여성합창단은 여성동문(7백여 명)들의 화합과 불교음악 보급을 위한 정회장의 복안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정인악 8대 회장 취임식은 11일 오후 6시 30분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에서 열린다.

김중근 기자

임오序詩

혜종

동해의 황금 물보라
헤치며 떠오르는
한 덩이 붉은 해 눈맞춤하러 가자
한 덩이 붉은 해 마시러 가자
한 덩이 붉은 해 품으러 가자

백마여
은바닥 위 뒤로 채며
바람같이 달려오라

겨레여, 민족이여
자,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나
가슴을 열어라
한덩이 붉은 해를 향해
액운은 멀리 보내
바람결에 날려 보내

건강 소망 행복
풍요로움 실어다 주옵소서
한 덩이 붉은 해
백마여, 싣고 달려오라.

임오년 새해를 맞아 연두송 '임오序詩'를 보내온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혜종 스님은 8일 부산 코모도 호텔 충무홀에서 시집 〈그리움〉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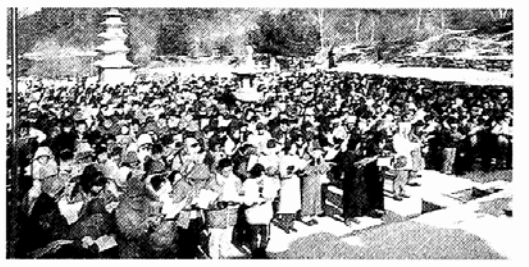
대한불교 진흥원 소쩍새 마을 위문

대한불교 진흥원 서돈각 이사장과 최명준 사무국장 등은 지난 12월 24일 장애인 복지시설 원주 소쩍새 마을을 방문, 금일봉과 과일 빵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소쩍새 마을을 직접 둘러본 서돈각 이사장은 "불교계 단체들이 자주 방문해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토로했다.



소림정사 등 해오름법회 봉행

창원 구룡사, 금강불교아카데미, 전국 백련회, 소림정사 등은 합동으로 구랍 31일부터 1일까지 경주 감포에서 '임오년 새해 아침 해오름 대법회'를 봉행했다.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지형 스님(소림정사 주지)은 "올 한해 말처럼 부지런하고 끈기있게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참불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금강경독송회 정초기도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일 충북 중원군 세계사에서 임오년 새해를 맞아 정초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16개 지역 법당과 미국 일본 등에서 온 1천여 명의 회원들은 〈금강경〉 1독과 미륵존여래불 정진, 발원 등을 하며 "마음공부를 통해 내 자신과 이웃을 밝혀 나갈 것"이라는 서원을 세웠다.



열반종 미얀마스님 초청법회

대한불교 열반종(총무원장 해곡)은 3일 한 · 미얀마 불교교류 15주년을 맞아 미얀마 대승정 우산다 바테 스님 초청 법회를 용인시 와우정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열반종 포교부장 동진 스님, 성대석 신도회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우산다 바테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한 · 미얀마의 불교발전을 기원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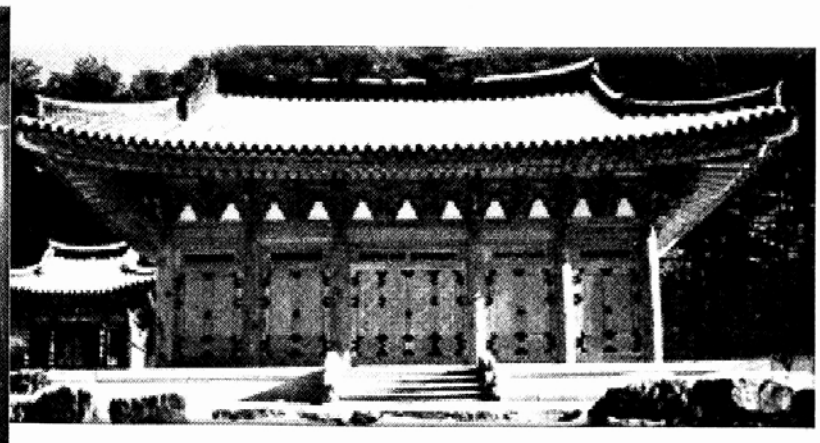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 남 · 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璡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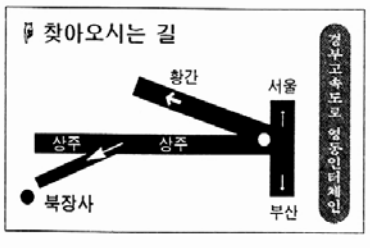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 장 사

주지 효 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가벼운 나들이조차 힘든 소쩍새마을 식구들.

소쩍새 마을

낡은 가건물서 추위와 싸움

성일(19, 정신지체장애2급)이는 요사이 답답하다. 지난 가을 산사음악회를 다녀온 뒤로 단 한 번도 마을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성일군 뿐만 아니다. 1급 지체장애인들은 아예 방 밖을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가벼운 나들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요즘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는 말조차 꺼내기 미안하다.

부식비마저 줄일판

9살 꼬마아이에서부터 85살 어르신까지 214명의 장애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소쩍새마을(원장 현각)의 겨울은 춥고 답답하다. 답답한 것은 그래도 낫지만, 연료비와 부식비 등 평소보다 쓰임새가 많이 늘어나면서 살림살이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보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돌 볼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곳 살림은 후원금과 후원물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후원금이 30% 가량이나 줄어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이 더욱 쪼여들었다. 가족 한 사람당 매월 60~70만원의 생활비에 연료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부식비를 줄여야 할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후원자가 매월 300 여명 이상씩 끊기고 있다.

후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주거시설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다. 무허가 조립식 가건물 곳곳이 보수가 시급할 정도로 낡았지만 손도 못 대고 있다. 게다가 건물의 50%가 넘게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묶여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배려는 꿈도 못 꾼다. 아직 미인가시설로 남아 있어 정부지원도 전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원주 시내 근처로 이전불사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생활비조차 여유가 없는 현재로서는 '꿈'에 불과하다.

소쩍새마을 원장 현각 스님은 "육체적인 장애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마음만은 여유롭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만 하다"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배려하는 관심이 아쉽다"고 말했다.

후원금·물품 계속 줄어

소쩍새마을 가족들은 부처님 품안에서 재활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편한 몸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만은 버리지 않고 산다.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은 마을 가족들에게는 곧 '희망'이다. 많은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후원방법, 전화 033-762-9870(소쩍새마을), 02-928-0750(사회복지법인 승가원), 계좌 국민은행 093-01-0286-399(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ARS 060-700-1525

김철우 기자

신행캘린더

1월 11일 (금)

■좋은벗들 '북한문화 이해' 강좌=북한돕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좋은벗들이 2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7시 20분 정토회관에서 '제9기 통일대화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통일강좌는 '2002 남과 북 문화로 만난다'는 주제로 북한의 애니메이션, 북한의 미술, 음악 등 북한의 문화가 소개된다. (02)587-8996

1월 12일 (토)

■터사랑 '경주답사'=불자가 꼭 가봐야 하는 곳 1순위로 꼽히는 경주. 임오년 새해를 맞아, 신라 천년의 고도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불교의 진수를 맛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터사랑은 석굴암, 불국사, 경주



◇석굴암 본존불

국립박물관, 황룡사지, 분황사, 대왕암, 감은사 등을 돌아오는 경주 답사를 기획했다. 출발은 서울 안국역 4번 출구 아침 8시. 참가비는 성인과 어린이 각각 9만원과 8만원이다.(02)725-1284

■통도사 화엄산림 회향 대법회=통도사는 지난 12월 15일(음력 11월 1일)부터 진행된 화엄산림 법회를 회향하는 대법회를 9시부터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그동안 계속된 화엄경 강론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교사 현산스님의 회향법문과 영가천도 등이 계획돼 있다.

통도사는 그동안 화엄경의 30개품을 뽑아, 월운 · 성타 · 무비 · 종범스님 등 27명 스님의 강론을 진행해왔다. (055)382-7182

■티베트를 생각하는 모임 '티베트어공부모임'=티베트를 생각하는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후3시 동국대 동국관 M405에서 티베트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티베트어도 배우면서 티베트 문화도 배우고 달라이라마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강의 교재인 '모던 티베탄'은 답람살라에서 티베트어를 가르치기 위해 쓰이는 교재.(019)403-3050

■불광사 동계 횃불 정진대회=서울 불광사는 아도 화상이 처음 불교를 전한 경북 구미 아도모례원에서 14일까지 중고등학생 대상 동계 횃불 정진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자신을 추스르고 새해를 맞는 다짐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기회는 없을 듯. (021)413-6060

1월 13일 (일)

■법장사 '성도재일 기념법회 및 정진기도회'=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이 득도하심을 기뻐하는 큰 법회를 여는데 이를 성도회 또는 납팔회라 한다.

서울 법장사는 20일 성도재일을 맞아 13일부터 7일 동안 정진기도와 주지인 퇴휴스님이 법문을 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화려한 봉축연등을 내걸어 부처님의 진리가 세상을 환히 밝히는 것을 기념한다.(02)971-0303

1월 14일 (월)

■직지사 어린이 단기 출가=어린이들이 동안거에 들어가 스님들처럼 의젓한 모습으로 참선 삼매에 든다. 과연 어린이들은 어떤 화두를 들고 불법에 다가설까.

김천 직지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9일까지 단기출가를 계획했다. 이 기간동안 어린이들은 발우공양부터 예불, 참선, 다도까지 스님들의 생활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054)436-1355

어린이법회로 복지관으로 '봉사의 삶'

우리 절 우리 신도

광명 금강정사 김명숙씨



◇김명숙보살이 어린이들을 봉고차에서 내려주고 있다. 김보살은 매주 일요일 어린이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봉고차로 아이들을 사찰까지 데려온다.

13년째 사찰 수송차량 운전
가족·이웃 부처님 가르침 포교

"천천히 내려요. 절에 다 왔어요. 조금 있으면 법회가 시작될 텐데 스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오세요."

6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에 10명 남짓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실은 봉고차 한 대가 도착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방금 도착한 것이다.

잠시 후 봉고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꾸벅이는 어린이들과, "오늘 법회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감기로 고생하던데, 좀 좋아졌니", "법회 도중 도망가지 않기로 했지", "동생은 오지 않았구나. 어디 아프니" 등 친자식 대하듯 아이들의 일상 하나하나를 챙기며, 하차를 돕는 50 안팎의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바로 91년부터 이곳 금강정사에서 어린이 법회 수송차량을 운전하며, 원거리에 있지만 매주 일요일 열리는 법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의 발이 되어 온 김명숙(50 · 대각심) 씨다. 봉고차에서 내리는 아이들 대부분은 수년 전부터 김 씨의 봉고차를 이용해 온 터라, 당부와 걱정이 담긴 말에 해맑은 웃음과 깍듯한 인사로 대답했다.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오전 12시 10분에 봉고차를 몰고 나가야지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법회에 맞출 수 있습니다. 또 4시까지 법회가 끝나길 기다려야 하고, 다시 2시간 남짓 광명시 구석구석을 돌며 아이들을 집 앞에 내려다 주어야 합니다. 10년 동안 매주 일요일 이 일을 반복했지만, 절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즐겁기만 했어요."

김 씨가 이렇게까지 절일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금강정사를 찾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키워왔다. 즉 김 씨에게 금강정사는 정신적인 풍요로운 삶을 가꿀 수 있는 녹야원과 같은 곳이다.

김 씨가 금강정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90년. 첫 돌을 맞기도 전에 큰 화상을 입은 아들 걱정에 생긴 마음의 병을 달래고자 했던 게 금강정사를 찾은 계기가 됐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부산 범어사 사하촌에서 조석(朝夕)으로 범종소리를 들으며 자란 김 씨인지라, 금강정사에서의 적응과 배움은 빨랐다.

"처음엔 저 혼자 법회만 참석했는데, 아들 걱정에 혼란해진 마음이 점차 편해지더군요. 그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왜 우리의 마음을 편히 해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91년도에 지홍 스님에게서 기초교리를 3개월간 배웠습니다."

스님의 강의를 듣고 난 이후 개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김 씨의 신행은 가족을 포교하고 사찰의 소임을 맡는 것으로, 다시 도움이 필요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으로까지 확대됐다.

김 씨는 어린이 법회 참가 차량 운행, 불교용품 향운각 관리 등 사찰 소임을 맡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남편과 자녀(1남 3녀)들을 설득해 매주 일요 법회에 함께 참석해 신심을 다지고, 사찰 인근에 있는 하안복지관에서 매주 급식, 설거지, 도시락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특히 김 씨의 '사찰 사랑'은, 장녀(명효정 · 24)와 차녀(명소연 · 22)가 금강정사의 정기법회 때 피아노 반주를 맡거나 어린이 법회 교사를 할 정도로 대를 잇고 있다.

"제 자신의 평정심을 찾기 위해 금강정사를 처음 찾았지만,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곳을 찾는 다른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데서 더 큰 환희심을 느끼고 있다"는 김명숙 씨는 "금강정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오종욱 기자

추천의 말

지홍 스님 금강정사 주지



대각심 김명숙 보살은 맑은 영혼을 가진 신심 두터운 사람이다. 현재 금강정사에서 신도회 부회장 격인 '명등'으로 있으며 감사의 소임을 맡고 있는데, 지난해 첫 감사에서 백원 단위의 영수증까지 꼼꼼하게 챙겨 신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런 대각심 보살의 주변에 신도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대각심 보살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 금강정사 용품점에 7~8명의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참여할 정도다. 이러한 인덕은 분별에 얽매이지 않는 대각심 보살의 생활관에서 엿볼 수 있다. 대각심 보살은 어린이 법회 때는 물론 사찰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신도들의 모임이 있을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차량 운행을 자처한다. 그 마음에 분별없는 하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2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학교연혁
1989.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제9회 졸업생배출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2년 1월 25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8 FAX.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 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유학생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3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월 18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8 팩스: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18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아봐타 마스터 코스 리뷰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고준환 경기대(법학) 교수.

'한계없는 의식' 경험…자기 뜻대로 사는 길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고준환 교수의 아봐타 체험기

1. 아봐타란 무엇인가
2. 수련과정
3. 아봐타의 메시지



필자는 지금부터 40년 전 서울대 법학과 1학년 때 법불회 주최 불탄절 기념 법회에서 이청담 스님의 '마음 법문'을 이생에서 처음으로 들었다. 나는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진리'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 살아오고 있다. 반면에 나는 다른 수련체계로 국조 단군왕검을 중심으로 하고,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심기신(心氣身)을 수련하는 신선도(神仙道),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의 초월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 현대 미국의 부처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해리 팔머(Harry Palmer)가 창시한 아봐타(Avatar) 등을 배웠다. 1992년부터 경기대 교수로서 미국 죠지 워싱턴대에 교환교수로 2년간 머문 것이 필자가 아봐타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필자는 자기의식개발 과정인 아봐타 코스와 아봐타를 가르칠 수 있는 마스터(Master) 코스, 그리고 궁극적 과정인 위자드(Wizard) 코스를 마치고 합월(含月) 박준수 변호사, 능인(能仁) 이인자 교수, 아내 조순옥 등 10명에게 아봐타를 전수한 바 있다. 한국에서 한국인 마스터에 의해 아봐타를 전수한 것은 필자가 처음이다.

아봐타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바(ava, 아래로)와 타라(Tara, 땅)의 합성어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화신(化身, incarnation) 즉 신선(神仙)이나 화신불(化身佛), 또는 보살(菩薩)을 의미한다.

해리 팔머는 "아봐타는 자발적으로 창조에 참여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나타난 신성(神性, deity)이며, 깨달음의 길을 다 가서 '한계 없는 의식(awareness without limit)'을 경험하고 창조세계로 돌아온 존재"라고 그의 저서 〈창조학(creativism)〉에 썼다.

여기서의 아봐타는 해리 팔머가 대학생 시절부터 〈선(禪)불교〉 〈주역〉 〈도덕경〉 〈하리크리슈나〉 〈라자요가〉 〈싸이엔톨로지〉 〈바이오 피드백(Bio-feedback)〉 등 구도의 방황 끝에 많은 영적고양(靈的高揚)을 경험하고, 감각차단탱크(Sensory deprivation tank)를 통한 깨달음을 얻었는 바, 한 순간에 속속들이 깨달아 알게 된 초월적 경험을 가졌다. 생명에 대한 완전한 자비를 경험했으며 그대로 머무를 수도, 돌아올 수도 있는 보살의 선택권이 있었으며, 지켜봄(observing)과 그 대상 사이에 분리가 없었다 한다.

그 후 그는 미국 뉴욕주 버크(Buck)산에 들어가 보임(保任)한 다음, 1986년 10월 17일부터 이 자기개발 무한기법을 그의 도반들이었던 아브라(부인), 마이큰, 스윗랜드 등에게 처음으로 전수하기 시작했다.

이 아봐타 프로그램은 그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놀라운 효과로, 1988년 미합중국으로부터 공인을 받았고, 정신문제 상담 및 인간의 잠재력 개발



◇아봐타 창시자 해리 팔머

해리팔머 창시…1988년 미국서 공인
66개국 6만여명 '코스' 마쳐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효과"

교육기관인 스타즈 엣지(Star's Edge) 회사가 미 플로리다 주에 창립되어 본격적인 전파가 시작되었다.

아봐타의 성장은 가히 폭발적이어서, 15년만인 2001년 10월말 현재로, 전세계 66개 국가에서 약 6만여 명이 아봐타 코스를 마쳤고, 약 4천여 명의 마스터를 배출했으며, 아봐타 교재인 〈창조학〉 〈뜻대로 살기〉 〈다시 떠오르기〉 등은 영어, 한국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등 14개 국어로 출판되었다.

아봐타 코스의 목적은 기성 종교 등 특정 신념체계에 빠져서 경직된 수행기법의 틀을 깨뜨리고, 삶의 창조근원이 자기 자신임을 자각함으로써 자기 뜻대로 현실을 창조하고, 소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적 프로그램이라는 데 있다. 즉, '자기 뜻대로 사는 길'의 발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가 경험하여 느끼고 생각하는 아봐타의 특성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경험이 신념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Belief)이 경험(Experience)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②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복잡다단한 살고 적멸의 길, 붓다의 길로 돌아가게 한다. 행복에의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그것은 붓다의 연기론(緣起論)이나 업(業, Karma)의 논리에 따라, 업장을 녹여야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이 가능하므로, "화해의 언덕 오르기"나 마음속에 있는 갈등 장애의 덩어리인 "끈질긴 멍어리"등을 창조 다루기 절차(Creation Hnadling Process)로 다뤄, 청정무구심으로 돌아가게 한다. 문제아는 '나'이고, 나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④아봐타 코스는 전과정이 '점검표'에 따라 책을 읽거나 실행하는 경험위주의 객관적, 과학적인 프로그램이므로 일부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수행기법처럼 위험하지 않다.

아봐타 코스에 드는 비용은 종교의 보시나 헌금 형식이 아니라 거래체제(去來體制, give and take)이다. 원칙적으로 처음 배울 때 미화 2,000불을 내면, 같은 코스에 들어가 복습할 때에는 코스비용을 내지 않는다. 코스비용이 일견 비싼 듯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기만 하면 한번으로 끝나니, 깨끗하다고도 할 수 있다.

⑤아봐타는 선(禪)이나, 명상과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아봐타 코스 중에 한 곳에 오래 앉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히 관찰하는 과정이 있으며, 다른 기법도 많이 있다.

⑥'자기가 창조한 대로 경험하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본다. 불교에서는 또 외부형상의 세계를 몽환포영이라 보는데, 아봐타에서는 거품이라 본다.

불자되는 인연 만들어 주기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봉은사 '새신자전법회'

1월-발심의 달
- 원(願)을 세우자
- 봉은사 새신자전법회
- 나의 초발심 시절
- 초발심자경문 공부현장
- 매일 발심하는 불자들

3일 오후 2시. 봉은사 포교원 앞 상담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문을 연다. 다소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불교에 관심이 있어 왔는데요. 아는 것이 없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절은 어떻게 하고 주지스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기초교리·예법 등 설명

이렇게 불교를 잘 모르는 초심자들이 찾아왔을 때, 사찰 대부분은 그들을 불법으로 이끌 뚜렷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불교의 현주소다. 불법에 대한 인연을 강조하다보니 인연이 있는 자는 불법을 만날 것이고 인연이 없다면 애써 잡아도 불법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사찰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겉돌 수밖에 없었고, 1년에 한번 법당을 찾으면서 불자임을 자처하는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졌다.

이런 척박한 포교현실 속에서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하고자 모인 모임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그 모임이 바로 봉은사 신도들이 중심이 돼 만든 새신자전법회(회장 김정순)다.

김정순 회장과 자원봉사자들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초심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 준다. 불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불교의 기초교리는 물론, 봉은사 스님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까지 꼼꼼히 챙긴다. 천년고찰인 봉은사 주변 건물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준다.

새신도전법회는 매달 초하루 초심자를 위한 법회를 봉행하고, 초심자들에게 봉은사보를 꼭꼭 챙겨줘 봉은사의 행사에 동참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러자 겉돌기만 하던 불자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갔다. 그들은 어느새 봉은사를 방문한 사람들이 아니라 봉은사의 한 식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새신자전법회 회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5계, 6바라밀 같은 불교 기초 교리를 스님들에게 직접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매달 초하루 초심자 법회

"아직도 멀었습니다. 올해야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포교가 체계적인 교육으로 탈바꿈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알찬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김회장과 회원들의 새해 서원은 보다 많은 불자의 탄생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유신 기자



◇봉은사 새신자전법회는 언제든지 상담실을 개방해 초심자들(왼쪽)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발심의 계기를 만들어준다.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

종정 권태허
사서실장 손무공

원로의장 강무구
원로의원 전국당
원로의원 변정송
원로의원 최대종
원로의원 유범용
원로의원 이송좌
원로의원 김용담
원로의원 박보명

중앙종회의장 김대운
중앙종회수석부의장 김대연
중앙종회부의장 조혜원

총무원장 이대화
교육원장 김동광
연수원장 장대범
감찰원장 이관곤
포교원장 이대봉

총무부장 김만혁
교무부장 정대련
재무부장 최대황
조직부장 김일광
규정부장 김만공
교화부장 안자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四一七의 三
우편번호 一一〇-八四八
전화 : 〇二-三九一-四三七六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⑨약초유품 ❶약초유

이 약초유품은, 앞장인 제4장 신해품에서 마하카샤파(摩訶迦葉)를 비롯한 네 사람의 큰 성문들이 자신들이 이해한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자, 석존께서도 역시 비유를 들어 설법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지상의 식물과 그 위에 내리는 은혜로운 비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약초유(藥草喩)라고 한다. 특히 여기서는 약초란 사람들의 생활에 관계가 깊은 식물로 모든 식물을 대표한 것이다. 구마라지바(鳩摩羅什)의 〈묘법연화경〉에서 약초유는 다음과 같다.

3천 대천세계의 온갖 곳, 산과 강 골짜기와 평지에는 여러 가지의 풀, 나무, 약초가 무성해 있다. 거기에 큰 구름이 몰려와 일시에 비를 뿌리면 초목은 크든 작든 모두 한결같이 그 비에 젖어 저마다 자기가 가진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생장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도 이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며, 큰 음성을 내시어 널리 전 세계의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것도 이 큰 구름이 3천 대천세계의 국토를 덮고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에 부처님은 중생의 소질과 능력을 모두 아시고 각각의 중생에게 가장 알맞은 법을 설하신다. 그것을 들은 중생들은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불도(佛道)에 들어오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은 본래 본질과 작용이 하나(一相一味)이다. 그것은 동일한 해탈, 동일한 이욕(離欲), 동일한 열반이여서 결국에는 부처님의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법을 받아들이는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누구인가,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뿐이다. 마치 여러 식물들이 자기들의 상·중·하 라고 하는 성질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부처님만이 중생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의향을 살펴 아무렇게나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지는 아니했던 것이다.

이상의 비유 이야기 뜻은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으로 차례 차례 살펴보면 곧 분명해진다. 제2장의 방편품 이래로 설해온 방편과 진실이라는 테마가 여기서도 새로운 비유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3승방편 1승진실의 취지를 설할지라도 이 약초유품에서는 지금까지와 조금 시점이 다르다. 방편의 가르침과 진실의 가르침 중, 특히 방편의 가르침에 시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비에 비유되는 부처님의 설법은 평등하게 모든 중생에게 내린다. 그것은 본질과 작용이 하나, 즉 1상1미이며 본래 모든 사람을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법은 받아들이는 쪽에 있는 중생에게는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다. 큰 나무는 많은 양의 비를 흡수하나 작은 것은 작은 양만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중생 측의 차이에 의해 본래 본질과 작용이 하나라는 가르침도 여러 가지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설법에 즈음하여 중생의 현 실태를 인식했을 때, 진실한 가르침은 어쨌든 방편의 가르침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의 큰 자비가 사람과 경우에 따라 교묘하고도 현실적인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중생 측의 현실에서 보면, 법화경의 1승진실이라는 뜻과 반대로 3승진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무설정사 조실

부처님 설법은 평등한데…

중생의 소질과 능력 맞게 방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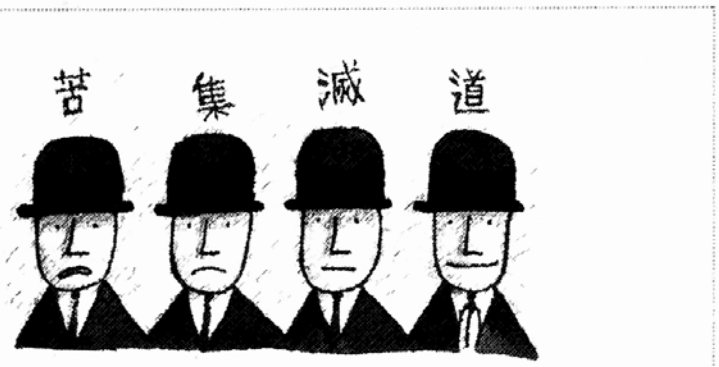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만물 주고받음 통해 자연 순응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수주 ⑪

수수관계와 사성제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언제나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각 별이 제 나름대로 공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별자리의 모습이 바뀌어진다. 현재 국자처럼 보이는 북두칠성도 10만년쯤 지나면 국자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 별들은 움직여야 하는가?' 이 의문은 '위치가 고정된 별은 존재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 이에 대한 답은 별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때문이다. 만약 한 별을 고정시켜 놓고 다른 별을 이 별 가까이 가져다 놓는다고 하자. 그러면 두 별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충돌로 모두가 폭발로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서로 회전 운동을 하든지 또는 충돌을 피하면서 서로 비켜 지나가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두 별이 서로 묶여 쌍성이 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흩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별들 사이에는 서로 인력을 미치면서 비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별들 사이에 직접 충돌이나 은하들 사이의 직접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가? 실제 관측에서 별들 사이의 충돌은 잘 보이지 않으나, 크기의 규모가 10만 광년이나 그 이상인 은하들의 충돌은 많이 관측된다. 물론 비켜 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은하의 직접 충돌도 우주에서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
> 조우와 섭동이 없다면
> 우주는 암흑세계 돼

만약 상호간에 인력의 주고받음이 없다면 성간 물질에서 별이 만들어질 수 없고, 그러면 우주는 빛이 없는 암흑의 세계가 될 것이며, 지구나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주에는 에너지의 주고받음이 있기에 넓고 먼 우주의 빛을 바라보며 긴 시간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우주의 신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주 내 만물은 서로간에 주고받음을 통해 자연의 섭리에 순응, 적응하면서 새로운 창조적 과정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상의성을 지니는데 이것이 곧 연기이다. 이때 연은 상의적 초기 반응의 위상이고, 기는 외부 반응에 대응하는 후기 위상으로 순응, 적응을 통해 새로운 초월체를 달성한다. 그래서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일체가 하나 되어, 구세 십세가 서로 일체화되어 영원이 한 순간이고 한 순간이 영원이 되는 상의적 통일성이 달성된다. 쌍윳다 니까야에서 세존은 "여실한 것, 허망하지 않은 것, 다른 것이 아닌 것,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연기다"라고 했다. 이처럼 연기란 구체적인 상의적 수수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기 사상에서 우리는 광의의 사성제를 볼 수 있다. 즉 만유의 상의적 수수관계라는 일반적인 연기에서는 첫째 조우, 섭동에 의한 변화의 발생은 곧 주체와 객체 사이의 사건 발생으로 변화과정을 이어가는 고(苦)에 해당한다. 발생한 사건은 연속적으로 진행되며 변화의 효과는 누적되어 가는데 이것은 섭동의 누적 효과로써 집(集)에 해당한다. 섭동의 누적 효과로 각 개체는 초기에 지녔던 고유특성이 상실되면서 개체간의 차별과 모순의 대립이 사라지는 멸(滅)에 이른다. 이러한 상태를 거치면서 만유는 평등성과 보편성을 지닌 자연의 조화로운 섭리를 터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도(道)이다. 이처럼 사성제란 자연의 상의적 수수관계라는 연기에 따른 진화의 이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성제를 인간 세계에 국한시킬 때는 고가 고통, 생, 사, 희, 비, 애, 락 등의 정신적, 육체적 변화 상태를 나타내고, 집은 고의 원인으로 무명에 해당하며, 멸은 무명을 없애 버림이고, 도는 무명을 멸하는 방도를 터득하여 적정열반에 이름을 뜻한다. 그러나 불법은 중도사상을 기본으로 함으로 인간 위주의 고통이나 무명이라는 제한적인 한 변에 치우쳐 사성제를 논함은 온당치 못하며, 보다 일반적이고 우주적인 견지에서 사성제의 본질을 광의적으로 논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은 고의 근본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성제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무형의 공에서 유형의 실체가 탄생된다. 이것은 타자와의 상의적 수수관계, 즉 인연을 통해 변화하며 진화하다가 언젠가는 무형의 공으로 돌아간다. 일단 유형의 실체가 생기면 상의적 관계에서 변화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곧 만유의 존재에 대한 넓은 의미의 고(변화)이다. 그래서 사성제 중에서 고는 불안정한 상태를, 집은 불안정의 누적,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와 집은 불안정한 실재의 세계를 나타내고, 그리고 멸은 불안정의 소멸 단계를, 도는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멸과 도는 불안정한 실재 세계가 안정된 세계로 이행하는 이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道를 지키다 죽을망정…

사회윤리와 질서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 2일 밝힌 서울시내 10개 중·고교생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부패·반부패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1.3%가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는 정치권-기업-공무원-법조계 순으로 지목했다. 우리 청소년의 윤리의식과 사회 인식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부처님 말씀에서 그 치유책을 찾아보자.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선(善)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 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겉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아미타경>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삿된 방법은 생각하지 말라. <출요경>

▨사람의 마음이 곧은 것은, 금과 같이 귀하다. <제법집요경>

▨계율을 잘 지키면 명예를 얻고 남에게 베풀면 큰 재물을 얻으며 거짓없이 진실하면 덕망이 높아지고 은혜로우면 착한 벗을 얻게 되느니라. <잡아함경>

▨차라리 도(道)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려 사는 일이 없거라. <육도집경>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들여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좌우를 보고 몸을 펴고 구부리기와 옷입기 등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앉고 눕고 오고 감에 질서가 있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장아함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일주문(One Pillar Gate), 사천왕문(Four Guardians Gate), 불이문(The Gate of Non-Duality)

A visit to a typical temple usually begins by passing the first gate which is called 'One Pillar Gate'. Then he passes to the second, 'Four Guardians Gate'. Here the four awesome protectors of the temple greet him. Nearby is the third gate called, the Gate of Non-Duality.(격식을 갖춘 사찰은 첫 번째 문인 일주문을 지나는 것으로 경내로 들어서게 된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문인 사천왕문을 지나는데, 이곳에는 위엄을 갖춘 불법을 외호하는 4명의 신장들이 있다. 그 가까운 곳에는 세 번째 문인 불이문이 있다.)

대부분의 사찰 초입에는 일주문이 있다. 좌우 하나의 기둥만으로 지붕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문은 번뇌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다음으로 사천왕문이 있다. 불법을 외호하는 신장인 사천왕은 발로는 마귀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 돼(A fierce countenance and trample the opponents of Buddhism under their feet) 있다. 사천왕문 가까이에는 불이문이 있다. 이 문은 두 세계가 서로 다르지 않으며 둘도 아님(not different from one another, non dual)을 상징하고 있는데, 속세를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감(passing from the secular world into the awakening world)을 뜻한다.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㊹

영시랑(榮侍郎)에 대한 답서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미리 예상하거나 추측하지 말라

"편지에 보니 조심스럽게 이 한 개 큰 인연(因緣)을 다 밝히고 싶다고 하였더군요. 이미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보다도 조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급하게 서둘면 오히려 늦어집니다. 또 늦추어서도 안되니 늦추면 게으름에 떨어집니다. 마치 거문고의 줄을 고르는 것처럼 해야 하니, 팽팽하고 느슨함이 적당해야만 비로소 곡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인연에 응하는 곳에서 때때로 살펴서 파악하되, 내가 남과 함께 옳고 그름과 바르고 굽음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운 힘을 입은 것이며 결국 어느 곳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고 살피고 또 살피다 보면, 평소에 생소하던 길이 저절로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생소하던 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하던 것이 저절로 생소하게 됩니다.

무엇이 익숙한 것일까요? 5온(蘊)과 6근(根)과 12처(處)와 18계(界)와 25유(有) 위에 무명의 업식(業識)으로 사량하고 헤아리는 심식(心識)이 밤낮으로 찬란하게 빛나서 마치 아지랑이가 잠시의 틈도 없이 피어오르듯이 하는 것이 바로 익숙한 것입니다."

세간법(世間法)에 우리는 매우 익숙해 있다. 세간법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익혀 왔다. 그러므로 세간법에 관해서는 이제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습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이 이 익숙한 세간법에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간의 삶이라고 한다.

세간법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눠져 차별되어 있는 것이고,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며, 나와 남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선택하여 취하고 버림이 있는 것이며, 욕망과 좌절이 교차되는 것이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나누고 옳음과 그름을 나누며 좋음과 나쁨을 나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고, 성스럽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며 힘들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한 순간의 틈도 없이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요 세간법이다.

> 세간법과 불법
> 나눌것이 없지만
> 사람이 어리석어
> 불법은 보지 못하고
> 세간법만 보고있다

불법(佛法)은 이러한 세간법과 본래 동일한 하나로서 딴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세간법과는 그 특징이 매우 다르다. 불법은 나눠져 차별되지 않고,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지 않으며, 나와 남이 나눠지지 않고, 선택하거나 취하고 버림이 없으며, 달리 욕망할 것도 없고, 욕망이 없으니 좌절도 없으며, 더럽고 깨끗함을 나누거나 옳음과 그름을 나누거나 좋음과 나쁨을 나누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갈등도 없고, 성스럽고 위대한 것이 따로 없으므로 원하거나 힘들게 추구할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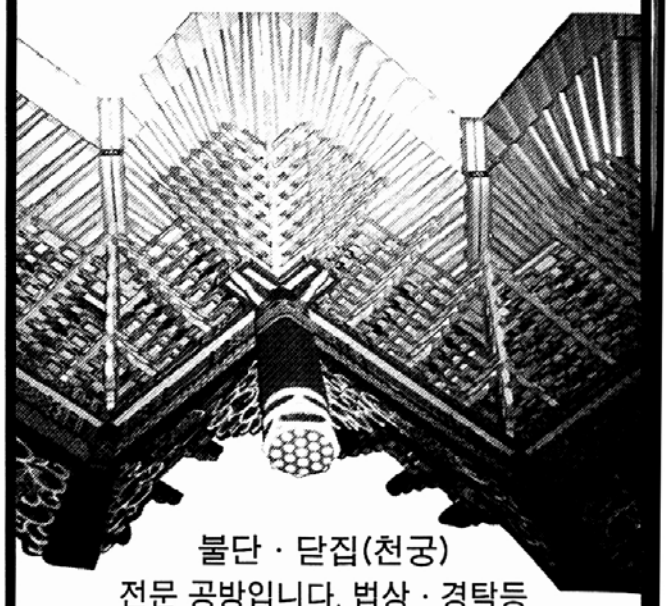
세간법과 불법이 본래 하나로서 세간법이니 불법이니 하고 나눌 것이 없지만, 사람은 어리석어 불법은 보지 못하고 세간법만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란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음과 지혜 역시 그 자체 법으로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어리석음이 나오는 바탕과 지혜가 나오는 바탕은 동일한 하나의 법이다. 어리석음이 나오는 곳에서 지혜도 나오고 나아가 삼라만상의 온갖 법이 다 나온다. 그 까닭에 일체는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아상(我相)이 중심이 되어 익힌 습(習)에 따라 세간법을 살아가므로, 세간법에는 익숙하지만 불법에는 낯설기가 그지 없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미리 세간법에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불법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불법의 공부는 아무런 예상이나 추측도 없이 막연히,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깊게깊게 다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막연한 기다림이 충분해져서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전혀 뜻밖에 문득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생소한 것이기도 하다. 모두가 습 때문이지만, 불법이 익숙하게 될수록 오히려 세간법은 생소하게 되어 간다. http://www.mindfree.net/

알림 김태완 선생이 『서장』, 『원오심요』, 『전심법요』, 『금강경』 등을 가지고 겨울 특별 법회를 1, 2월 동안 부산에서 개최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는 011-9550-1459(김태완), 011-9520-0064(이정화).

누리공방



불단 ·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9130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목어 체면과 양심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고 해도 양심 있는 자는 자기를 이길 수 있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세상 사람이 다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 양심이 없는 자가 너무 많다.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 잊고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모르는 파렴치한들이 지존의 자리에서 세상을 제멋대로 만들려고 하고, 지체 높은 어른들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물리친 채 권력에만 더욱 눈이 쏠리고 있고, 양심 있는 자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면피 행세를 한단 말인가. 참 요지경 세상이다.

국민의 정부라고는 하지만 진정 누구를 위한 정치이며, 그토록 외치던 민주화는 어디로 귀양 보냈으며, 손도 안대고 코 풀며 으스대는, 소위 지도층 인사의 골불견은 가히 가소롭다. 그러면서 도리어 남을 통치하려 하고, 아부꾼들이 던져주는 입 값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 챙기고, 속빈 강정처럼 양심도 없이 겉치레만 미끈한 꼴이 참으로 고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목탁은 속이 제대로 비어야 소리가 잘 난다. 인간은 마음을 제대로 비우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 채우면 제 아무리 잘 두드려도 청아한 목탁 같은 인간 양심의 소리는 나지 않는다. 제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비울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누구의 앞에서도 떳떳하게 제 행세를 할 수 있다.

〈금강경〉에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마음의 본성과 같이 맑고 밝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삼혜경(三慧經)〉에 '사람이지 마음도 이기지 못하면서 도리어 남의 마음을 이기려고 해서야 될 법이나 한 소리인가?'라고 하였다. 여기서 '남의 마음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남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서 남을 지배하고 남의 앞에서 군림하려는 것은 진리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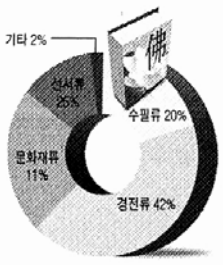
기도하고, 참선하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보자. 나 자신이 바로 어리석게 남을 속이기 위해 끌려 다니는 간탐귀의 모습은 아닌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양심을 되찾는 것이 바로 성현의 길이다.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불자의 생각

불서 읽기



붓다뉴스(buddhanews.com)가 구랍 28일부터 3일까지 1주일간 벌인 네티즌 설문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34명 가운데 57명(42%)이 경전 관련 불서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선(禪)서적에 대해서는 34명(25%) 수필류는 28명(20%)이 문화재 관련 서적에는 15명(11%)이 관심 있다고 답했다.

"경전류 주로 읽는다" 42%

독서량은 한 달에 1권 이하의 불서를 읽는다고 답한 불자가 71명(52%)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불서를 선물로 주고받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8명(73%)이 준적 있다, 112명(83%)이 받은 적 있다고 답해 불서가 선물로 유용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임연태 기자

이 땅에 大運이 드시는가

불자 세상보기

"월드컵 · 양대선거 앞두고 질서의식 · 건전 정치풍토 국민적 저력발휘 믿는다"

2002년. 아무래도 이 땅에 대운이 드는 것 같다.

나라 안을 온통 열기로 달구어 갈 월드컵 경기와 그에 비견되는 부산 아시안 게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거센 정치 계절풍 등, 일찍이 이토록 다양한 행사들이 한꺼번에 몰렸던 해가 있었던가.

다가올 행사들의 엄청난 질량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월드컵 경기와 아시안 게임으로 한국의 국민적 역량과 민도(民度)가 전 세계인 앞에서 시험 받게 될 것이며, 초여름과 가을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선으로 민주시민의식과 그 성숙도가 채점 받게 될 것인데 과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다.

6월 한 달간 치러질 월드컵 경기의 공동개최국은 일본이다. 당연히 비교될 그 일본에 비해 과연 한국이 세계인들에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만한 자신이 있는가도 걱정거리라 한다.

근거 없는 걱정들이 아니다. 한 예를 보자.

1 년 전 손해보험협회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 한 · 일간 질서의식을 비교 조사해본 결과는 어처구니없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들의 교차로 통행 위반율이 일본 1.9%, 한국은 그 13배인 24.5%로 나왔으며 끼어들기 금지 위반율과 안전띠 착용규정위반도 3배에 이른다.

이 결과 하나만으로도 한 · 일 국민간 질서의식의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질서의식을 높이는 데는 사회적 믿음을 굳건히 해 주는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 질서의식은 사회적 믿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의 정치현실은 깊은 불신과 분열만을 키워가고 있어 질서의식을 키워갈 여력을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를 대운이 드는 해로 믿고 싶은 것은, 큰 일을 치를 때마다 드러내 보였던 한국인들의 그 '신들림' 같은 국민적 저력과 그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올해에는 또한 그 저력으로 정치권을 새롭게 할 드문 기회를 맞고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거짓과 불신으로 점철된 정치적 행태에 변함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올해를 변화의 기회로 보는데 쉽게 동의 할 것이다. 우선 20세기 구시대 상징인 '3金의 시대'가 한 시대를 마감하려 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도 올해의 선거는 발전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정치풍토란 국민들이 드리우는 그림자 같은 것이어서 국민들 역시 그동안의 정치행태에 적지 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국민의 관심과 애정 없이 정치가 제대로 자랄 수는 없다. 선거에 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정치인을 가릴 줄 아는 지혜의 눈이다.



김징자
칼럼니스트
본지 논설위원

신선한 변화를 불러들여 나라의 대운을 맞아들이는 데는 불교의 역할 또한 크다 할 것이다.

'템플 스테이' 등으로 한국의 높은 정신적 경지와 아름다운 전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 줄 기회를 불교가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정치인을 뽑는데 부처님 지혜의 눈이 큰 힘을 보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 임오년 불교계에 바란다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주5일제 근무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등 어느 해 보다 포교환경의 변화가 큰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력의 말띠해, 임오년을 맞아 불교계의 발전을 위한 각계불자들의 바람을 들어본다.

"불교유물유적 철저 연구"

○…옛 절터에 대한 수많은 지표 및 발굴조사에 따라 과거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단면을 문헌이 아닌 유적과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옛 절터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약간의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문화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신행활동을 복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옛 절터는 종교건축물의 잔영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적인 이해만으로는 사지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한다. 유적과 유물에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 소위 신앙 현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럴 때 과거 불교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정석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불법 외호하는 불자되자"

○…부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등불로 삼아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가르쳤다. 임오년 한 해 동안 승가와 재가 모두 이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으면 한다. 이를 위해 재가는 수행과 신행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본래 청정하고 자유자재한 자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승가는 자성을 찾는 것 외에도 재가의 수행을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해인사에서 열린 공무원불자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서 법전스님은 "불법을 외호하는 불자들이 되라"고 당부하셨다. 수행과 신행에 따라 볼제자로서의 삶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새해에는 사부대중 모두가 자성을 등불로 삼아 더불어 수행하고 신행하며, 불교계를 가꾸어 갔으면 한다.

나승렬 (농림부 농지과장)

"급변하는 시대 맞는 포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은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포교정책 개발이다. 앞으로 각 종교계의 신행생활은 급변할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가족 단위의 수행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및 나눔의 행사(봉사 활동)를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개별 사찰 및 산사에 보급시켜야만 한다. 20세기가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보고 듣는'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touch by touch' 시대이다. 단순히 보고 듣는 시대가 아니라,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불교 수행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야만 한다.

조승미 (서울 도봉구 방학1동)

"불교 소장학자 지원책을"

○…한국 불교학은 해방 이후 지속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한층 성장했다. 특히 올해 5월 불교학자들의 한마당인 불교학 결집대회가 개최된다. 약 200여명의 학자들이 불교와 관련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마당 축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집대회를 통해 배출되는 불교소장학자에 대한 종단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사실 그동안 불교계는 인재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동국대학 뿐만 아니라 여타의 대학에서 불교를 직간접적으로 공부하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다. 해마다 불교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소장학자들은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이 서야할 현실은 너무나도 척박하다. 이들이 지역단위의 사찰과 연대해서 포교 및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차상엽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말하기 보다 듣기 생활화"

○…사람들이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능숙하게 말하고 표현하며,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인식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말하기'는 쉽지만, '듣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생각과 틀리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화합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 이 땅의 모든 사부대중이 천 개의 귀를 가진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화합을 일구어내기를 기원해 본다.

황선정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

독자기고

탁발 · 부적 파는 스님 '경계'

요즘에는 탁발 다니는 스님이 너무나 많다. 스님의 탁발이 금지됐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탁발을 다니는 스님들을 보면 목탁도 제대로 두드릴 줄 모르고 염불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게다가 모습이 단정치 못해 일반인들이나 타 종교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정도여서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하다. 문제는 또 있다. 탁발을 다니며 부적을 나누어 주는 일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진정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께서 탁발을 다니신다면 과연 부적을 나누어 줄까 의문이다.

얼마 전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스님이라고 자칭하며 "나 00사에서 왔는데 기도하라"며 얼마를 주면 기도문을 불여 준다고 고액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거칠고 무례했다. 의자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는 모습은 정말 스님의 행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말 또한 거칠었다. 나는 그런 행동에 화가 나서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며 항의했으나 그럴수록 스님의 말투는 더 심해졌다. 결국 1천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이까짓 것…"이라며 돈을 집어 던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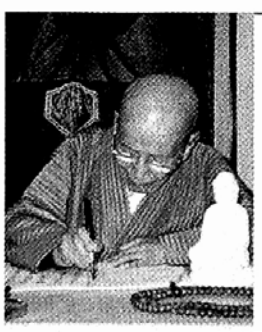
그 모습을 보고 왜 저런 모습으로 다니면서 청정하신 스님들을 욕되게 하는가 하는 마음에 저절로 화가 났다.

청정하신 스님들께서 수하시는 가사를 아무나 입고 욕되는 언행을 하고 다녀서야 말이 되는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자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

김갑숙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 864-8834 부산(051) 637-2333
Fax 서울(02) 839-2185 부산(051) 637-6888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 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 造成한 圓滿慈悲하시고 遍滿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尊像
二五四五年 二月 二十一日
小林 正觀 謹書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추천서

印, '47년전 불상봉안' 기념행사 성황



◇구랍 25일 인도 담마부미에서 거행된 암베드까르박사의 첫 불상 봉안 기념법회.

높이 50㎝의 좌상 … 유리상자안치

불자 3만명 운집 8시간 대대적 법회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뿌네 근교의 담마부미(Dhamma Bhoomi: 법의 땅)에서는 구랍 25일 암베드까르 박사의 47년 전 첫 불상 봉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연인원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과거의 불상 봉안을 기념하는 행사라는 것이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그 만큼 인도의 불자들에게 의미 깊은 까닭은 인도 현대불교에서 처음으로 모셔진 부처님이 담마부미 법당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부처님은 높이 약 50센티미터에 불과한 자그마한 석가모니 부처님 좌상으로, 인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유리 상자 안에 소중하게 모셔져있다.

담마부미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현대 인도불교의 아버지인 암베드까르 박사가 1954년 세계 불교도대회에 참석차 미얀마(당시 버어마)의 랑군에 갔다가 인도로 모셔온 불상이다. 이 불상은 법당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박사의 사저에 모셨다가 같은 해 12월 25일 새로 지은 법당에 정식으로 모시고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근대에 들어서 인도인의 손으로 법당이 지어지고 불상이 모셔진 것은 이때가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비록 암베드까르 박사가 정식으로 불법에 귀의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은 1956년이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불교교리를 공부하고 불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불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다. 1954년 석가탄신일을 맞아 세계 불교도대회에 참석한 것도 그러한 활동 중 하나인데, 그는 불교도 대회에서 신생 인도 공화국의 친(親)불교적 정책에 대한 연설을 했으며, 당시 인도에서는 구하기 힘들었던 불상도 미얀마 현지에서 구했다고 전해진다.

담마부미 법당 옆에 임시로 가설된 무대에서 아침 10시경부터 기념 법회를 시작으로, 행사는 저녁 6시경까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삼귀의와 예불을 모신 후에는 인도에서 몇 명 안되는 여성법사 중 한 명인 구나메가(Ghunamegha) 법사를 비롯하여 여러 법사들의 법문이 이어졌고, 막간을 이용하여 인근 삠쁘리 마을의 초등학생들의 시 낭송과 법우들의 찬불가가 축제 분위기를 돋구었다. 오후에는 담마부미 법당 건립 위원회의 주최로 다시 기념식이 열렸으며, 그 사이에도 참배객들의 행렬은 저녁 7시까지 낡은 법당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곳에 법당을 마련하고 불상 봉안식을 거행했던 1954년 당시 불교에 관심있던 2만여명의 암베드까르 지지자가 모여 점안식을 지켜보았다고 전해진다. 그 중에는 그 때를 기하여 부처님전에 귀의하여 불교도가 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데, 지금 담마부미 법당을 관리하고 있는 무두까르 가이크와드(Mudhukar Gaikwad)씨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점안식 당시 11세의 소년으로 부모님과 함께 불법에 귀의했으며,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면서 40년이 넘게 무주상 보시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담마부미 법당이 오래 전에 지어진 것이라 시설이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워낙 협소해, 역사적으로도 의미 깊은 담마부미를 신앙의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기존 법당 뒤쪽으로 큰 법당을 신축하는 불사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지난 91년 법당 건립 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95년에는 부지 확보에 성공하였고, 2000년에는 설계가 완료되어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게 되었다. 지난 해 7월에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뜨기는 했으나, 부지 구입에 기금을 쓴 이후 총 1억 8천만 루삐(한화로 약 50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도 뿌나= 이지은 통신원

인도불교 돕기 사무국= (02)745-7799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8. 한 생각 속의 삼천법계(一念三千)

신라 의상 스님은 〈법성게〉의 한 구절에서 "저 영원한 겁이 바로 한 생각이며, 한 생각이 곧 무량한 세월이네(無量遠劫卽一念 一念卽時無量劫)"라고 불교가 보는 인간과 시간의 장대한 일치를 설했다. 이처럼 불교의 여러 경전과 선어록에서는 인간의 한 생각 속에 삶과 죽음도 세계도 번뇌도 해탈도 시작된다고 한다.

중국 천태종의 제3조 천태 지의(538-597)는 〈법화경〉 방편품의 십여시(十如是)를 바탕으로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이라는 화두를 제시한다. 영원한 붓다의 존재를 웅변적으로 설하고 있는 경전 〈법화경〉 방편품에 교리적 기원을 두고 있는 일념삼천설은 바로 '한 생각 속에 삼천의 법계가 병존한다'고 시간과 존재를 파악하는 인간의 한 생각을 우주적인 시각에서 본다. 즉 사막의 모래알처럼 순간순간 흩어져가는 우리의 일념 속에 삼천 가지 법계, 즉 붓다의 세계에서 아귀 축생의 세계가 내재한다는 심오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법화경〉 방편품의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기로 한다.

번뇌·깨달음 반복

철저한 원융 추구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바는 가장 희유하여 깨닫기 어려운 법이다.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능히 제법실상의 궁극에 도달할 수 있나니 이르는 바 제법의 여시상(如是相)·여시성(如是性)·여시체(如是體)·여시력(如是力)·여시작(如是作)·여시인(如是因)·여시연(如是緣)·여시과(如是果)·여시보(如是報)·여시본말구경등(如是本末究竟等)이다."

이상은 제법의 실상을 십여시(十如是)로 설명하는 〈법화경〉의 명구이며 모두 '여시'라는 형용사를 써서 제법의 실상을 개괄하고 일체지, 일체종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즉 십여시는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들만이 궁극에 도달할 수 있는(唯佛與佛乃能究竟)' 제법실상의 내용인 것이다.

지의는 십여시설을 바탕으로 일념삼천설을 제창한다. 그는 십여시에 화엄경에서 설해지는 10계(地獄·畜生·餓鬼·修羅·人間·天上·聲聞·緣覺·菩薩·佛)를 바탕으로 중생계를 10계로 규정하고 각각의 법계가 십여시를 갖추고 있다고 설했다. 따라서 십여시×십법계는 100여시가 되며 여기에 1계마다 9계를 내장(內藏)하고 있으므로 10계가 호구(互具)하면 1000여시가 된다. 심지어 불계도 다른 9계를 내장하며 지옥도 다른 9계를 내장한다. 이를 '십계호구(十界互具)'라고 한다. 이 1000여시에 〈대지도론〉 권7에서 설해지는 오음세간(五陰世間)·중생세간(衆生世間)·국토세간(國土世間)을 상승(上乘)시켜 3000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계(佛界)에도 아귀, 지옥, 축생의 자원이 존재한다는 일념삼천설의 사상은 단순히 프리미티브한 선악 혼재론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철저하게 원융(圓融)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불계에 마계의 차원이 병존한다는 시각은 심오한 원융이다. 바로 동체연기이며 동체대비의 표현이다. 우리의 문제는 불계의 실상을 발현할 것인가, 아니면 마계의 몽환을 발현할 것인가의 문제이지만 일념삼천설은 확실히 실존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는 불교사상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종일토록 한 생각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일념삼천의 번뇌와 깨달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한 생각에 삼천의 법계가 상호혼융하고 있다는 일념삼천설의 시각은 보기에 따라서는 거대한 관념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현실적으로 일념에 수천가지 코드를 무의적으로 점검한다. 따라서 일념삼천설은 안이하고 사변적인 관념론이나 형이상학이 아니다. 일념삼천설은 당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일념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며 인간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도 모두 그 일념의 실상 속에 있다는 가르침인 것이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얼룩지기 이전의 불교란 본래 이렇게 산뜻한 가르침이었다.

우리는 말로만 "불교를 위해서"라고 앞세우고 "불교가 발전해야 한다"라는 구호만을 외치기 전에 먼저 불교 그 자체를 떠받치는 종교적 가치와 불교가 지향하는 깨달음과 해탈의 내면적인 원리와 그것들이 투영하고 있는 삶의 해석들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우리는 먼저 초기불교와 선과 화엄, 천태와 유식(唯識)과 같은 대승불교의 여러 불교적 사유와 사상의 역사들이 발견하고 전개해 온 수행과 직관의 회복을 준엄한 태도로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 경학회 회주






해외 불서

• **중국 치하 티베트 50년**: 티베트 망명정부가 최근 발간한 〈중국 공산정권 치하의 티베트 50년(Tibet under Communist China-50 Years)〉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중국의 통치를 받은 티베트는 한마디로 물적, 정신적 자산 모두를 잃어버리는 '몰락의 과정'을 밟았다.

'국가의 몰락', '개혁에서 경제통합까지', '고원의 대포들', '새로운 주류', '철도 건설' 등 11개의 주제를 통해 티베트의 어제와 오늘을 다루고 있다. 티베트 망명정부 수상 삼동 린포체(Samdhong Rinpoche)는 "중국의 동화 및 상업화 정책으로 인해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등 티베트의 모든 분야에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 **몸과 마음의 조절법**: 〈몸과 마음의 조절법〉(대법륜각 刊)은 '〈천태소지관(天台小止觀)〉을 배운다'는 부제를 단 책으로 좌선의 비결을 간결,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인간의 육체와 호흡, 마음의 미세한 조절방법을 밝힌 책이다. 중국불교 연구의 권위자이자 합기도 5단인 저자 가마타(鎌田茂雄)씨의 체험적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272쪽, 2100円

• **유식 독해법**: 〈유식 독해법〉(대법륜각 刊)은 복잡하고 난해한 불교의 심리학인 유식(唯識)을 유식학의 제 1인자인 저자 오오타(太田久紀)교수가 친근한 화제를 섞어 차근차근 성명한 입문서다. 〈범부가 범부에게 호소하는 유식〉의 개정판이다. 600쪽, 2205円

우즈베키스탄·아프간

불교유적 보존작업 한창



◇작은 불상과 탑 등이 발굴된 우즈베키스탄 벡트리아의 흙무덤.

군사적 대립이 빈번했던 중앙아시아 국경지대에서 고대 불교유적 및 유물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소도시 벡트리아(Bactria)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다국적 조사단의 발굴 작업이 한창이고,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계곡에서는 지난해 3월 탈레반군에 의해 파괴된 대불을 복원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슬람교의 성지로만 알려진 벡트리아에서 조사단이 발견한 불교유적은 이 지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원기둥 모양의 흙무덤(사진)들로, 작은 불상을 봉안한 밀실과 탑 등이 발굴됐다.

이에 근거해 조사단은 흙무덤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이 곳에서 활동했던 스님들이 진흙으로 지은 수행공간으로 보고, 벡트리아를 당시 불교문화 교류의 창구 역할을 했던 쿠산 왕조의 주요 도시 중의 하나로 추정했다.

조사단은 실크로드를 왕래했던 고대 상인들과 학자들의 글에서 "티베트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됐던 주요 통로였다", "원기둥 모양의 수많은 수행처들이 메마른 땅 위에 세워졌다", "스님과 불자들이 출가 성도 열반절 등을 맞아 흙무덤을 순례했다" 등의 기록도 찾아냈다.

바미얀 석불 복원추진

이에 대해 유네스코 우즈베키스탄 주재 사무국의 베리 레인(Barry Lane) 국장은 "유네스코는 다국적 조사단의 발견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구랍 29일 탈레반군에 의해 파괴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바미얀 대불 2개를 복원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www.bulgong.com

세계 최초 ·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현재 국내에는 약2,000만의 불자가 있으나,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제대로 된 종교생활을 하는 신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2,000만 불자 모두를 진정한 의미의 불교신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진정 불자와 불교를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탄생하였습니다.

불공 닷컴에는 불자라면 누구나 불교를 사랑하고, 법회에 참석하기위해 노력하고, 불사에 적극 참여하며, 불교를 가족 구성원 모두의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500 ~ 1,000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사찰 법회에 참석자가 기껏 수십명에 불과한, 그런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불공 닷컴만이 가능한 서비스

1. 사찰 및 불교 신도님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 제작 보급.
2. 사찰 종무관리프로그램 무료 보급.
3. 각종 불사 홍보, 기획, 접수대행
4. 불교용품 국내 최저가 보급(공장도 가격)
5. 각종 행사 및 법회 준비 , 홍보
6. 사찰묘지, 납골당 설치에 관한 인,허가 및 조성(공사비 불공닷컴에서 부담가능)
7. 고민상담/사주상담, 스님과 일대일 상담
   - 고민(사주)상담 해 주실 스님을 모십니다. -> 컴퓨터 모르시는 분도 가능합니다.
8. 무료 이메일 10M 제공
9. ALL-in-One 포털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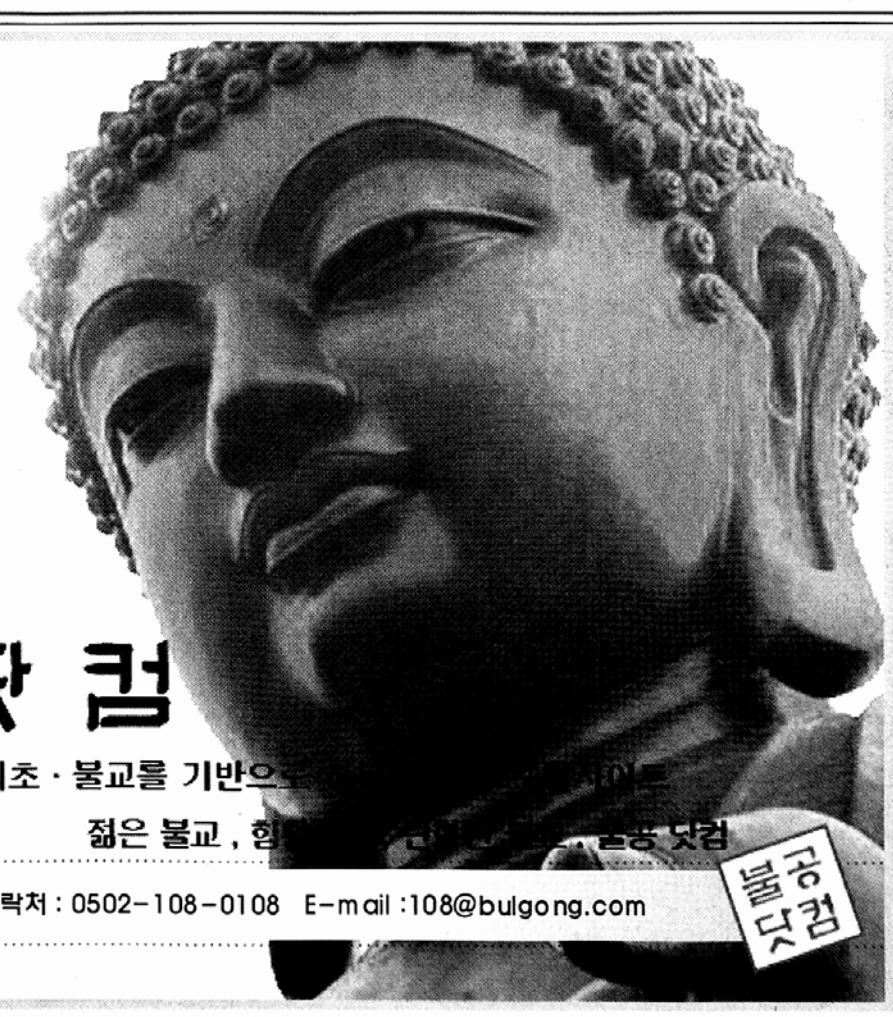
www.Bulgong.com

불 공 닷 컴

세계 최초 · 불교를 기반으로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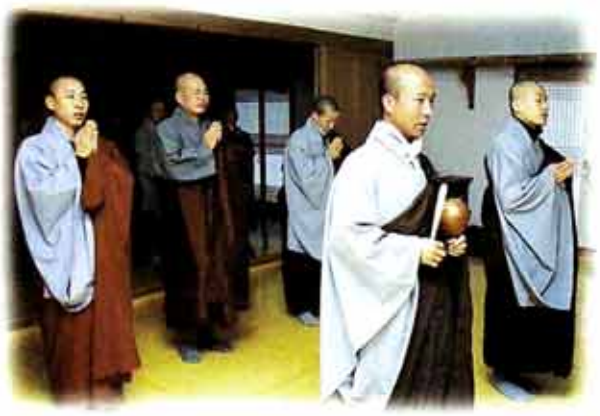
젊은 불교 , 힘 [illegible] 불공 닷컴

문의 및 연락처 : 0502-108-0108 E-mail :108@bulgo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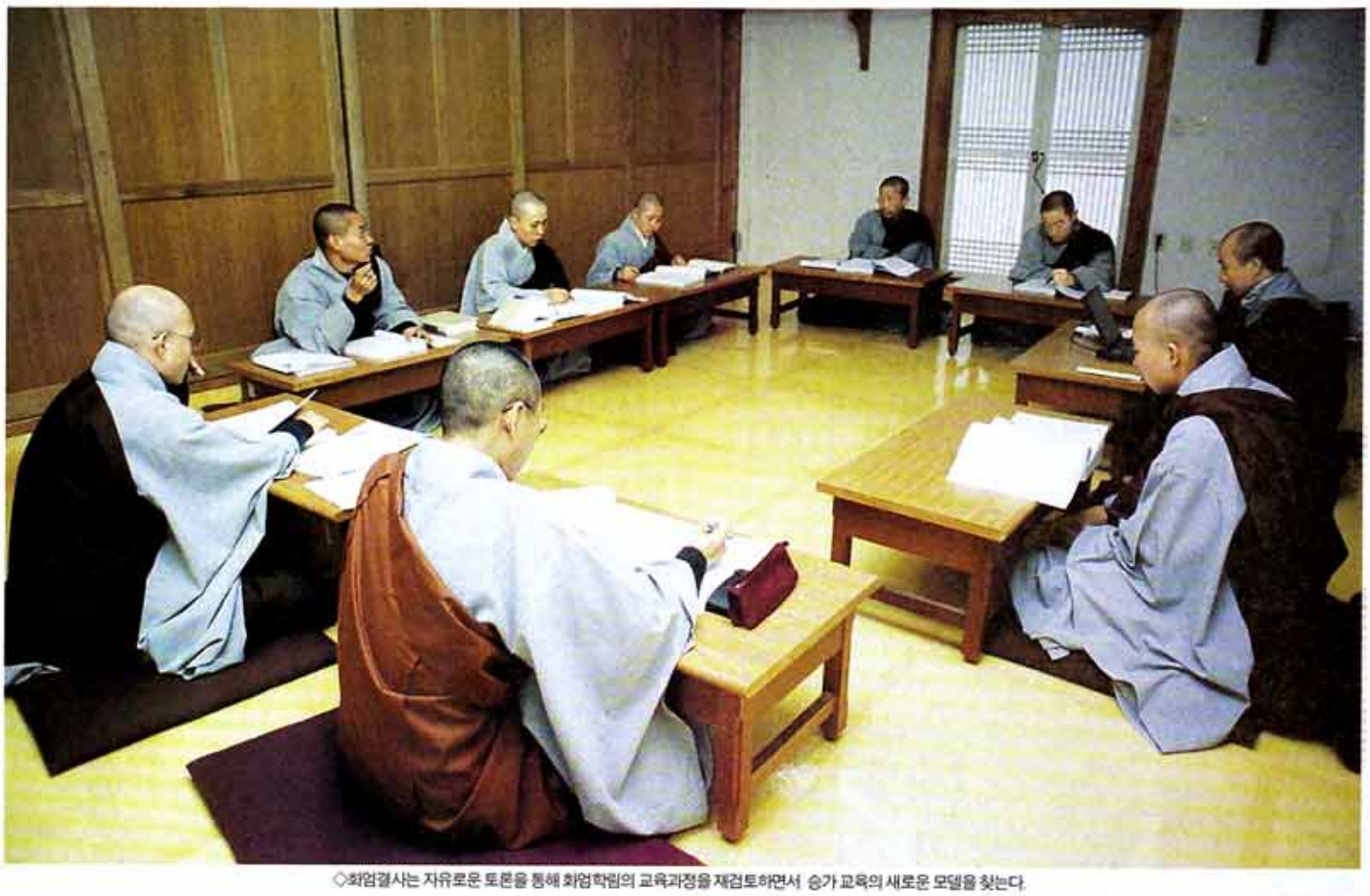
밝은길 아바타 센터
서울 종로구 봉정동 46번지
☎ 02)396-2736 · HP 019)228-2354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l@kornet.net
◇ 마스터/위자드 김희균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논강을 시작하기 전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배우는 자로서의 마음을 새로이 한다.

넓고 좋은 길 마다하고, 논둑 밟으며 실상사로 든다.
행한 들판 드문드문 짙푸른 보리밭이 발길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겨울 보리밭. 천연덕스럽게 푸르다.
저 '대책없는 낙관'이라니, '만국의 하늘 아래로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도 저런 푸르름이 있는 한 '희망'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
남원 실상사에는 '학교'가 많다. 하나같이 특별한 학교다.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인 '작은학교', 도회의 삶에 지쳤거나 하안 종이에 새로운 삶을 그리려는 이들이 논밭에서 새 삶을 일구는 '귀농학교', 스님들의 공부 모임인 '화엄결사', 땀과 웃음을 거름 삼는 배움의 마당들이다.
배움! 희망의 싹을 틔우는 데 배움 만한 게 또 있을까. 또한 그것은 그 자체로 더없이 즐거운 일이 아니던가.
화엄결사의 하루 수강생이 되기로 했다.
오전 8시, 공부 모임 답지 않게 장삼에 가사까지 갖춘 스님들이 강당에 우뚝하다.
성대한 의식을 앞둔 모습보다 더 눈부시다.



◇화엄결사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화엄학림의 교육과정을 재검토하면서 승가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찾는다.

학문-수행 어우러진 '수행자상' 세운다



◇화엄학림과 연계한 연구소 기능의 화림원에 머물며 결사에 참여하고 있는 스님들. 날마다 반복되는 걸음이지만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어린이마냥 즐거워 보인다.

실상사 화엄학림 결사 현장

5분 남짓. 논강(論講)에 앞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위없이 높고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거늘/ 이제야 듣고 보고 받아지니나니/ 그 가르침의 참뜻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는 뜻의 개경게(開經偈). 경전을 펼치면서 그 높은 가르침을 찬탄하는 게송(가 나직히 울려퍼진다.

상강례가 끝나자 강당은 두 거의 공부방으로 나누어진다. 한 곳에서는 '화엄학림' 6기 2학년 과정이 학장 연관 스님의 강의로 진행되고, 또 한 곳에서는 논강 중심의 '화엄결사'가 열기를 더해간다.

화엄결사 대중은 7명. 다섯 분의 비구, 재연(학감) · 해강(논주) · 성륜 · 지우 · 여공 스님과, 두 분의 비구니 정일 · 효림 스님이 정규 구성원이다. 화엄학림 졸업생, 선방 수좌, 강원 강사를 지낸 스님들이다. 전원이 강사면서 학인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이에 더하여 청강생 3명. 주지 도법 스님, 총무 중묵 스님, 특별 청강생 서림 스님은 노골적으로 본강생을 압박하며 결사의 밀도를 높인다. 특히 도법 스님은 본강생들로부터 '본강생보다 더 열성적인 아주 골치아픈 청강생'이라는, 농담을 빙자한 비난(?)을 듣고 있다.

논강 진행 방식은, 강의와 수강이라는 일방적인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논강 즉 자유로운 토론 방식이다. 번역문 검토 과정에서는 조사 하나를 놓고도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 미묘한 사안인 경우 때론 격론으로 이어져 10시까지로 정해진 시간을 넘기기도 하고 오후에 연장전(?)을 벌이기도 한다고 한다. 그래도 미진할 경우 대학자를 참학한다는 것이 토론의 원칙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논강 방식을 선택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정법을 쇠하게 하지 않는 길을 이렇게 일러 주셨어요. '대중이 모여서 법(Dharma)과 정의에 대해서 자주 토론하라.'

> *결사대중 모두 학인이자 강사*
> *토론식 논강 '열기'…때론 격론*
> *"대중공사, 자랑스런 승가 전통"*

대화와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열린 전통이지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탁마, 그리고 대중공사야말로 불교의 자랑스런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이 살았을 때, 불교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화엄결사에서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도법 스님)"

그렇다면 이런 시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승가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자구 해석에 매달리는 훈고적 방법이나 강사 중심의 강론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소위 권위자의 경전 번역이나 해석에서 많은 오류를 발견한 것도 소득입니다. 권위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실제로 확인한 것이지요.

많은 한글 번역이 겉도는 이유도 경전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본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런 다음에 한글만으로도 이해 가능한 텍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재연 스님)"

그런데, 이러한 화엄결사의 정신과 공부 방식은 역설적이게도 화엄학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94년도 조계종 사태 이후 종단 교육 개혁 차원에서 '화엄학림'을 열었습니다. 화엄학 개론 · 중론 · 유식 · 현담 · 화엄경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도량이었지요. 그런데 지난해 초 7기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학인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여러 요인이 거론되었습니다. 실상사라는 공간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문제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화엄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강한 흡인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태의연, 학인들의 자기확신 부재, 방법론에 대한 회의 같은 것들이 흡인력 약화의 세항들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5회에 걸쳐 졸업생을 배출하는 동안 기대도 많았는데 이대로 흐지부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결론은 '결사'였습니다. 강사와 학인이 함께 공부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 검증하자. 그러면 한 단계 성숙된 승가 교육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화엄결사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내실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론 개발이 결사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도법 스님)"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교육의 두 주체와, 교육 여건 마련과 지원의 소임을 맡은 주지 스님까지 한몸이 되어 교육적 실험의 대상이 되고자 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화엄학림의 새로운 길찾기는 끝난 것인가. 물론 또 있다.

"조계종이 3급 승가고시 자격 요건에 선방 경력 4안거는 명문화해 놓고도 화엄학림과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공부 경력은 도외시하기 때문에 뜻있는 학인들도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해요. 한국불교 발전에 장애 요인입니다.(해강 스님)"

조계종 교육 행정 차원에서 귀담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001년 2월에 시작된 '화엄결사'는 2003년 동안거 해제에 맞춘 회향까지 경학(經學) 탐구와 수행을 연계해 나가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수행자상을 세워갈 것이다.

실상사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싹'을 본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실패가 수미산만 해야 큰 성공 오는 법"

가까이서 뵌 큰스님

혜 암 스 님

추모특집 이호신의 글과 그림으로

가야산 해인사는 그 도량이 넓고도 깊어서 산중 곳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가슴을 온통 푸르게 적신다. 밝은 날 눈을 들어 산을 우러르면 산자락마다 기암괴석이 우뚝하고 굽이쳐 흐르는 홍류동 계곡 또한 푸르름이 넘쳐난다.

그런 해인사로, 그것도 큰 어른이신 혜암(慧菴) 큰스님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요사에 짐을 풀고 가야산의 밤을 맞으며, 한 하늘 아래 공존하는 터전이 어떻게 다르고 각별한지를 새삼 느낀다.

새벽 햇살이 돌담을 기어오르는 퇴설당(堆雪堂)에서 혜암 큰스님을 뵈었다. 연꽃이 새겨진 앉은뱅이 나무 탁상을 앞에 두고 단아한 차림새로 염주를 돌리고 계셨다. 큰스님의 첫 인상은 들은 대로 군더더기가 없는 육신과 골기가 또렷이 드러난 다소 깡마른 체형인데 안경 너머로 눈빛이 빛난다. 여명 속에 감도는 선미(禪味)의 기운이 방안 가득하다.

출가 인연사부터 여쭈었다.

"누가 절에 가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요, 스스로 깨우침을 얻고자 온 것이지요. 일본에서 책을 보다 보니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넘어 가질 않아 바로 이 해인사로 출가했어요.

처음부터 남의 신세를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의 힘을 빌려서 공부하면 스스로 깨우침만 못하니 그리 마음을 먹었지요.

머리 깎고 가사 입고 행세하는 것이 스님이 아닌 만큼, 형식에 그치는 일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출가사문이 되어 꼭 지켜야 할 스스로의 계율을 세 가지로 삼았는데 첫째, 공부한 후라도 상좌 안 들인다. 둘째, 절집의 소임은 맡지 않는다. 셋째,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공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뜻대로 한 게 없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고 보니 스님께서는 지금 조계종단 원로회의 의장과 해인총림 방장을 맡고 있다.

"과거 부의장 때 두 번이나 사의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다 조계종 분규 사태 이후 종단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맡게 되었고, 해인사 방장직은 적임자가 나온다면 한시라도 그만 둘 생각입니다. 내가 방장을 맡은 후 계율은 더 엄격해졌어요."

엄한 어른이 어디 절집에서만 요구되는 존재인가. 오히려 세상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사표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이 시대의 고통에 대한 큰스님의 처방전을 청해 본다.

"참된 수행자란 인천(人天)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는 소명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권력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시급한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이를 살필 줄 모르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사람이 바로 서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제구실을 하려면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감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 "수행자는 人天의 지도자
> 세상의 어리석음 일깨워 주는
> 소명지니고 이땅에 태어난 것"



마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태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었다. 큰스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 살 먹은 아이도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하여 일어날진대 지레 기운을 빼고 흥분만 해서는 안 되지요. 두고 보세요. 가스 폭발, 다리 붕괴보다 더한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노태우 씨가 백번 잘못했지만 국민들은 이 기회에 크게 깨쳐야 합니다."

어찌해서 그럴까. 사뭇 당혹스럽기만 하다.

"이것 보세요. 이럴 때 크게 깨닫는 겁니다. 또 배우는 것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그리고 **개인이든 국가든 실패없이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주먹만하면 주먹만한 성공이 올 것이요, 산 덩어리만하면 성공 또한 산덩어리만큼 생겨납니다.** 이런 것을 범부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 맘을 내 맘대로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맘을 벗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일어났다 없어지는 마음은 본심이 아니예요.** 그 이전의 마음이 진심이요 본래 성품입니다. 결국 **내 본심을 모르는 것이 허물이다.**



◇해인총림 6대 방장으로 퇴설당에 주석하실 때의 혜암스님.

"이것 보세요. 이럴 때 크게 깨닫는 겁니다. 또 배우는 것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그리고 **개인이든 국가든 실패없이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주먹만하면 주먹만한 성공이 올 것이요, 산 덩어리만하면 성공 또한 산덩어리만큼 생겨납니다.** 이런 것을 범부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 맘을 내 맘대로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맘을 벗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일어났다 없어지는 마음은 본심이 아니예요.** 그 이전의 마음이 진심이요 본래 성품입니다. 결국 **내 본심을 모르는 것이 허물이다.**

예요. 전임대통령도 그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치른 한바탕 큰 연극인 셈이지요."

역시 큰스님께서는 현상을 보면서도 현상에 매몰되지 않는 안목을 보이셨다. 바로 이런 눈이 조계종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었을까. 잠시, 한국불교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봉암사 결사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한다.

"일제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한국불교를 바로 잡기 위하여 봉암결사를 이루었는데 불조의 정법을 발양하고 교단 정화의 기초를 다진 일로 기억됩니다.

승가의 존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수도승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했기에 자급자족과 탁발로써 부처님의 길을 따랐지요. 이전의 두루마기 장삼이 오늘날 가사로 바뀐 것도 그 때 60벌을 만들어 나눈 결과입니다. 탁발 공양은 물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몰래 담아주고 오기도 했지요."

너무도 아름다운 수행자의 모습이 생생한 그림이 되어 머릿속을 흐른다. 과거는 무조건 아름답게 보려는 회고 취향 때문일까, 아니면 현실이 하도 볼품이 없어서일까. 과연 10년이고 20년 후의 한국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

"조계종 분규 사태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선, 장좌불와, 묵언만 하는 스님인 줄 알았더니 이처럼 떨치고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말들을 합디다. 또 그 때 기자들이 몰려와 종단의 추락과 타락을 어찌 할 것이냐고 묻기도 하더군요. 나는 한 마디로 무엇이 추락이고 타락이냐. 이것이 앞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징조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 "사람구실 하려면
> 자신의 처지·분수
> 바로 알아야"

실패가 수미산만은 해야 큰 성공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성인 또한 모두 예외가 아니었던 만큼 부끄러워할 것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어요."

이 말씀을 끝으로 겨우 몇 장의 밑그림을 들고 물러나오자 퇴설당 뜨락은 이미 환하게 광명천지로 밝아있었다. 몇해 전에는 성철 스님이 이 곳에서 주석하시다가 법체로서 이승길을 뜨셨는데 뒤이어 혜암 스님이 법열을 쏟아내고 계신다. 사람은 가도 인연은 끊임이 없는 법이라더니, 가야산 해인사의 도량은 이렇듯 물처럼 흘러가는 것일까.

벽계청송의 홍류동 계곡을 따라가자 길옆 너럭바위에 새겨놓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의 초서가 물 흐르듯 영겁의 세월 속에 낯달로 떠 있다.

이 글은, 화가 이호신 씨가 혜암 큰스님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 1995년 11월 18일 친견한 때 나눈 얘기를 스님의 원적 소식을 접하고 4일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 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특허

"BBS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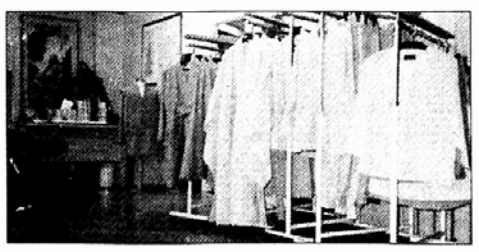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 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두 루 막	남·여	130,000
	동 방	남·여	120,000
누 비	上 下	남·여	190,000
	두 루 막	남·여	160,000
	방 한 복	남·여	130,000
	보 온 복	남·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손 가 방		中	28,000
		小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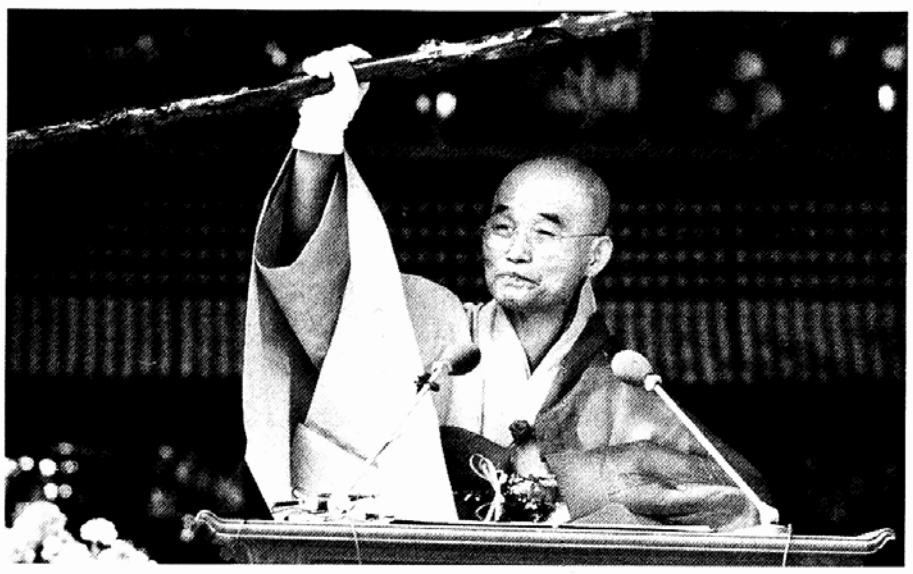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 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다시듣는 혜암 큰스님 법어

"허망한 나 버리고 참 나 깨닫자"

노고추(老古錐). 실컷 써서 잘 닳아 예리한 송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승려시인 정휴(正休) 스님은 종정법어집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에서 혜암(慧菴) 스님을 노고추에 비유했다. "내심자증(內心自證)을 통해 실상이 아닌 것은 버리고 자성(自性)의 뼈대로 존재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깨침의 풍선을 룩룩 찔러대는 송곳이야말로 혜암 스님의 이미지 그 자체다.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드러내 보였던 혜암 스님의 법어를 간추려 다시 듣는다. (편집자)



◇1999년 5월 11일 조계사에서 열린 종정 추대식에서 법어를 내리시는 혜암 스님.

"번뇌망상 없는 청정한 물건이 본래 나"
"성인은 부처님 하인노릇 하려고 온 것"
"부처님 시키는대로만 하면 극락인데…"

◑우리 몸뚱이가 하늘이고 땅입니다. 단결 화합하고 어디가든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다른 사람 애먹이지 말고.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로운 짓을 뭐하려고 합니까. 짧은 시간에 남도 도우면서 멋있게 살지, 우리가 얼마 산다고 남을 해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단결, 화합하고 즐겁게 삽시다. 남 즐겁게 해서 내가 손해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가는데 마다 그런 생각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도록 그 법을 어기지 말고 합리적으로 삽시다.

◑어떤 것이 참 나인가, 내가 누구냐?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 세상 돌아온 세상 어떤 것이 나인가 말이요. 번뇌망상이 없는 청정한 물건이 본래 나일세. 작은 생각, 옳은 생각, 그른 생각 이런 생각은 내가 아니요, 참으로 나라는 것은 한 생각, 아무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눈깜짝 할 사이라도 나를 찾다 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보람 있는 삶인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꽃피고 잎 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진리도 하나입니다. 사람만 이렇게 많지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콧구멍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 있고, 귓구멍 속에 한량없는 부처님 나라가 다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깨치고 보면 시방세계가 모두 나로부터 나오고, 하늘 과 땅, 해와 달 역시 내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내 마음 자리에서 보면 수없이 스러졌다 일어서는 바다의 파도만도 못한 것입니다.

◑사는 것만이 고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나고 죽으러 다니는 고생은 이루 다말로 할 수 없습니다. 뼈마디가 다 녹아들도록 괴롭기 짝 이 없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나고 죽을 때의 괴로움이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고 죽은 일이 없는 극락세계가 있는데 왜 사서 그런 고생길을 만듭니까? 중생이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고 길잡이 하러 나온 이가 바로 성인입니다. 성인은 부처님의 하인노릇을 하려고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를 본받아 부처님의 하인노릇을 하려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대로가 극락이니까요.

◑우리 자신은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본래 모습은 먼지에 덮인 구슬과 같습니다. 먼지가 아무리 쌓여도 구슬의 본 성질은 변함없지 않습니까.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구슬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닦아낸 구슬은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본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가 자기이기에 미물, 곤충, 유·무정물 할 것 없이 모두 자기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증득한 수행자라면 반드시 스승의 한 마디에 대해 분명히 두 마디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한 길이며 한번의 견성은 모든 것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돈오돈수니 점수니 하는 논쟁이 필요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들이 속세를 등지고 출가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견성성불을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닙니까. 견성에 이르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화두 참구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일반적인 알음알이를 투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활구참선을 정진하고 있다는 대전제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 우리가 일하고 장사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첫째 소식(小食)해야 합니다. 둘째는 용맹정진을 주문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수지맞는 일중의 하나가 공부하다 죽는 일인데 목숨 내놓고 정진하다 보면 견성이 가까워오고 죽음은 멀어집니다. 셋째는, 안으로는 본심을 깨닫고 밖으로는 남을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참선 공부하는 것과 남을 돕는 일뿐입니다. 넷째, 주지 등의 소임을 가급적 맡지 말라고 합니다. 차별적으로 보면 각자의 소임이 다 있어야 하지만 소임을 맡다보면 공부는 온데간데 없고 집착하게 되니 멀리 하라는 겁니다. 천하총림이 다 망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말고 내 공부만 할 것을 당부합니다. 소임을 살더라도 공행(空行)을 닦아야 합니다. 끝으로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청빈하게 살 것을 당부합니다. 출가수행자들은 원래 탁발하면서 공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시고 왕궁에 내려 오셨으며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이미 중생제도 마치셨도다. 부처님의 동체대비는 무량무애(無量無碍)하여 항하사수의 중생들이 억만겁을 찬탄한다 하여도 다 설할 수가 없다모든 인류는 절대평등한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자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 일체법(一切法)이 청정하여 청정이라는 이름조차 찾아 볼 수 없으니 광대무변한 우주법계의 한량없는 유정 무정(有情 無情) 부처님께 이(理)와 사(事)로 불공하라.

본래마음(本心)의 밝은 달(明月)이 일체(一切)를 밝게 비추니
이 사바세계가 곧 정토(淨土)요, 마군(魔群)과 제불(諸佛)이 본래 한 몸이로다
선악시비와 이해득실은 거품위에 거품이요, 생사열반과 지옥천당은 꿈속의 꿈이로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무리들이여!
허망한 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아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이 장엄한 세계를 바로 볼지어다꾀꼬리 시냇물 태평을 노래하니
푸른 솔 흰 바위 덩실덩실 춤을 추네
아—악!
〈2000년 봉축법어〉

법어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환성선사 '鶴羽心'

선사의 법명은 지안(志安), 법자는 삼낙(三諾), 법호는 환성(喚惺)이며, 속성은 정씨(鄭氏)이다.

강원도 춘천에서 현종 5년(1644)에 출생하였다. 15세에 미지산 용문사에 주석하고 계신 상봉 정원 선사를 찾아가 축발하였다.

17세에 월담 선사에게 건당하여 참행하였다. 이후 청평사(淸平寺) 백암선원(白岩禪院)에서 두타행 9년째 되던 해 여름 불볕더위에 가부좌하고 수행 중 정오(正午)에 학(鶴)이 날아갈 때 깃털이 하나 빠져 공중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고 확연대오(廓然大悟)하였다.

학우심(鶴羽心 : 학의 깃털에서 깨달은 마음)

심선각(深禪覺 : 깊고도 깊어 상상할 수 없는 마음)

底事無心臥水西(저사무심와수서)
只緣忘世愛幽棲(지록망세애유루)
茶爐爲客開深徑(다로위객개심조)
藥圃諱人隔小溪(약포휘인격소계)
晴散雨聲松老小(청산우성송노소)
秋磨秋色岳高低(영마추색악고저)
林禽亦有來聲睡(림금역유래경수)
猶恐山僧夢紫泥(유공산승몽자니)

무슨 일로 무심히 수서에 누워 있는가,
다만 세상을 잊고 깊숙한 토굴을 사랑하기 때문이네.
차 솥은 객을 위해 깊은 아궁이를 열었는데,
약초밭은 사람들을 꺼려 조그만 시내를 격해 있노라.

산승의 이름과 공을 모두 떨어 버리네

靑鷺鮮尾落雲中(청난삼미락운중)
五月炎天做雪風(오월염천주설풍)
一揮何啻欺煩署(일휘하시기번서)
拂盡山僧名利功(불진산승명리공)

푸른 난새의 긴 꼬리가 구름 속에서 떨어져,
오월의 불꽃 하늘에 눈바람을 지어낸다.
한번 휘두르면 어찌 번뇌와 집착을 속일 뿐이겠는가,
산승의 이름과 공을 모두 떨어 버리네.

유심(幽心 : 깊고 깊은 마음)

盡日忘機坐(진일망기좌)
春來不識春(춘래불식춘)
鳥女兼僧入定(조혐승입정)
窓外喚山人(창외환산인)

매일 세상을 잊고서 앉아 있노라,
봄이 와도 봄이 온 줄을 알지 못하네.
산승이 선정(禪定)에 드는 것도 새는 싫어한다.
창밖에서 산승을 자꾸 부르네.

비개인데 뿌리는 비 소리는 소나무 늙고 또 젊었는데,
찬 서리 다가오는 가을빛은 산 높고 또 낮다.
숲 속의 새가 또 와서 잠을 깨게 하는구나,
산승이 자니(紫泥 : 세속)의 꿈을 꿀까 두렵다.

선사의 깨침은 너무도 깊고도 깊으며, 묘하기가 그 끝이 없어 그 형기(形氣)는 위무(威武)하고 그 성운(聲韻)은 청원(淸遠)하기가 가히 없다. 또한 선지(禪旨)는 억연(嶷然)하기가 애안(崖岸)이 천길 같다.

이와 같은 선사의 선활(禪喝)에 수많은 법려(法侶)들이 문정(門庭)에 가득하였다.

선사의 그 선해지원(禪海智源)은 천하에 두루 펴보지 못하고 무고(誣告)에 의하여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홀연히 영조 5년(1729)에 입적하였다. 세수 66세 법랍 51세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베스트셀러 도서출판 좋은인연 TEL - 053)475-3707 FAX - 053)475-3706 E-mail - buddhabook@hanmail.net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또 다른 수행선시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질 장면장면을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도 선명한 글로 표현한 이 번 책은 수 년 간에 걸쳐 집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산과 들을 헤매며 찍은 생생한 들꽃과 연꽃이 책 속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연꽃, 흔히 볼 수 없었던 한국의 야생화가 스님의 문체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길 속에 여행

우학스님 선시모음

길 속에 여행

살며시 드러나는 우학스님의
잔잔한 추억의 발자취를
따라 산과 들,
그리고 출세속의 향기에
취해 보십시오!

"법보시 하시면 할인됩니다."

15×22cm/208페이지/정가 10,000원
하드커버 양장제본, 전면 올 칼라

우학스님의 선시 낭송 테잎도 발매중 ☎문의 053)474-8229

화제의 신간

일곱가지종류의 아내

•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곱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일곱가지는(란) 무엇인가? 이 시대의 바람직한 아내상은?
• 포교 30년! 함재수 법사가 경전 속에서 찾아낸 일곱가지 종류의 아내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는! 마음의 양식!
일곱가지 종류의 아내
• 지금 아내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이 시대의 바람직한 아내상은 무엇인가? 함재수 법사가 경전속에서 찾아낸 일곱가지 종류의 아내란?



저자 함재수 법사



불교포교 실화집
함재수 지음
신국판/값 8,000원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 제1편 : 부처의 생애
◈ 제2편 : 부처의 가르침



中人 洪淳徹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 (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 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15,000원(大)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 / 양장본 김용식 저 /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선암,전호일 공저 /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장본 / 송월스님 지음 /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 / 양장본 / 申昇 /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컴퓨터본 /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컴퓨터본 /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장본 이상옥 지음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혈계관 신국판 / 양장본 진상백저 /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윤중 편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장본 김성진 저 /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살풀이 대백과 신국판 / 전현우 저 / 정가 17,000원
17. 명가풍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 / 김용식 저 / 정가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 / 양장본 / 문길여 著 /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

월드컵 앞두고 공연·축제 줄이어

미리보는 불교문화마당 2002

200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들이 잇달아 열리면서,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선을 보인다. 또한 하반기부터 주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문화 예술 분야는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추어 불교계도 산사음악회, 연등축제 등과 같은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처님 오신날을 시작으로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5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금동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한 · 일간의 미의식을 비교할 국립경주박물관의 '신라의 금동불전'을 비롯해, 세계인에게 선보일 오페라 '팔만대장경' 공연, 전통등연구회의 주도로 열리는 '지구촌 등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2002년 불교 문화계에는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본다.

1 · 2월

한 · 중 범패음악회= 15일 대만 국가희극원 주최로 열리는 한 · 중 범패음악회에는 대만의 염불음악과 영산재 이수자 법현스님의 전통 범패가 선보인다.

전통사찰음식전=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1기 졸업생들의 작품전이 12일~14일 서울 안암동 보타사에서 열린다.

3 · 4월

관음보살 주제 목조각전=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보유자 허갑량씨의 조각전이 3월 말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금강문화대전= 국립공주박물관의 금강문화대전은 백제문화지역인 '금강과 차령의 역사와 문화' 특별전과 '금강의 소리를 찾아서'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4월 22일부터 월드컵 기간까지 열린다.

조선시대풍속화전= 단원 김홍도 · 혜원 신윤복 등의 풍속화를 전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 3월 12일부터 7월 말까지.

괘불탱 특별전= 봉도사성보박물관이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하는 기획전으로 전국 사찰에 소장된 괘불을 소개한다.

5 · 6월

신라의 금동불전=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금동불 및 일본 금동불 전시를 통해 한 · 일간의 미의식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한다. 5월 20일~6월 30일

연등축제=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불교 대축제인 '연등축제'가 동대문과 조계사 일대에서 열린다.

지구촌 등 축제= 월드컵 기간 동안 서울 남산 한옥마을 일대에서 불교 전통 등을 비롯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멕시코 등 세계 30여개국의 등이 선을 보인다.

오페라 팔만대장경 공연= 월드컵 기념 공연으로 서울예술단에서 준비 중인 오페라 팔만대장경이 5월 중 막을 올린다.

월드컵 출전국 작가 합동 전시회= '얼굴과 언어'를 주제로 월드컵 출전 32개국 작가 100명의 작품이 월드컵 기간 중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다.

7 · 8월

만해축전=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만해축전이 8월 초 강원도 백담사 일대에서 열린다. 만해시인학교, 만해백일장 등이 진행된다.



◇부처님 오신날을 시작으로 5월~6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진다. 5월 31일 월드컵 개막에 앞서 선보일 우리 오페라 '팔만대장경'의 한 장면.

삼척세계동굴박람회= 환선굴 · 관음굴이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 삼척에서 열리는 세계최초의 동굴박람회. 세계의 다양한 동굴문화를 엿볼수 있다. 7월 10일~8월10일

9 · 10월

초의문화제= 초의스님의 사상과 우리 차에 깃든 문화를 나누는 축제가 대둔사 일대에서 펼쳐진다.

전주 세계 소리축제= 불교 전통 범패를 비롯해 우리의 민속음악과 세계 전통 민속음악, 현대의 음악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10월 중 개최 예정.

11 · 12월

화순 운주 대축제= 화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공유하는 화순 운주 대축제는 11월 중 운주사 일대에서 열린다.

여수 향일암 일출제= 12월 31일 관음기도 도량인 향일암에서 일출을 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만남의 장이 펼쳐진다.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기볼 만한 전시 2題

옛추억의 향수 느낀다

흥겨운 우리놀이展 갤러리 사비나

인터넷 게임과 정체불명의 서양놀이에 밀려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놀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흥겨운 우리 놀이 전'이 열린다.



◇오상일 作 '굴렁쇠 놀이'.

2일부터 2월 8일까지 서울 관훈동 갤러리 사비나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우리 조상들이 즐겨했던 굴렁쇠놀이, 연날리기, 줄타기, 자치기, 팽이치기, 쥐불놀이, 차전놀이, 닭싸움 등의 전통 놀이를 조각과 회화, 설치미술 등 순수 미술 작품으로 재해석해 표현했다.

이번 전시는 새해를 맞아 어린이들에게는 우리의 전통을,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의 향수를, 외국인들에게는 진정한 한국의 놀이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736-4371

화폭에선 말들이 뛴다

말이 있는 그림展 양평 인더갤러리

2002년 우리 자신의 꿈을 싣고 뛸 말은 어떤 모습일까?

말띠 해를 맞아 '말이 있는 그림전'이 경기도 양평 인더갤러리에서 1일부터 31일 까지 열린다.



◇김점선 作 '말'.

삶의 활력에 가득 차서 불만이 전혀 없는 행복한 표정의 말,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말, 상상속에서나 나올 듯한 상징적인 모습의 말,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뭔가 일을 벌일 것만 같은 긴장감이 느껴지는 말 등 다양의 말의 모습을 김점선 이존수 유양옥 등 3명의 화가들이 제각기 화폭에 담았다. 말이란 화두를 두고 갖가지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다. ☎031)771-6191



동성 스님 '축구공을 든 달마'

세계인의 축제인 2002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는 달마도가 등장해 화제다. 미술잡지 '아티스트'가 1월호 표지작품으로 동성스님의 '축구공을 든 달마'를 실었다.

30년 간 달마도를 그려온 동성스님은, 이번 작품에서 보리 달마의 공(空)사상과 월드컵 경기에서 사용되는 공이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공양구에 축구공을 받쳐 든 달마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02)736-2585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신사년이 가고 '말의 해'인 임오(壬午)년의 아침해가 다시 찬란히 떠오른다. 쥐의 뜬 이후 '지은 만큼 받는다'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면서부터,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비는 일일랑은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웃과 함께 보다 밝은 내일을 기원하는 일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새해에는 인류가 보다 많은 공동의 선업(善業)을 쌓아올리도록 측원해본다.

지난 연말 한 해를 반성하면서 미처 인사드리지 못한 분들을 떠올리다가, 여의도에서 투병 중인 시인 구상 선생이 생각났다. 선생은 수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가,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연만한 나이(1919년 생) 관계로 최근엔 거동이 매우 불편하다. 와병 중에도 예의 그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후배를 맞으며 과세문안의 연하장을 건네주시는데, 그 안에는 '새해 초하루'라는 시가 적혀있었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구상의 '새해 초하루'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시에는 불교적 인과론과 기독교적 영원(永遠)개념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카톨릭 집안에서 자란 인연과 일본 유학 중에 불교를 공부한 인연이 서로 상응하여,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처럼 선미(禪味)가 물씬 풍기는 구절이 나온 것 같다. 선생은 그만 일어서 나오려는 후학에게 당부하듯이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불교경전의 하나인 〈잡보장경〉에는 '무재칠시(無財七施)' 즉 '가진 것 없이 베푸는 7가지 방법'의 가르침이 있다. 첫째는 눈으로 베품(眼視)인데, 자비스러운 눈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킴. 둘째는 온화한 얼굴로 베품(顔施), 셋째는 따뜻한 말로 베품(言辭施), 넷째는 몸으로 돕는 베품(身施), 다섯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품(心施), 여섯째는 자리를 양보하는 베품(床坐施), 일곱째는 쉴 자리를 제공하는 베품(房舍施)으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즉석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시들이다."

선생은 여기다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보살도(菩薩道)의 정신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였다. 새해에는 '가진 것 없이 베풀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덕이 달리는 말처럼 힘차게 뻗어가기를 기대해본다.

■문학평론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시공된연등 ▶
전선 케이블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육각등



공단등



신제품 종 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의 고통을 없애게 한다고 하지.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 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 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만월등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당신 인생의 목소리를 들으라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파커 파머 지음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일까.' '이것이 정말 나의 길일까.'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인생의 진로와 소명에 대해 자문해본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이맘때면 특히 그렇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맴돌 뿐 쉽게 결론에 닿지 않는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교육자이며 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는 〈삶이 내게 말을 걸어 올 때〉(한문화)라는 산문집에서 '소명(vocation)'을 찾아 방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실수와 시행착오, 내면의 나약함과 어두움에 대해 솔직히 털어 놓는다.

지은이는 먼저 우리가 자기 본연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까닭은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소명을 자기 인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라야만 하는 지고한 가치나 이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명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 만들어지거나 노력을 통해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도 아니다. 소명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선물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자아(眞我)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은이는 소명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인생에서 자기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진정한 공동체를 찾게 된다. 이 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모든 존재와 더불어 상호작용하며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저쪽' 박항률 作(2001, 종이에 아크릴, 15.3×142.5㎝).

"소명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선물"
시행착오 · 방황 등 진솔하게 서술

지은이는 도자기 만드는 일을 예로 든다.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점토에게 무엇이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도공이 점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깨진 파편이나 보기 흉한 물건이 된다. 건축기사가 첨 나무 돌 같은 재료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단순히 보기 싫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리나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자기가 가진 재료의 본성에 대한 이해 없이 소명을 구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답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못한 삶의 방식을 강요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풀리고,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깊은 좌절과 실망에 따져 있을 때 당신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고 말한다.

삶이 그저 지나치는 듯 느껴질 때, 어디로 가야할 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이 책은 가르쳐 준다. 값 6천8백원.

출판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구국 · 구세의 횃불

송암 스님 외 지음



수행공동체 불광법회를 창립해 마하반야바라밀운동, 보현행원운동, 그리고 잡지와 출판 등 대중포교의 기틀을 다진 금하당 광덕(1927~1999) 스님 시봉일기 3번째 권이 나왔다.

1권 〈내일이면 늦으리〉와 2권 〈징검다리〉가 광덕 스님의 법어와 동정을 기록한 책이라면 이번에 출간된 3권 〈구국구세의 횃불〉(도피안사)은 광덕 스님과의 인연담을 엮은 책이다. 화자는 '지음(知音)'이라 할 정도로 광덕 스님과 오랜 우정을 나눈 박경훈(전 불교신문 편집국장) 씨와 범어사 행자시절부터 20년 넘게 시봉했던 송암(안성 도피안사 주지) 스님.



"불교신문을 권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고 회고하는 박경훈 씨는 광덕 스님의 어린시절에서부터 불교와의 만남, 행자생활, 동국대 재건 등 스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인연담을 털어 놓는다. 반면 송암 스님은 광덕 스님의 내면까지 읽어 낸다. 그동안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스님의 내면세계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서원 그리고 승속을 떠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특히 재가수행자를 위해 식당작법과 입측오주(入厠五呪)를 직접 작성하는 스님, 신도 한사람이 절에 나오지 않자 주지 자격론을 고민하는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묻는 내용에서부터 소년소녀가장들의 눈물어린 사연, 재소자의 참회록, 정든 님과 헤어져 살 뜻을 잃어버린 청춘남녀들의 사랑병 이야기까지 수많은 편지를 빠짐없이 읽고 일일이 답장해 주시는 스님 등의 이야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행자시절 · 동국대 재건 등
광덕 스님 행적 · 인연 담아

송암 스님은 광덕 스님을 곁에서 모시며 작성해 두었던 수십권의 기록 노트들을 자료로 '광덕 스님이 시봉일기'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4권 〈위법망구〉 등 8권까지 출간될 예정이다. 값 1만2천원.

부처님의 가르침 바탕
인간의 생로병사 다뤄

'멋지게 살고 멋지게 가는길' 정태혁 지음



인간이 탄생하여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생로병사는 인간 문제의 요체로 모든 성자나 철학자 종교인들이 씨름해왔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다. 하지만 다른 점은 죽지 않는 길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신간 〈멋지게 살고 멋지게 가는 길〉(연꽃마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 삶과 늙음, 질병,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지은이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노인문제연구소장 정태혁 박사. 그가 인간이 숙명적으로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설한다.

지은이는 먼저 생명의 의미를 연기론적 입장에서, 삶을 원시불교와 대승불교적 차원에서 살핀 다음 노병사의 문제까지 인간의 숙명적 고통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간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러한 분석이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 즉 영원히 멋지게 사는 지혜를 터득하자는 것이다. 지은이는 말한다. 언제 죽더라도 멋지게,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면 멋진 죽음도 따른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같기 때문이다고.

'늙음이란 자랑스런 성숙이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니 갈곳으로 가는 것이다'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책은 연꽃마을 신문에 기획연재로 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묶었다. 값 8천원.

"개들은 그저 깨달음에 도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개다움이 바로 깨달음 자체다. 그렇다면 지저분한 털옷을 입고 침을 흘리며, 늘 시끄럽게 짖어대고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며 낑낑대는 그 작고 귀여운 수행자들은 누구인가."

일본에서 20세기 위대한 선사로 일컬어지는 스즈키는 바로 견공들의 모습 자체가 화두이며 불교적인 가르침이라고 단언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하지 않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 견공들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네 발 달린 명상가〉(인북스)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다.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

'네 발 달린 명상가' 김충현 옮김

미국의 명상가 주디스 아들러와 사진작가 토니 터커가 공저한 이 책에는 포인터, 세퍼독 등 다양한 개들이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며 등장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달라이 라마 등 성인들의 선문답이나 잠언과 함께, 그 말씀들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리들을 일깨워주는 말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 말의 외양은 지극히 평범하다. 어쩌면 그래서 울림이 더 큰지도 모르겠다. 값 7천5백원.

경훈 스님의 禪詩 500여편 중
216수 골라 혜당 스님 풀이

'아시게나 우리가 선 이땅이 낙원이라네'



경훈 스님 지음
혜당 스님 풀이

〈아시게나, 우리가 선 이 땅이 낙원이라네〉(역사비평사)는 무안 약사사 경훈 스님이 쓴 선시를 주해한 책이다.

경훈 스님은 열여섯 살에 출가한 이래 수행 틈틈이 떠오르는 선(禪)의 단상을 500여 편의 시로 남겼다. 그 가운데 쾌봉삼십(快捧三十), 묵좌수심(默座愁心), 장엄세계(莊嚴世界) 등 216수를 추려 두 권에 나눠 담았다. 풀이는 혜당(담양 금타선원) 스님이 했다. 황지우 시인의 형으로 5 · 18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출가한 뒤 지리산 등지에서 8년여 수행한 혜당 스님이 경훈 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경훈 스님의 선시를 대하면서다.

경훈 스님은 "부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신 본성의 넉넉한 자리, 청정본연 진여의 땅을 고해의 이웃들에게 펴 보이고 싶었다"고 말한다. 혜당 스님은 "한국불교 1,600년사에 빛나는 고승들의 선시와 대조하면서 풀이 했다"며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원하자"고 당부한다. 값 각권 9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2	파아나두라 대논쟁	오 진	운 주 사
3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 지 외	민 족 사
4	금강경 역해	각 묵	불 광
5	내가 본 부처	도 법	호 미
6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7	빠띠삼비다막가 역주	임 승 택	가산문고
8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9	현대관음기도 영험록	성 일	불 광
10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연 호 택	여시아문

도서 안내:(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승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1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그 누가 인생을 고해라 하였던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당신도 행복한 미래를 예약할 수 있다.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의 맥 脈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김윤보 큰스님 편저
신국판 355면 값 10,000원

근심 보따리를 풀어놓고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준비, 작법, 작단법 기도의 불가사의 한 힘, 그 실상과 방편을 낱낱이 모아 엮은 책!!

•일기도, 이레(7일)기도, 3 · 7일(21일)기도, 49일(7 · 7일)기도, 가정에서의 49재 의식, 100일기도, 108일기도, 1,000일기도, 3,000일기도, 10,000일기도 / 재(齋), 영산재, 생전예수재, 7재, 49재, 사리탑 탑돌이기도, 마니주 · 마니륜기도, 법륜상돌리기기도, 금강저돌리기기도, 만다라작법기도, 사경기도 / 산신기도, 용왕기도 등

【충판】운주사(02)3672-7181~5 【서울】교보문고397-3587 서울문고6002-6002 영풍문고399-5635 종로서적733-2331 법우당 994-4437 만나서적2267-7385 【부산】삼장원248-3582 고려불교예술원807-6842 부다가야865-4383 영광도서816-9500 부산도서517-1911 동방서적925-1318 【대구】한일서적423-0781 삼영불교서점421-3980 파계사서점984-4550 【인천】인천불교서점773-9086 【광주】원각사불일서점232-7542 삼복서점222-0258 【대전】보문불교서점253-6446 서종문고536-6700 【강원】관음불교사642-8880 금강불교사743-7442 마하불교434-8446 여래불교사632-9004 원주불교사748-3993 월정사성경원332-9685 【경기】만다라654-6656 목아불교885-9954 법보서적253-1055 대동서점449-4488 【경남】보문불교서적741-6709 성주사불심원267-2623 정법불교사741-2683 제일불교서점742-8174 혜인사서점932-7473 【경북】영광도서742-9133 포항문고249-4900 삼문사서점247-8412 학원사284-8250 대원서점770-2586 보승서점742-6607 불교서점749-1580 영주불교서점631-3940 경주제일서점742-9393 상주제일서점534-2377 【전남】불일서점743-9672 송광사불일서점755-5305 운주사서점374-0668 화엄서점782-1125 【전북】금산사서점584-1354 내소사서점583-7281 실상사서점636-3822 【제주】동연마을721-4005 불교종합점755-9800 약천사서점738-5000 【충남】동학사불서각825-7808 【충북】구인사서점423-7100

당신 속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이제 임오년의 새로운 연운이 시작됩니다 —.
평소 은혜입은 분, 따뜻한 이웃, 사랑하는 이에게 <삶의 등불>되는 이 책을 선물하십시오.

신라의 빛 권오찬 지음
80평생을 경주에 살며 몸으로 쓴 문화재 사랑!



제1장 / 서라벌의 자연
제2장 / 신라사에 대한 상식
제3장 / 봉은 고분에서
제4장 / 찬란한 불교유적
제5장 / 일본 고적과 국립경주박물관
제6장 / 사회와 전설

경주를 8개 권역으로 체분화한 다음 곳곳에 숨쉬는 전설 · 유적 · 산천 · 고분 · 왕릉 · 사찰은 물론 인정과 풍광까지 담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천년 전의 그곳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한다.

신라에서 고려 · 조선까지를 꿰고 있는 정통 경주 역사서!
더 이상의 경주 안내서는 없다.

4×6배판 SW지 495쪽 / 값 20,000 / 도서출판 글밭

세태비평집
김기문의 요설 김삿갓



요절복통시키는 해학과 넘치는 여유,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상쾌함 —.
타성에 젖은 채 시류에 흘러가고 있는 당신의
이성을 향해 내리치는 아픈 채찍!

신국판 319쪽 / 도서출판 글밭 / 값 8,000원

도서출판 글밭
TEL. (054)749-0650
FAX.(054)772-5344
E-Mail:glbatc@empal.com

※ 서점에서 미처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주문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해 드립니다.

"만해 스님 '조선불교 유신론' 사회진화론 영향 받았다"

김춘식 씨 만해 · 의상硏 발표회서 주장

1913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발표한 〈조선불교유신론〉은 19~20세기 초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이었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만해 · 의상 연구원 월례발표회에서 김춘식(동국대 강사) 씨는 "〈조선불교유신론〉 곳곳에 보이는 '제도'의 개선과 '진보' '진화'에 대한 피력 등에서 근대 초기 지식인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따르면, 구한말 지식인들은 서구 열강이 부강한 이유를 사회진화론에서 찾았고, 그 결과 약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인 사회진화론을 근대화의 지름길을 가리키는 이론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스스로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강론'으로 변형돼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불교유신론〉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씨는 '포교' 항목을 보면 종교의 포교와 국제사회의 세력관계를 동일시한 만해는 서구 종교의 포교를 '세력'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다른 종교의 세력이 커서 불교를 압도하는 것이 어디 타종교의 죄이겠는가?'는 만해의 질문은 결국 전형적인 '진화론'의 생존경쟁과 우승열패의 관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한 · 중 · 일 3국의 근대화 정책은 제도와 문물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조선불교유신론〉 또한 불교의 근대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김 씨는 "서구사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변화된 현실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불교를 건설한다는 취지는 '사회진화론'의 맥락에 그대로 합치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진화, 진보의 합법칙성에 대한 인식이 곳곳에 보이는 반면 평등주의, 구세주의, 세계주의, 평화주의가 강하게 피력되는 점에 비춰 보면, 진화론의 약육강식과 우승열패를 대세로 받아들이면서도 불교정신에 기반해 그 모순점을 극복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불교 유적 학술지 '불교 고고학' 창간

위덕대 박물관 매년 12월 펴내

옛 절터 등 불교 유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가 창간됐다. 위덕대 박물관(관장 김무생)은 지난 달 24일 〈불교 고고학〉 창간호를 발간했다. 우리 나라의 역사 고고학이 고분, 궁궐, 주거지, 성곽 등에 치우쳐 온 것을 감안하면 그 동안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진 절터, 마애불 등 불교 유적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창간호에는 허흥식(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의 '명산과 대찰과 신당의 의존과 갈등' 등 6편의 논문과 경북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보물 54호)에 대한 발굴 조사 보고서 등을 함께 실었다. 앞으로 매년 12월 발간 예정이다.

〈불교 고고학〉은 광범위한 역사 고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불교 유적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는 점에서 학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불교 유적 연구는 익산 미륵사터나 경주 황룡사터, 감은사터 등 일부 대규모 절터에 대한 발굴 조사와 그 터에 남아 있는 석불, 석탑 등 조형물에 대한 연구가 주류였다. 하지만 유물에 대한 미술사적 접근과 가람배치 중심의 건축사적 이해만으로는 절터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의 조원창 책임연구원은 "건립 연대와 중심 활동 연대, 폐사 연대 등 절의 존속 기간, 규모, 불교사에서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고고학과 미술사학적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 유적, 유물을 통해 불교 유적을 종합적으로 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불교 고고학〉 창간호에서 엿볼 수 있다. '경주 백운대 마애여래입상은 미완성 대불인가?'란 논문을 실은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이제까지 미완성 거불(巨佛)로 학계에 알려져 온 이 마애불이 채색 불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주변에서 수습한 유물을 볼 때 마애불이 있던 곳은 전실을 갖추었던 석굴사원임에 분명하고, 머리와 양쪽 손을 제외한 부분 즉 조각하다가 그만 둔 듯한 부분에 두터운 회칠을 하고 그 위에 채색 장엄한 불상이라는 주장이다. 박 실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상태에서는 빈약해 보이는 마애불의 가슴과 하체 부분이 보완되어 균형 있는 모습을 갖추었던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가람 · 유물 중심 탈피 불교유적 종합적 연구



◇<불교 고고학>창간호 표지.

김창호 경주대(문화재학과) 교수는 조성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많았던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의 조성기 명문을 분석한 결과 인명 표기, 46병려체 등으로 볼 때 미륵삼존불상은 통일신라 때, 나머지 불보상들은 7세기 초 조성됐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 '단석산 신선사 마애조상'에 대하여'를 실었다.

위덕대 박물관 김무생 관장은 "우리 나라 유적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터에 대한 발굴 조사나 그에 따른 연구는 다른 유적에 비해 다소 미흡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제 불교 고고학도 역사 고고학의 한 분야로서 그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충북 옥천 용암사 쌍삼층석탑(충북 유형문화재 3호).

옥천 용암사 쌍삼층석탑 '보물'

둔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3호인 옥천 용암사 쌍삼층석탑을 보물로 승격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이를 관보에 예고했다.

고려 중기 양식을 보이는 이 탑은 일반적인 가람배치와는 달리 대웅전 앞이 아니라 사역의 북쪽 낮은 봉우리에 서 있는데, 이 때문에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산천비보사상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산천비보사상에 의해 건립된 석탑 중 유일하게 쌍탑이다.

또 자연암반 위에 건립됐는데도 2층 기단인 점, 산천비보사상에 의해 건립된 다른 탑이 2~3m 높이인데 비해 동탑이 4.3m 서탑이 4.1m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 선종 뿌리는 마조선"

중국 우민사서 한 · 중 국제학술회의

중국 조사선(祖師禪)의 실질적인 개창자인 마조(馬祖, 709~788)선사의 사상을 조명하는 한중 학술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중국 강서성불교협회와 우민사, 불교춘추사가 지난 달 23~25일 마조 선사가 개창한 홍주종(洪州宗)의 천년 조사도량인 우민사(佑民寺, 옛 홍주 개원사)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는 신라 구산선문과 현 조계종의 뿌리인 마조 선사상을 한중 불교교류사 차원에서 본격 조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국측 발제자 6명과 중국 각 성(省) 사회과학원 교수와 스님 등 중국측 발표자 23명이 3일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인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마조 선사와 신라 출신 무상선사 및 신라 구산선문과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진월스님(동국대 선학과 겸임교수)은 '마조의 한중 선불교사에 끼친 영향'이란 논문을 통해 "신라의 입당구법승(入唐求法僧)들의 절대다수가 마조의 제자들에게서 법을 받고 귀국했음을 볼 때, 한국불교 선종의 기조와 성격이 마조선의 영향권 안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라말 고려초의 한국 선불교를 특징적으로 표현한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수미산문(須彌山門)을 제외한 8개 산문의 개산조가 마조의 제자들로부터 법을 받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 진월스님은 "현 조계종은 혜능선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조가 완성한 조사선을 수용한 이래 그 가풍을 지켜오고 있다"며 한국불교와 마조선과의 법연을 강조했다.

이어 진성규 중앙대 교수는 '마조와 한국불교'라는 논문을 통해 "신라의 스님들이 유독 마조 문하에 많이 입문한 까닭은 마조선사가 신라출신의 정중종(淨衆宗) 종주였던 무상(無相, 684~762), 즉 김화상(金和尙)의 제자 또는 사제(師弟)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신라 구산선문의 개조들은 입당 전에 모두 교학, 특히 화엄을 공부하였기에 화엄사상과 통하는 마조의 홍주종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용환 충북대 교수도 '마조의 홍주종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마조가 개창한 홍주종의 특징은 중도실상의 무심과 화두참구의 본원자각을 회통시킨 것"이라며 "이런 회통의 이면에는 신라의 무상선사로부터 청정여래선의 의미를 계승하고, 남악회양 선사로부터 돈오돈수론의 법연을 함께 이어받은 측면이 있다"고 처적(處寂)선사 문하에서 함께 공부한 무상선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高僧 다시보기

체원 스님과 고려말 불교

화엄종은 신라 의상 스님이 우리 나라에 전한 이래 고려 전기까지 불교계를 주도한 대표적 교종이었으나 무신집권기 이후 뚜렷한 행적을 남긴 화엄종승을 찾아보기 힘들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화엄종풍을 진작시킨 분이 체원(體元) 스님이다.

스님은 경주 이씨로, 검교정승 이진(1244~1321)의 셋째 아들이며 스님의 바로 손위 형이 고려말의 대 문인 익재 이제현(1244~1321)이다.

스님은 아버지 때에 이르러 과거로 관직에 진출한 전형적인 신흥 사대부 집안 출신이다. 형 이제현은 아버지를 따라 천태종 묘련사의 무외국사 정오스님의 문하에 드나들었고 조인규가의 승려인 의선 스님과 교류하였다. 이제현의 짝은 공민왕비 혜비인데 공민왕이 죽자 정업원의 비구니가 되었다. 그의 손자 내유는 출가하여 조계종 광도사의 주지가 되었고, 처조부 권탄은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며 처남인 권종정은 양가도총섭이었다. 이진과 권탄은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대부들이었으나 본래 불교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러한 불교집안에 태어난 스님은 법호가 목암(木庵) 또는 향여(向如)라고 했으며 각해 대사(覺海大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20세 무렵에 출가하여 승과에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한때 충선왕의 총애를 받아 승직이 높아지고 유명사찰의 주지를 지내기도 하였다. 40세 전후인 1320년 이후 화엄종의 결사를 폈던 반룡사 주지를 지낸 바 있고 해

무신집권기 화엄종풍 진작

의상 · 균여 계승…개혁 주창

인사를 중심으로 화엄종풍을 진작시켰다.

스님은 의상과 균여 스님을 계승하여 종풍을 선양하였는데, 이는 의상 스님이 낙산사에서 관음보살에게 발원문을 찬한 〈백화도량발원문〉을 약해한 데서 알 수 있다. 관음신앙에 깊은 믿음을 갖고 민간신앙을 염불신앙과 결합하여 영험과 공덕신앙을 강조한 현세구원적 신앙을 전개하였다. 당시 원나라와 밀착된 권문세족의 횡포로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을 현세에서 구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종풍은 공민왕대 신돈에게 영향을 주었고 고려후기이래 화엄종승으로는 유일하게 국사(진각국사)로 책봉되게 하였다. 그리고 향후 여말선초의 화엄종승들이 부각되게 하였다. 예컨대 이성계와 가까웠던 해인사의 경남스님이나 법왕사 주지였던 우운 주공스님, 조선초 사대부들이 앞 다투어 두보의 시를 배우고자 스승으로 모셨던 의침 스님 등이 바로 그들이다.

스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유교뿐만 아니라 일부 스님들도 도탄에 빠진 민중들과 사회를 구원 내지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고려말 불교계가 자정능력을 잃고 성리학에 사상계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학계의 정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스님처럼 불교계도 자각운동을 전개하여 탕화에 허덕이는 민중들을 구원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불교나 불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바로 아는 길이기도 하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기도 ·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신간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Ⅰ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Ⅱ 아미타불의 본원
Ⅲ 염불의 공덕 Ⅳ 칭명염불 수행법
Ⅴ 관상염불 수행법 Ⅵ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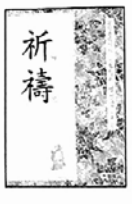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기 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중심 잘 지켜 중용의 정신계 길러야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지…

문 스님께서는 이 몸뚱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근본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니 나의 근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만 알고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면 부처에 이르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수 억겁을 거쳐서 진화되어 나오면서 인간까지 올라왔을 때, 인간의 육체 속에는 모든 생명과 의식,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거쳐왔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겠걸랑 바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잉태됐을 때에 열 달을 모습을 가지고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잉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 알처럼 흐물흐물하게 시작이 돼 가지고, 올챙이처럼 돼 가지고 수없이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열 달을 채워서 인간으로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모자라는 거, 잘못되는 거 또는 잘못된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또 하(下)의 생명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둘로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수 없는 나날을 거쳐오면서 그런 모습에서 점차로 진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옛날에 내 모습으로 보고, 내 모자람으로 보고 어떠한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바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보라 이 소립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되풀이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중생들이 내 아님이 없습니다. 전부 나입니다. 수 십억의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을 진 업식들의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쫓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가 말입니다, 모두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그 업식을 지닌 인연에 따라서 모두 작용이 되고 움죽거리게 됩니다. 그러니 만큼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움죽거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나'가 있습니다. 또, 사량적인 육안으로 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량적인 육안으로 보고 듣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말하는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 속에 들어 있는 그 만중생들은 제가끔 한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일체 만물들도 역시, 인간이하의 동물들도 모두 한 가지씩 기능을 다 가졌다고 봅니다. 천차만별로 그렇게 기능을 가지고 안팎에서 움죽거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닥칠 때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타파하고 또는 만법으로써 움죽거릴 수 있는 심력을 발휘할 때에 그것이 자유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씩 기능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다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만 가지 법을 하나의 마음으로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든지 다 내 마음으로서 그쪽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끔 하면 그쪽에서 그대로 응하고 돌아갑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 몸 안에 있는 의식들도 다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따라줍니다. 자기네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죽거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도둑질을 하러 가자 하면 도둑질을 하러 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력 얘기를 항상 하는데, 전력은 나쁜 짓을 해라, 좋은 짓을 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력이라는 건 우리가 쓰는 데 따라서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마음도 의식도 내 마음에 따라서 응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악업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선업으로도 쓰고, 악업과 선업이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돼서 바로 응신으로서 대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렇게 응신으로 화해야 응신으로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의식들이 잘 따라줄 수 있게끔 잘 다스려야겠죠? 그래서 관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몸뚱이가 나인 줄 알고 수 억겁을 살아온 자생 중생인 의식들에게 자꾸 보급하는 겁니다. 내게 닥친 이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다고, 너만이 다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지켜보는 것이며 더불어 관하는 것이며 자유롭게 되는 길이며 내 선장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뜻이지 무슨 말만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사회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나가서는 우주적으로나 모든 걸 대응하고 작용하고 중용을 할 줄 알고, 어떤 거든지 걸림 없이 자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권을 갖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거창하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것이나 사소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로 그냥 믿고 관해 나가다 보면 어떤 것이 부처에 이르는 길인지도 내면의 부처가 스스로 일러주게 되리라 봅니다.

놓는 방법이 왜 다른지요

문 좋은 말씀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에서 놓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주인공에게 놓아라. 잘돼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주인공에게 놓아라'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 더디니까 '잘 될 수 있게 결정을 지어서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더디고 빠르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며 놓는 방법이 달라지는지요?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놓아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주인공을 믿고 찾는다고 하지만 덮어놓고 '주인공만 믿으면 된다더라' 하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주인공이 해줘야지' '주인공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층 더 육신 법당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법당 속에 바로 자부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으로 봐서는 죽고 사는 생사가 둘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지만 그 자부처가 없으면 내 몸뚱이가 움죽거릴 수도 없거니와 보고 듣고 행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침체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몸뚱이 법당은 명이 다하면 다시 헐고 또 짓지마는 마음의 근본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며,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으냐 하는 모든 것에 따라서 대뇌에, 즉 누진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입력이 돼서 모든 게 현실로 차근차근히, 피할 수도 없이 감겼던 것이 풀어져 나오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입력되어 풀려 나오는 업과 고를 어떻게 요리하여 오히려 나를 밝히는 재료로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오직 여러분의 한 마음의 선택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진실로 어떻게 해야 만이 나를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또 모가 나도 둥글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상대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

문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이 찰나찰나 나투어 돌아가기에 공(空)하다고 하지만, 시절의 인연이 임오(壬午)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끝없는 시간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진리의 법음 일깨워주신 스님,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공부를 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생의 지표로 삼아 흐트러짐 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체 강건하시기를 제불보살님 전에 발원드립니다.



그림 · 최주현

인간엔 본래부터 지혜로움이 … 용도에 따라 마음도 바뀌어야

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잘 돌리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사계절이 간다 하더라도 모두 초월해서 돌아가는 걸 본다면 그 날이 그 날이고 우리네 마음들도 항상 그대로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함으로 해서 마음도 새록 새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지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새로이 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은 변화무쌍하게 조절이 되고 화하게 되고,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을 쓰느냐는 것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이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실천을 하면서 가야 하는지 그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몸은 바로 부처님의 법당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법당을 잘 지키면서 법당 속의 모든 자생 중생들을 제도하고 한가음으로 조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 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층 더 육신 법당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법당 속에 바로 자부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으로 봐서는 죽고 사는 생사가 둘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지만 그 자부처가 없으면 내 몸뚱이가 움죽거릴 수도 없거니와 보고 듣고 행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침체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몸뚱이 법당은 명이 다하면 다시 헐고 또 짓지마는 마음의 근본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며,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으냐 하는 모든 것에 따라서 대뇌에, 즉 누진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입력이 돼서 모든 게 현실로 차근차근히, 피할 수도 없이 감겼던 것이 풀어져 나오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입력되어 풀려 나오는 업과 고를 어떻게 요리하여 오히려 나를 밝히는 재료로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오직 여러분의 한 마음의 선택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진실로 어떻게 해야 만이 나를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또 모가 나도 둥글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상대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병고가 와도 '알아서 해' 이런다면, 예를 들어서 서류를 딱 주고 '요것대로 해!' 이래야 되지, 서류도 주지 않고 일거리도 주지 않고 절대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주인공이란 마음의 근본과 마음 내는 것과 육신이 움죽거리는 걸 동시에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걸 했다고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공은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팔방으로 뛰어도 죽지 않는다는 원리를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데, 용도에 따라서 변해서 애고도 세균성도 영계성도 유전성도 나오게 되는데, 애고라는 것이 고정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것도 나오고, 때로는 저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때로 사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것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저런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해라" 했는데 그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병고가 오면 '너밖에 고칠 수 없어' 하고 놓게 되는데, 그 놓는 순간에 약사로 화하는 겁니다. 또 내가 법정에 들어설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독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관세음도 됩니다. 그렇게 맡겼을 때에 찰나찰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지요.

마음을 내는 데 대해서 요량껏, 지혜롭게 타파해 나가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이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는 것이 와서 이걸 꼭 타파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내 앞에 닥쳤을 때는 '이거는 너밖에 못해!' 하고 놓을 수 있지만, 내가 가늠을 못할 때, 이것을 판단을 못할 때는 '너밖에 판단해 줄 수 없어!' 하고 놔야 됩니다.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어!' 하고. 그러니까 용도가 이것저것 닥칠 때마다 내 마음은 화해서 용도에 따라 다르게 놔야 되지요? 바꾸어서 놔야 되지요.

아버지 노릇할 때엔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 노릇할 때는 자연스럽게 남편 노릇하고 형 노릇할 때는 자연스럽게 형 노릇하듯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무조건 놓아라' 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놓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끊으려고 애를 쓰기만 하는데, 도대체 끊으려고 한다면 그게 끊어집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요. 우리 인간의 두뇌에는 아주 지혜로운 본능이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수 억겁을 거쳐오면서 경험을 쌓고 진화되고 형성됐습니다. 그러고 발전을 해서 인간까지 올라온 결과이므로 인간에게는 지혜로움과 발전과 기능,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천연적으로 지혜로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병고가 와도 '알아서 해' 이런다면, 예를 들어서 서류를 딱 주고 '요것대로 해!' 이래야 되지, 서류도 주지 않고 일거리도 주지 않고 '너 알아서 해!' 한다면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아랫사람을 심부름을 시키는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뭐뭐 사 가지고 와!' 이래야 그거를 사 가지고 오지요. '너, 알아서 사 가지고 와!' 한다면 그 집에서 뭐를 해먹을 줄 알고, 입맛이 어떨 줄 알고 그걸 어떻게 사옵니까? 그와 똑 같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기묘해서 마음 내는 것을 잘 내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심봉이라면 그 심봉을 끼워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마음 내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아무리 심봉이 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력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어떻게 잘 파악하셨습니까?

병고 털고 활기있게 살고파

문 이제껏 건강하게 살다가 목 디스크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이제까지 내 몸을 움직인 것이 내가 아니라 한마음 주인공이었음을 깨달은 신도입니다. 이렇게 병이 든 것 또한 주인공의 시험이라 생각하고 원망스런 마음은 일체 갖지 않고 있으나 저로 인해 마음으로 몸으로 고통을 겪는 노부모께는 한량없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아직 젊은 나이로 제 한 몸 거동조차 원활치 않은 이러한 병고에서 벗어나 활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인공에 관해야 옳을까요?

답 나야 뭐, 의사가 아니니 무슨 다른 말을 해주겠습니까? 의사들도 고치기 힘든 병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세포 하나 하나의 그 의식들이 기능을 해준다면 해결할 수 있겠죠.

육신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음 자체의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의 근본에서는 항상 우리가 지금 살아 나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내세에 다시금 그 입력된 게 나오는 것이고 과거에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 속에는 악업 선업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업 선업의 의식들은 잘되고 못되고를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 다스리는 생각이 미쳐야 만이 그게 따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되었지만 현실에 입력을 다시 한다면, 과거의 업장이 다 무너져서 안팎을 잘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어서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발목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목이 굳어지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목이 굳어져서 병원에서 뚫었는데도 뚫은 자체도 움죽거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깐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게 됐다고 붙들고 우는 겁니다. 그렇게 가질 못하게 하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진정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육체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린애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 그게 그날부터 움죽거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빼도 아무 탈 없이 말하고 먹고, 그래서 상까지 받았죠. 무슨 상이냐 하면요, 감사하다는 상요. 무언의 무심(無心)의 상 말입니다.

그러니 아프다고 집에만 누워있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선원에 다니면서 지극

☞ 18면으로 계속

가족은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모자라는 사람 과거 내모습으로 보라

☞ 17면에서 계속

하게 한 번 해보세요. 오직 주인공만이 죽이든 살리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배 · 술 끊으려면…

문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는 사회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 인생이 시작된다고 다짐하면서도 어느 때 보면 담배를 물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스님 말씀대로 주인공에 맡기고 끊어보려 하지만 믿음이 적어서인지 순간 경계에 끄달려 다시 실패하고 그럽니다. 속으로 들뜨고 즐기는 습이 깊이 내 몸에 뿌리박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108배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했으나 이틀만에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게으르고 미련한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간단한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꾸중과 가르침을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기도문이라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붙어서 사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지구에는 다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도 쓸모 없는 게 없어요. 공존해서 돌아가면서 분담을 해서 자기의 소임대로 해나가는 부분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게 포착을 못한 사람은 '에이구! 요것 때문에 내가 귀찮아 죽겠고, 조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러고 모두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겠걸랑 우리 몸뚱이 속을 좀 보십시오. 지구라고 생각하고 혹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속에 뭐 별거 다 있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징그러운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혹성을 움죽거리게 하고, 이런 것도 나오게 하고 저런 것도 나오게 하고, 아주 건강하게 막 돌아다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도 쓸모 없는 게 없어요. 하다 못해 뱃속의 거위 하나도 쓸모 없는 게 없어요.

예전에 어느 사람이 자꾸 배틀배틀 앓고 옆구리가 이만큼 붕쳐 가지고는 앓으니까 병원에서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냥 내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탁발을 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서 거위가 뭉쳐서 저렇게 애를 쓰니 거위 약을 먹고 담배를 알맞게 좀 먹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전에는 거위 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좀 먹이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담배를 하루 세 번씩 일주일을 피우니까 그 뎅어리가 다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살아났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약 아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모두가 지나치게끔 하니까 병이 되는 거지 정도에 알맞게만 해서 굴리고 돌리면 다 약이에요.

술 먹지 말라는 것도 그냥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주로 자기의 체질에 맞게 알맞게 먹으면 피 순환이 잘 되고 건강에도 좋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넉 다운이 되게 막 먹어대고 하니까 몸 안에 중생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작용의 감당을 못하니까 몸뚱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중도, 중심을 지켜라 이거죠. 중도로써 중심을 지킨다면 항상 회전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말다툼을 지나치게 하면 싸움이 돼서 이혼을 하기도 하죠.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구요. 인생살이가 뭐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뻤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요만한 것 가지고 그냥 툭탁거리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큰 것까지 그냥 파산이 돼 버리죠.

그러니 모두가 마음 중심의 지조를 지키면서 항상 한마음으로 마음에 불을 붙이고 사세요. 거기에다 붙이면 내면 세계나 바깥 세계가 아주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것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굴림을 굴려야 밝아진다 이겁니다. 하여튼 너무 지나치면 안되겠죠. 하지만 그 양을 잘 조절하여 생활에 맞게, 내 몸에 맞게 하는 것도 마음의 주인이 이끌어 주어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기다가 맡길 수 밖에요.

하여튼 우리 모두가 중심을 지켜서 중도로서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욕과 패기와 광대한 자유를 갖게끔 정신계를 길러야만 자기 자신의 문제, 생활에서 오는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돌이 아니게 타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문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아주 다급한 일로 인해 기도를 하여 가피를 입고, 그런 연고로 신심을 얻어 불자가 되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못난이는 스스로 알고 찾아왔음에도 보리심은 커녕 신심마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근기가 낮거나 아니면 이 생에 복이 모자라 해도 해도 아니 될 때, 도무지 어떤 방편으로도 발전은 없고 신심마저 회복되지 않을 때, 번뇌와 산란함에 온 심신을 지배당했을 때, 그리하여 오도가도 못할 때, 비록 그러할지라도 꼭 이것만은, 죽어도 이것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할 마음이 있다면 무엇인지 스님께 여쭙니다. 스님께서 그동안 구구히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마음만은 꼭 잡고 있으라고 하는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어떤 답답한 것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잡고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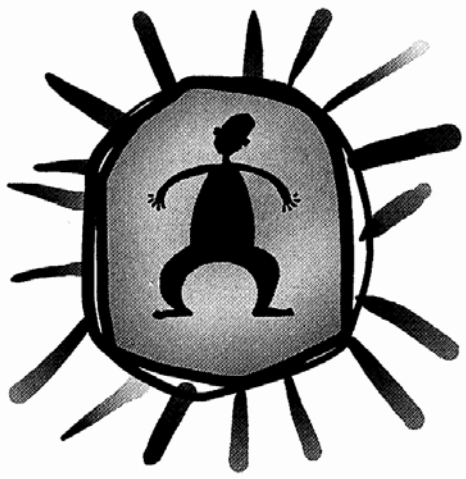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몸안의 모든것 전부가 나의것
악업 · 선업 한마음으로 돌려야

답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일체를 놓지 않으면 그릇이 비워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비워지지 않는 것을 그냥 비워지지 않았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야, 우리가 밥을 먹는 데도 그대로 있지 않더라. 똥을 싸더라.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고 그러더라. 그러니 항상 참나 생활이지 우리가 고정되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예 놓을 수가 없다고들 하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놓고 가면서도 놓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은 그냥 참나참나 살면서, 노래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서 탁탁 치우면서 돌아가면서도 '난 놓을 수 없습니다.' '난 놔지지 않습니다' 이럽니다. 놓고 가면서도, '다 놓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요. 돈을 한 묶음을 쥐고 가더라도 그건 놓고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쥐고 있다고 해서 고정되게 그냥 그것만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갖다가 놓습니다. 장 속에 넣든지 은행에 갖다 넣든지 증권에 갖다 넣든지 어디다 갖다 놓든지 하여튼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쥐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놓고 가는 겁니다. 관리만 했다 뿐이지 놓고 가는 겁니다. 내 몸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놓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바꿔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음식을 먹고, 먹고 싶은 대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면서 이것도 소화가 되고 저것도 소화가 돼야 좋지, 그런데도 능을 수가 없다니, 그러면 그것이 잔뜩 고여 있으면 좋겠습니까? 소화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소화가 된다는 거, 먹고 싶어서 우리가 먹으면 스스로 소화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소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공장에서, 위장이니 간장이니 직장이니, 소장, 대장, 방광, 이자, 심장이니 하는 모두가 공장에서 회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를 하고 살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한마음 주인공에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딱 일임을 하면, 어디 신호가 왔다, 어디가 아프다 한다면 이것을 거기다 딱 맡겨놓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팠거든요, 몸에서요. 그 자리에서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호가 온 겁니다. '지배인, 이렇게 여기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인이 해결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마음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공장장이고 뭐고 서로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파업을 막아라. 하고서는 주인공에 돌 아니게 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건 한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죽어야 하고' 했습니다. 일체를 놔라! 맡겨놔라! 어디다 놓느냐? 내가 있으니깐 바로 상대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으니깐 일체가 있고, 천지와도 직결돼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가발전소가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밝은 자가발전소! 그래서 여러분의 자가발전소는 이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면 발전소에서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도 않고 이쪽에서 끌어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전력이 옵니다. 하지만 그 전력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일체의 생활이 참선이라고 합니다. 몸을 꿇어앉아서 해야만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다 놓게 되면 그것이 좌선이며,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주관적인 내 중심이 없이 그대로 공(空)에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고 편안한 마음도 편안치 않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도 맡겨놔라, 일체를. '일체'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 또는 우환과 병고 같은 모든 일체 말입니다. 일체 생활을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놓고 가시라. 이것이 바로 방하착이며 이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죽어야 한다하는 것은 바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말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놓고,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참 좋다 할 때는 감사하게 놓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는 고정됨이 없으니 '그것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밖에는 길을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놓고, 이렇게 해나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뿐이라고 말로 집어서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각자 내가 아니면 누가 있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는 근본을 의지하고 맡겨놓는 것 외에 나를 따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안되었다' 하는 생각에 갇혀서 후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안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주인공의 나툼이구나 하고 믿고 돌려놓는다면 금방 그 마음이 자취도 없이 화해서 바뀌어 집니다. 그러니 그릇을 항상 비우면서 참나 생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권한대행 총무원장 정혜안
원로원장 : 양지은 원로위원 : 전파옹, 김정현
감찰원장 : 장혜운 문화원장 : 황보현

총무원
총무부장 장보일 재무부장 허지웅
교무부장 박보산 규정부장 신지담
사회부장 이법전 포교부장 박보민
총무국장 송보혜 교무국장 강보연
재무국장 박정혜

각교구종무원
서울 채정수 인천 박보산 경기 김보인
부산 황덕규 충남 한보각 광주 허지웅
전남 최보담 경남 김보경 울산 김청운
경북 정호진

종회의장 : 남지산 부 의 장 : 이보운 허지웅
사무국장 : 편보성
상벌위원장 : 이보운 선관위원장 : 김보경

▶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칠보정사
전화 : 055)883-7771 · 7790 / FAX : 055)882-9916

대한불교 조계종
낙 산 사
주 지 지 홍
대 중 일 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TEL : 033)672-2448
FAX : 033)671-1445

사자산 적멸보궁
법 흥 사
주 지 도 완
대 중 일 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TEL : 033)374-9178
FAX : 033)374-9176

대한불교 조계종
건 봉 사
주 지 정영도
대 중 일 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TEL : 033)682-8100
FAX : 033)622-5994

"엄마, 미술관이 즐거워요"

국립 현대미술관 '우리가족 미술여행' 큰 인기



'엄마랑 미술관에 갔다. 무슨 그림을 봤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엄마는 감상문을 쓰라고 하신다. 무얼 쓰지? 미술관은 정말 따분한 곳이다'

모처럼 가족이 함께 미술관에 갔지만 혹시 아이들이 일기장에 이렇게 쓰지는 않을까?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오광수) 어린이 미술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작품을 보고 만들기도 하는 '우리가족 미술여행'을 열어 놓았다. 1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00 가족 모집에 450여 가족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 들어 가장 추웠던 3일. 오전 10시부터 엄마,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다섯 가족이 한 조가 돼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담당 선생님과 함께 미술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어린이 미술관에 전시된 또래들의 그림과 화가들의 작품을 본다. 백남준의 '선', 앤디 와홀의 '자화상'을 앞에 두고는 엄마 아빠들의 질문이 더 많다. 사실화부터 반구상화, 추상화에 이르기까지 그림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듣지만 정작 아이들은 작품을 보고도 알쏭달쏭한 얼굴이다. 그래도 정점식씨의 '바위와의 대화'란 추상화를 보고는 "저건 바위그림이야"라고 단번에 맞춘다. 한 시간 가까이 전시실을 돌아보는 일이 계속 되자 드디어 아이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다. "엄마, 그림은 언제 그려요?"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고 다시 어린이 미술관에 모였다. 오늘은 배추와 연근, 털실과 색모래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꼴라주 기법의 판화를 찍는다.

아이들이 정한 주제도 '숲 속의 아파트', '사탕나라', '해저도시' 등 다양하고도 기발하다. 지윤이(과천 관문초등 1)는 매일 힘들게 청소하는 엄마를 위해 '청소하는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에 풀이 묻고 색모래가 날려도 마냥 재미있고, 깻잎이나 은박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어린이 박물관 강사 박준수씨는 "재료를 보고 만지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개발되므로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냥 둘 것"을 권한다.

부지런히 재료를 오리고 붙이는 아이들 곁에는 아이의 작품을 넣을 액자를 만드는 엄마들의 솜씨자랑이 한창이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색모래와 셀로판지가 신기하기는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딸아이의 액자를 만들던 이주연(37)씨는 "그동안 미술관에 자주 왔지만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하기는 처음"이라며 "미술관도 재미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아이보다 더 좋아했다.

"미술관도 재미있는 놀이터"
아빠·엄마 손잡고 미술품 감상
"털실·배추로도 그림 그려요"

여성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2002년을 뛰는 불교여성단체

2000년 창립 이후 정체성 확립과 조직 강화에 힘써온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은 지난해에 이어 여성불교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여성 지도자 배출을 위한 리더십 개발 교육에 집중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일반과정과 지도자과정으로 나누어 대중성 확보를 시도한다. 또 사찰 신도회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담은 '여성불자신행가이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불교식 장례문화와 제사의식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어 수행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만들 방편을 모색한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소장 김묘주) 산하 행복한가정상담소는 '정부 인증 100시간 상담원 교육'을 실시해 전문 상담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혼예방센터에서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초청해 이혼 예방과 올바른 가정상 정립을 위한 세미나와 가족음악회를 연다. 또 서울 강남과 강북 지회를 개설해 활동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부산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 지역 6개 종단 여성 지도자들이 작년 12월 결성한 '부산종교인 여성협의회'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여성불교단체(회장 홍영선)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주여성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법회를 열 예정이며 단체의 법인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붓다클럽과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연계해 2002 월드컵 자원봉사단을 구성, 봉사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독거노인 음식공양과, 양로원 목욕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불교 여성개발원 **신도회와 연계 가정을 수행공동체로**

부산 여성불자회 **부산 아시안게임·월드컵 성공 기원**

제주 여성불교단체 **법인등록 추진·독거노인 음식공양**

청소년 단신

스트레스 무용치료 강좌

우리는 선우에서는 17일부터 '무용치료' 강좌를 연다. 무용치료란 신체 움직임을 통해 자기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감정과 정서를 순화하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 5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회에 1만원이다. 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우리는 선우 법당에서 진행된다. 02)2278-8672

강아지 소재 어린이극

예술의 전당에서는 '겨울방학 우수 어린이 연극 시리즈'로 강아지를 소재로 한 두 편의 연극을 자유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한 권정생씨의 동화를 연극화한 '강아지똥'은 강아지 똥이 자신의 몸을 녹여 민들레꽃을 피우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비언어 연극이다.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 4일부터 16일까지 공연한다. 매일 오후 2시, 4시(월요일 공연 없음)

극단 〈성시어터라인〉의 뮤지컬 '춤추는 강아지'는 1997년 서울국제어린이공연예술제 최고인기상을 받기도 한 작품으로, 애완견 센터 '강아지 천국'에서 못 생겼다고 따돌림 받던 누렁이가 사람들에게 사랑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표현했다. 19일부터 31일까지 공연. 매일 오후 1시, 4시(월요일 공연 없음) 02)580-1300

종로에 종이박물관 개관

고려시대 다라니경에서 조선시대 색봉투에 이르는 '종이문화재' 200여점을 전시한 종이역사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제성제지(회장 최낙철)가 창사 35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세운 이 박물관은 '옛종이류관' '간찰(簡札, 편지)류관' '교지(敎旨, 임금의 명령)류관' '생활문화관' '지공예관'으로 구성돼 있다. 1월까지는 예약을 해야 관람할 수 있다. 02)3672-1188

무료 토요영화 감상회

국립현대미술관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미술관 대강당에서 '토요영화감상회'를 열고 있다. 이 행사는 연중 계속될 예정이며 1월에는 '국제영화제 수상작품전'으로 5일 '포레스트 검프', 12일 '글레디에이터', 19일 '어둠 속의 댄서', 26일 '샤인'을 상영한다. (031)2188-6065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불교와의 첫 인연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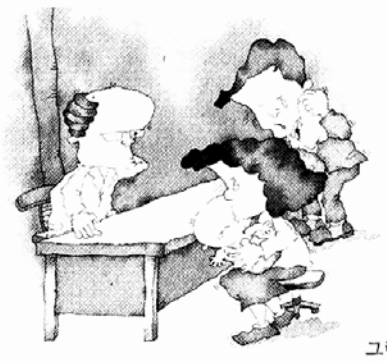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청천벽력 … 둘째아이 불치병 진단
큰스님 행장기 읽고 평온 되찾아

나는 결혼을 하고도 오랫동안 아기 가지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껴왔었고 그런 생각이 결혼 후에도 일정기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는 첫 아이 서윤이를 낳았다. 서윤이는 참 이쁘고 총명하게 자라주었다.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서윤이를 보면서 둘째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1991년 7월 16일 둘째 아이 정여가 태어났다.

정여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부에게 엄청난 슬픔을 안겨 주었다. 몸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우리 부부는 밤새 울었다. 태어난 아기를 보니 간밤에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정상에 가깝게 태어났다. 단지 머리만 상대적으로 크고 머리카락이 좀 더 많고 길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성장과 발육이 정상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자주 큰아이의 머리둘레와 작은아이의 머리둘레 심지어는 나의 머리둘레를 재어보고 비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느라 부지런히 서울로 다녔기 때문에 아기의 성장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끝나고 울산에 도착한 날 밤, 집사람이 내일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자는 것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담당의사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연골무형성증이 의심되니 서울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얼마 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 참석을 겸해 서울로 와서 아기의 정밀 진단을 받았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 온갖 시험용 주사를 놓고 동굴 같은 촬영기에 아기를 넣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팠던 기억은 지금도 도저히 글로 쓸 수가 없다. 며칠 후 결과를 확인하니 역시 연골무형성증이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이 병은 머리가 앞뒤로 지나치게 크고 손가락, 발가락 등이 짧으며 성인이 되어도 키가 120~13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병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방법은 없다고 한다.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었다. 울산에 돌아오고부터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쳤다. 집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 역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집사람은 점점 더 매사에 의욕을 잃어 갔으며 급기야는 아파서 드러눕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윤병국 교수님을 통해 한마음선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연구실을 찾아오신 바로 그날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을 방문해서 혜안스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나는 스님께 집에서 아파 누워있는 집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눠주실 수 있는지를 여쭈었다. (계속)

김규년(울산시 남구 무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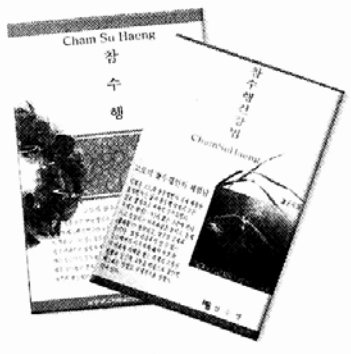
도서출판 참수행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

참수행과 참수행 건강법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참수행

삶과 죽음, 온갖 번뇌 망상과 괴로움, 이 모든것을 초월적 참수행으로 말끔히 해소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는 목적이 있다.



각권 10,000원 / 률정지음

도서출판 참수행

TEL : 02-2244-6002 HP : 011-707-6002

http://chamsuhaeng.pe.kr

http://chamsuhaeng.co.kr

E-mail : champyc@chamsuhaeng.pe.kr

권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권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破門(絶緣) 公告

梵魚寺 淸風堂 仁覺師

위 사람은 所爲 師僧인 본인과 이미 오래 前부터 僧伽와 宗團形成의 基礎秩序에 根源이 되는 最小單位인 師第間에 位階秩序마저 餘地없이 破失되었음에도 不拘하고 본인은 累年間 長考하여 왔으나 不得已 今般에서야 破門絶緣을 斷行하기에 이르렀음으로 이 事實을 公告합니다.

2001年 12月 31日

梵漁寺內院 釋能嘉 合掌

간 헛개나무 열매로 간염치료!

(MBC 9시 뉴스데스크 2001년 2월 26일 보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

- 헛개나무열매 입증 발표



2001.1.30 MBC 9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2001.1.30 SBS 8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2001.1.30 SBS 신물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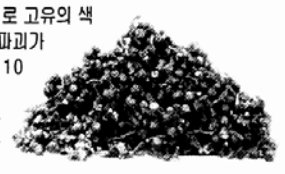
숙취와 위장에 좋은 헛개나무열매(지구자) 해장국

나천수 박사(산림청 임업연구원 박사)
간기능을 회복시켜서 간염이나 지방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과정

원재료 및 성분 배합 비율 : 헛개나무열매(지구자) 95%, 줄기 2%, 잎 2%, 칡 1% - 국내산 100%

헛개나무 열매(지구자)를 무색소 무방부제 무청가물을 특수가공 추출기로 고유의 색상과 맛을 유지하면서 성분 파괴가 되지 않도록 온도 약 100~110가 넘지 않게 6시간 이상 달여서 100mg씩 포장, 1달분 60포로 주문 판매 및 통신판매를 한다.



헛개나무열매(지구자)

자료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 · 문의전화 041-852-0468
041-852-0469

민속식품(민속농원)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㉗

•금강법 보살 수인•



1. '이' 소리를 내면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며 앞으로 내밀면서 서서히 손을 어깨 양옆으로 편다.
2. '뭐' 하며 단전을 수축하면서 재빨리 왼다리는 구부려서 오른다리 무릎에 붙이고 손은 하품하생의 자세로 가슴 앞으로 가져온다.
3. '꼬' 하면서 다리를 내려놓



'이' '뭐' '꼬' 외치며
손과 발 움직여

고 발꿈치를 들고 두 무릎을 쭉 편다.

4. 다시 '이' 하면서 발꿈치를 내려놓고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옆으로 서서히 밀며 중심이 동을 한다. 이때 팔은 어깨 양옆으로 쭉 편다.
5. '뭐' 하면서 단전을 수축하면서 재빨리 오른다리를 구부려 가져와서 오른다리 무릎에 붙이며 손은 하품하생의 자세로 가슴 앞으로 가져온다.
6. '꼬' 하면서 오른다리를 앞



으로 서서히 편다. 발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뒤쪽으로 끌고 온다.
7. 발꿈치를 들고 서 있다가 서서히 발바닥을 바닥에 닿게 하면서 손은 하품중생의 자세로 가슴 앞에 둔다.

당신도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예상 수명 계산해 봅시다

하버드대 토마스 펄 교수
23개 예측 항목 제시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5.9세. 유아사망, 교통사고 사망 등 돌연사가 평균 수명을 깎아 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사람'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훨씬 웃돈다. 그러면 내 자신은 몇살까지 살 수 있을까. 신이 아닌 이상 자신의 수명을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수명을 예상할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9년 토마스 펄 교수(하버드 의대)가 편찬한 '100세까지 살기(Living to 100)'라는 책을 보면 생활습관과 주거 환경을 토대로 한 23개 항목<표 참조>을 뽑아 자신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정확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수년간의 임상실험을 통해 만든 자료이므로 건강 지수를 알아보는 근거로 삼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것 같다.

이 책에서 펄 교수는 "인간의 스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운동, 술, 담배, 식생활 습관, 성격 등"이라며 "이들 요소와 관련된 생활방식에 따라 예상수명이 수십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금연하면 10년 더 살아
하루 20분 걷기 5년 연장
식생활 · 성격 '중요 변수'

수명 예상 계산법은 운명을 점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건강과 수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평소 생활습관 중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가 더 크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이상 일찍 죽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임상결과나 통계로 볼 때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은 10년정도 수명이 짧을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다.

건강 앞에선 누구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우선 자신의 예상 수명을 알아보고 새해부터라도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없애 나간다면 반대로 그만큼 수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분좋은(?) 기대를 가져보자.

결과가 나왔다면 혹자는 자신의 예상 수명이 적어 실망 했을 수도 있다. 또 어떤이는 예상 수명이 실제 나이보다 적게 나와 이 수명 예상 계산법을 믿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략의 예상 수명을 안 이상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미국 시카고 프리츠크의대 마이클 로이젠 교수가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한 젊게 사는 건강법을 실천해 보는 것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의 한 방편일 것 같다.

건강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그림 · 최주현

• 로이젠 교수의 젊게 사는 비법 •

△담배를 끊으면 10년 이상 젊어진다.

△치아 ·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6.4년 이상 젊어진다.

△3박자 운동(유산소 운동, 근육운동, 지구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9년 젊어진다. 하루 20분씩만 걸어도 5년 젊어진다.

△건전한 성생활을 즐기면 1.6~8년 젊어진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을 적절히 다스리면 생명이 12년 연장된다.

△지적 활동을 하거나 평생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면 2.4년 젊어진다.

△심한 스트레스는 최고 32년까지 사람을 늙게 만든다.

수명 예상 계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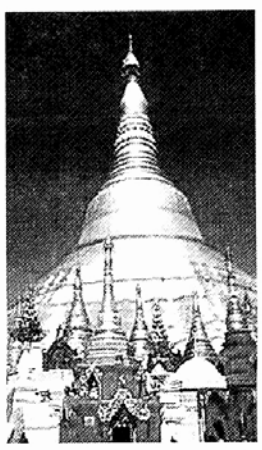
1. 담배를 피우거나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①예(-10) ②아니오(0)
2. 일주일에 두개 이상의 햄버거, 샌드위치, 소시지를 먹는다.
①예(-3) ②아니오(0)
3. 생선과 고기를 까맣게 탈 때까지 조리해 먹는다.
①예(-2) ②아니오(0)
4. 버터, 크림, 기름에 튀긴 음식은 물론 기타 포화 지방산 섭취를 피하고 있다.
①예(+3) ②아니오(-7)
5. 고기를 가급적 피하고 과일, 야채 등을 많이 섭취하려고 한다.
①예(+5) ②아니오(-4)
6. 맥주, 포도주 등 주류를 과다하게 마신다. (표준 주량은 355 cc 맥주 한 병, 148 cc 와인 한잔)
①예(-6) ②아니오(0)
7. 맥주, 포도주 등 주류를 적당히(하루에 1-2 번, 각각 표준 주류양) 마신다.
①예(+3) ②아니오(0)
8.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기가 나쁘다.(오염 주의보가 발생할 정도로)
①예(-4) ②아니오(+1)
9. A. 하루에 커피콜 437.6 cc 이상 마신다.
①예(-3) ②아니오(0)
B. 대신 매일 녹차를 마신다.(하루 3잔 이상)
①예(+3) ②아니오(0)
10. 하루에 아스피린 1알을 먹는다.
①예(+4) ②아니오(0)
11. 매일 치아 사이에 낀 치석들을 제거한다.(3회 이상 양치질)
①예(+2) ②아니오(-4)
12. 2~3일(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한 번 정도 대변을 본다.
①예(-4) ②아니오(0)
13. 암을 일으키는 HIV나 바이러스에 접촉될 확률을 높이는 위험스런 성행위 혹은 마약 관련된 행위를 한다. ①예(-8) ②아니오(0)
14. 일광욕을 자주 한다.
①예(-4) ②아니오(+3)
15. 집안에 콘크리트나 시멘트에서 나오는 라돈(radon)과 같은 방사능 물질에 위험할 정도로 노출돼 있다.
①예(-7) ②아니오(0)
16. 몸무게 지표(체중(kg)÷키를 미터로 환산해 두번 곱한 값)는 얼마인가?
①18보다 작다.(-7) ②18~26 (+2) ③27~29 (-7)
④30~34 (-10) ⑤35~39 (-15) ⑥40이상 (-25)
17.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가족(배우자나 독립하지 않은 자녀를 제외한)이 가까운 곳에 산다.
①예(+5), 아니오(-4)
18. 다음 중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A. "스트레스가 나를 초조하게 만든다. 나는 이를 떨쳐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예(-7)
B.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 기도, 운동, 명상, 유머 등의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예(+7)
19. 직계 가족(부모, 형제, 자매) 중에 적어도 두 명 이상 당뇨병을 앓는다.
①예(-4) ②아니오(0)
20. A. 부모 모두 사고가 아닌 이유로 75세 전에 사망했다.
①예(-10) ②아니오(0)
B. 아니면, 부모 모두 (아니면 한 쪽이 75세 전에 사망했다면 그 중 한 분이) 75세에 이르러 매일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①예(-10) ②아니오(0)
21. 90세 이상 건강하게 사신 분이 친척(부모, 삼촌, 조부모) 중에 적어도 두 분 이상 있다.
①예(+24) ②아니오(0)
22. A. (정기적인 운동 없이) 소파에만 앉아 있는다.
①예(-7)
B. 매일 20분 이상 운동한다.
①예(+7)
23. 비타민 E를 매일 복용한다.
①예(+5) ②아니오(-3)

▲계산방법
· A와 B로 된 항목은 하나만 답한다.
· 모든 + 점수와 - 점수를 더한 뒤 이를 5로 나눈 값에 남자는 84세, 여자는 87세를 더한 수가 자신의 예상 수명이다.

성지순례
미얀마

'불교는 미얀마인의 영혼'이라는 말이 있다. 미얀마인들에게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따라서 미얀마에는 유적의 대부분이 불교와 관련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탑'은 미얀마 불교 우적의 꽃과 같다. 미얀마에서 가장 유명한 탑은 쉐다곤파고다. 이외에도 양곤의 까비에파고다, 파간의 쉐지곤파고다, 만달레이의 쿠도도파고다, 마하무늬파고다, 차욱팟지파고다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미얀마의 상징인 쉐다곤파고다.

혜초여행사 6박 7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기획

혜초여행사는 6박7일 일정으로 미얀마를 둘러보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서울을 출발해 양곤, 파간, 만달레이 등 미얀마의 주요도시에 있는 불교 유적을 답사한다.

특히 까비에파고다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를 연다. 돌아오는 길에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 들러 파라시사원, 왓야이차이몽콜 사원 등도 방문한다. 경비는 189만원. (02)733-3900. www.hyecho.com

활인(活人) 천역(天役者)자 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

명예와 양심을 걸고 역학사(易學史)에 한 획을 긋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오행을 모르는 분을 위해, 오행에 능통한 분을 위해,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썼습니다. - 효 사 -

세태 (世態)는 구체적이고 즉시적인 영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묻기전에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매시간마다 적혀 있어 거기에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의 자세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육임은 신통(神通)한 학문인데,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아나 접근이 어려워 덮어버리기 십상인데, 그것을 쉽고 빠르게 활인천역자용으로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낮 사(巳)시 (9:32 -11:32 :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칸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만하면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고 또 적중하는 것입니다.

1. 운세판단 :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수법가부 : 천도 시식 굿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래방목적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러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4. 정황판단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초사(初辭) : 문에 들어서자 말자, 전화 오자말자, 가서 만나자 말자 때뭄 내쏟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6. 모망가부 :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보고 말해줄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이해득실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를 즉시 판단 하여 말해 줄수 있게끔 써 놨습니다.
8. 선악구별 :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이타발동(我他發動)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원근사 여부 :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미기사(未旣事)여부 :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12. 일의 과정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이 시작 · 중간 · 결과로 나뉘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귀신침범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칸에 다 써 놨고, 그 귀신을 제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쟁터에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밝힐 수 있는 비법으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14. 산소탈 여부 :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화부칠 수 있도록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조부, 조모, 부친, 모친, 형제자매, 숙부, 외조부, 외조모 장인, 남편, 아내, 낙태아 등으로 걱시되어 있습니다.
15. 사승여부 :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띠만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든 띠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가상길흉(家相吉凶)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길방 :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 놨습니다.
18. 소송승패 :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수상 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 · 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9. 응기판단 :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서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혀 놓았으므로 이를 보시면 참으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20. 가해(加害) : 어디 방위에 사는 남 · 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21. 길흉성부단정항목 :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담번해 줄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모망 · 공명 · 구재 · 구직 · 시험 · 혼사 · 임신 · 가정 · 이사 · 소송 · 질병 · 매매 · 출생 · 도난 · 심인 · 대인 · 상면 · 채용 · 투자 · 승부 · 가격 · 경작 · 묘지 · 기후
22. 연명상신법 : 뒷면에, 그 사람 띠만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빈한지사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등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 육임학회 각지회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책을 보실 수있고 활인기법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육임강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016-227-7074 (토요일) 전남 · 광주 017-614-1130 (화요일) 경기 · 인천 032-549-6633 (월요일)
경남 · 부산 011-558-5496 (일요일) 충남 · 대전 016-445-4580 (화요일) 경기 · 수원 016-745-4703 (목요일)
경북 · 대구 011-530-6652 (월요일) 충북 · 청주 221-2557 (수요일) 경기 · 북부 011-9022-4452 (금요일)
전북 · 전주 011-650-8835 (수요일) 강원 · 원주 017-377-7005 (금요일) 제주 064-723-2435 (토요일)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 칸칸마다에 시간별로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빼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이 오든, 전화가 오든, 가서 만나든 몇 시로 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와도 모두 다르게 구별 할 수 있도록 다 적혀 있습니다.

● 전 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광 ● 주문전화 : (02) 993-8680
● 입 금 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복문 ※ 각종 카드로 장기 분할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부록 · 비디오테이프 포함
₩1,300,000원 (일백삼십만원)

육임 1년 신수비결 출시 주문받습니다.
값 250,000원(1,450페이지, 8절 미색모조)이고, 보는 날짜와 시간만 찾아 그것을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적중합니다. 띠별 월별 길흉이 신통하게 적혀 있어 평생동안 매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규격 50.000원 / 구인 · 구직 규격 4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사찰관리(신도관리)
· 능력있는 분 우대
▷서울 홍은동
여행자 구함
02)395-12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 미만
031)885-01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대~65대 (김해)
055)337-9230
011)858-9210

고급 보이차
廣雲貢餠 · 七子鐵餠
外 각종 보이차 전문
017)406-6682

조계종 미륵당 고불사
• 석조여래 약사대불 본당
• 서울교당 불지촌
• 기체험 기치료 인생상담
041)566-0358
02)3444-4376
역학, 선체조, 기공문도 모집
www.bulljichon.com

천하 제일 사찰
서 원 사
주말 철야 참선 법회(기공강좌)
대중모집
천일기도 동참 받음
주지 자하(한산)
경남 창원시 대산면 유등리 207-1
055)291-6405

韓國佛敎海外傳法會
해외전법포교 연수 수행체험을 원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서울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경동빌딩 602호
전화 02)3672-5042
팩스 02)3672-5043

오참법수행
업장소멸로 청정한 자성을 봄
영가로 인해 난치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병식 영가천도로 완치 자신 함.
※ 바른 수행 설법강좌
- 진정한 수행자의 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0
호동골토굴017)859-1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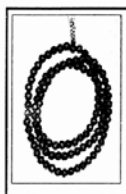
흑단(천연목)염주를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천주, 백팔주, 단주, 합장주 =
덕 림 산 방
◇ 주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 2리 552
◇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강릉
033)648-4579
018)560-10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아산 보문사
041)545-6531
011)422-6757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016)470-8741

절에서 사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제주도
064)713-2553
011)699-4842



벼락맞은 벽조목 염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 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단주,인감도장등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서원합격,결혼성취,부부화합,사업번창,건강쾌차,매매,사고예방,취업,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주십시요.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 011)9585-4908
염주 大 12만원,中 6만원 단주 6만원, 인감 5만원
농협703088-52-037905 이만택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문답집 『잎뜰에 국화꽃 곱고 북신에 첫눈 희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취모검과 같이 예리한 지혜검의 휘두름, 근기에 응하여 모지람이 없는 지재한 답변에 묵은 갈증이 해소되는 통쾌함을 맛볼 것입니다.
전강, 경봉, 숭산, 묵산 선사님들과의 명쾌한 문답이 실려 있으며 중앙일보의 〈한국불교의 큰스님 선문답〉 열 분의 기사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법답을 함께 실었습니다.
☞ www.zenparadise.com
값 5,000원
☎ 02-522-0122 도서출판 바른북스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정진,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사찰(관),절터 안내

▶절 터◀	▶절,토굴◀
• 울산 언양 1,500평 7,500만원	• 부산 해운대 1,500평 -10억
• 경남 양산 600평 1억 2,000	• 경남 고성 1,000평 -1억 1천
	• 울산 언양 1,100평 -2억 6천

• 양도를 원하시는 분 즉시 전화주세요 절대 보안유지
현대풍수부동산써브
018-563-9575
(www.pungsu-serve.com)

임대사무실 안내
• 위치 : 덕천동 백량산 밑 한국통신 전화 후문
• 평수 : 2049평, 방 3개, 주방 1대(10평)
• 가액 : 전세 보증금 1,500만원 권리금 600만원
(권리금은 직접만나서 가액 절충)
• 주차시설 완비, 주차비완전무료
• 포교당도 가능
016)836-2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부산)
▷ 봉고기사 모집합니다.
051)542-4630

◇ **구운마늘환** ◇ - 특허품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 7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6만평 도량안에 부지 2000평 동강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 백호가 뚜렸하며 연꽃안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고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 조경이 잘 되어 있음. 천탑 천불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 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건강관계로 급 안내
• 가액 : 2억 5천만원(답사 후 절충)
033)378-0555/018)223-2102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3층
• 평수 : 35평
• 법당, 방 2개 주방 1개
• 보증금 :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 절충가능
011)221-3186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 부지 : 863평
• 주택으로 지목변경 완료
• 차량진입 가능
• 가액 : 평당 5만원
011)564-9016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 사선 삼천포 10분거리
• 부지 65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 40평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 가액 : 2억
011)8528-1686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427-6644~5

사 찰 안 내

• 위치 : 의정부	• 위치 : 수원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법 당 : 20평	• 법 당 : 15평	• 법 당 : 27평
• 요 사 : 30평	• 요 사 : 35평	• 요 사 : 30평
• 부 지 : 790평	• 부 지 : 310평	• 부 지 : 230평
• 가 액 : 6억 4천	• 가 액 : 3억 5천	• 가 액 : 2억 8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전포동 부산전철 역
• 3층건물 3층 약 120평
• 법당 70평 외 방 5개
(살림방 및 공양간 시설 일체 완비)
• 불교대학 및 강좌시설 가능
• 부처님만 모시면 불공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상담 후 절충
011)843-567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근교
• 법당, 살존불, 지장 108불 교통 및 조건 최적
• 평수 45평
• 큰방 2개, 대형 응접실, 주방
• 부산 포교적지, 샤워시설 주차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2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800만원
011)563-4454
051)552-4454

사찰 터 안내
• 위치 : 김천시 관내
(사찰허가 필)
• 부지 900평 중 대지 200평
• 가액 : 6천만원
답사 후 절충 (구 절터)
011)808-8370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불교관련 전문 대출기관 -
● 사찰 매매잔금 대출
● 불사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053)426-1037
011)527-1037
(서서열 전무)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시 근교
● 대 지 : 900평
● 법 당 : 40평(목재)
● 요 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산세수려하고 계곡 좋음
※ 사회복지 법인 (실버타운) 및 서울소재 근사찰 인수찰 분
※ 인수자금 : 8억필요
● 기타사항은 전화문의 요망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임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계명산
• 대지 : 250평
• 법당 : 30평, 2층 정자 30평
(요사채겸) - 조립식
• 가액 : 임대료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1800만원
• 특징 : 교통편리, 장승확보(다량) 법당안 그림 100여점(달마그림)
043)847-254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에서 30분거리 (경북 고령)
• 대지 : 476평
• 건물 : 법당 - 37평, 요사채(1층, 2층) - 148평 (요양 및 수련시설)
요사채(별도) - 17평
• 부속토지 : 전,답 - 1,500여평
• 금액 : 3억원정
016)504-3394
054)954-2450 김영화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 용도 : 사찰 및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관악산 사당역 부근
• 자연녹지 주거지역
• 가액 : 평당 25만원
011)241-0408

사찰 양도 안내

• 위치 :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부근 지장건물 2층	• 위치 : 성남시
• 임대평수 : 40평	• 부지 : 3000평
• 법당 : 삼존불, 지장전, 신중, 산신, 칠성	• 법당 : 10평
• 방사 : 3개, 화장실, 욕실, 도시가스	• 요사 : 15평
• 보증금 : 2천 5백만원 • 월세 : 70만원	• 산신각 : 3평
• 시설비 : 절충가	• 매가 : 4억원
• 특징 : 교통편리지역, 인구밀집지역, 기도영험도량	• 특징 : 1)주변경관수려함 2)깨끗한 제곡물 흐름 3)증개축이 가능한 곳임, 대중교통 인접지역

사찰정보센타 **금강기획** 전화 : 02)736-3578~9 fax : 02)736-3589 휴대폰 : 011-789-225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 평수 : 242평
• 건물 4동
(요사채 2동, 산신각, 대웅전)
• 가액 1억
055)391-5369
016)772-5369

경주 토암산 토굴암
• 인법당 15평
방 2개, 산신각 별도,
용임당 별도
• 주방, 화장실 수세식, 기름보일러
• 건평 30평, 총 면적 163평
• 주차가능, '급' 전세, 매매도 가능
016)836-2664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악 5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6천
011)9756-4845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 부지 : 1700평(종교용지, 답)
• 법당 : 25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5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특징 : 산새와 계곡이 어우러진 청정도량으로 기도정진 할 도량과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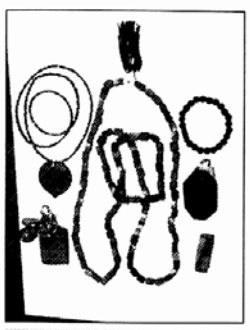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읍 소재
• 부지 : 75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2억원
• 특징 : 도심인근 사찰로 포교지로 좋습니다.

동령불사 전국소재 사찰, 임자, 포교당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전화 : 326-1060, 대구 053)283-9698, HP 011-817-2836

포교당 안내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79-3 화성상가 202호 (영통지장선원)
• 실평수 20평(보증금 2천만원, 권리금 2천 5백)
전화 031)214-6416
팩스 031)214-641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롯데 백화점 부근
• 평수 5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5백만원
018)567-3217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 수익금은 홍련암 불사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벼락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기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을 주는 보물 **진품 벽조목**은 수百年 묵은 大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年 7月 하순경 벼락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거리,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등, 집을 짓고 고친 후, 정신질병, 손재, 혼수 호신부 패물 부적 성불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재앙, 액운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홍련암 공덕하 법사 ☎ 02)985-1360 011-9778-2803

임오년 입춘 삼재부 다라니 보급안내



소승이 수십년간 다라니부 사경으로 나누어 지닌 분들이 가피를 얻어, 금번 임오년 입춘을 맞이하여 삼재 소멸부 다라니를 각사찰 주지스님께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맥파 달마스님(13×15)도 경명으로 조성하여 드립니다.
▶ 주문시 : 5백장, 1천장...(1장당 천 5백원)
• 문의전화 : 031)334-0321 / 018)572-2016
• 온라인 우체국 : 102301-06-005928 예금주 박호재
다 라 니 수 호 회

사찰 안내
• 부지 중 : 4100평
토목공사 완료 약 1000평(종교부지)
조경완료 도로 작업 중
• 특징 : 영동고속도로에서 3km인접한 지점에 만가가 없고 1급수 계곡이 흐르고 벼락바위가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청정도량 임
산중같은 아늑하고 포근한 지역임
• 가액 : 2억 3천만원
011)321-0194

고질적인 신병 완전 퇴치!
육도윤회 중 축생도(뱀, 개구리, 호랑이, 공작, 개등) 삼라만상 온갖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내 부모 형제 자식 아닌것이 없음을 배우고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 연락바람. (인과응보 공부)
011)9147-9303 · 032)519-1086
인천 심원사
※ 어떤 신병이든 무조건 완치



◇일본 나고야시 주민들이 조직한 '화쟁사 후원회'를 비롯, 가토 형제와 인연을 맺은 한국 물자들이 마음을 모아 화쟁사 건립이 나섰다. 사진은 지난 11월 기공식을 마친 후 한국 원효종스님들과 기념촬영한 가토 마싸오(왼쪽에서 첫번째), 미쯔오(세번째), 박상규(네번째)씨.

日형제의 대 이은 보은

패잔병 아버지 한국인도움 무사귀환 감사

나고야 인근 한국식사찰 '화쟁사' 추진

대웅전등 소요건축 자재도 한국산으로

51년 전 일제 패망당시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한 일본인 가정이 세대를 넘어 자식대에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아버지를 구해준 한국인들에게 보은하고 한국인강제 징용자들에게 참회하고자 한국 사찰인 '화쟁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65살의 가토 미쯔오씨와 동생 마사오씨 형제.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일본 나고야시 치타반도 남쪽마을 언덕 3천여평의 부지에 한국식 대형사찰을 짓고자 터다지는 공사를 한창 진행중이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일본 사회에 널리 구현할 목적으로 건립되는 화쟁사는 70평의 대웅전을 비롯 명부전, 삼성각, 일주문, 종각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건축자재를 모두 한국에서 가져다 쓸 방침이다. 또한 태평양전쟁으로 일본땅에 끌려와 희생된 채 전국 사찰에 보관중인 유골들을 15m의 대일여래불상의 지하에 납골안치하고 위령천도할 계획이다. 불상은 목아불교박물관에서 제작중이다.

가토 미츠오씨는 "아버지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한국사람 덕분이다. 그 덕에 너희들도 태어날수 있었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일본 땅에서 숨진 한국인 유골을 모실 절 지을 것을 유언했다"며 화쟁사 창건동기를 밝혔다.

군인이었던 아버지 가토씨는 태평양전쟁이 끝난 지난 1945년 병환으로 퇴각대열에 끼이지 못해 한국에 남게 됐다.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뻔 하기도 했지만 어느 이름모를 함경도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늘 빚진 마음으로 살던 아버지 가토씨는 당시에 희생된 한국인 유골들이 일본내에 방치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모실 절을 짓기로 하고 돈을 모았다. 그런데 절터만 사놓은 상태에서 지난 81년 임종을 맞았고, 자식들에게 이 사업을 유언으로 남겼다.

하지만 그 뒤로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공사비 10억원을 사기당해 착공도 하기전에 사업을 중단해야 했고,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땅을 팔도록 유혹해온 부동산업자도 많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나고야 주민들이 '화쟁사 후원회'를 조직하고 "(징용됐던) 한국인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일본인들의 손으로 절을 짓자"며 모금활동에 나서는 등 모두가 자기 일처럼 사찰건립을 돕고 나섰다.

그동안 가토 미츠오씨는 이 사업을 위해 수차례 한국을 다녀갔다. 한국식 절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계사 등 국내 유명사찰은 모두 둘러봤다. 소문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시형 박사가 중심이 된 '태평로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다. 가토 형제는 부지 한켠에 한국식 임시법당을 마련해놓고 선친의 유언이 이뤄지도록 매일같이 불공을 드리고 있다.

화쟁사 건립추진위원(한국측 대표)인 박상규 원효종 사무국장은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 스님이 원효성사"라며,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을 선양할 화쟁사 건립은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국가적 행사에 앞서 민족간 화해와 불국토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사찰에서 만든 토종 메주를 주문받습니다.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첨시리가 내려하는 음력 10월이면 해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갑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분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해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정진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콩해주는 영주에서 재배한 100% 무리콩을 기아솥에 넣어 장작을 때고 실이 나무틀에 넣은 다음, 손으로 디자내어 햇볕과 바람 자연으로 만든 트락에서 정성껏 말리고 발효시킨 자연발효 엣날 메주입니다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복해주로 담근 된장을 13년째 판매하고 있는데, 드셔보신 분들이 항국같을 투입한 개량메주의 달콘한 맛보다 옛 뚝배기 맛이 그대로 배어 있어 아주 맛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정성으로 만든 된장이 혹안 밥맛을에 젊러 우리 몸의 기운을 돋구어 많은 불자님들께서 매주 분사이 요청하시어 부시감으로 저은 연장실이 시원하게 풀리길 발원합니다

◑ 생산지 포항 금장정사
◑ 메주 1말 55,000원
◑ 참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국간장 분말메주도 건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주 주문 연락처 : HP 011-203-6567 · 019-820-5587
포항 054) 261-2231 서울 02) 742-0172
부산 051) 514-3566 대구 053) 425-3063
울산 052) 245-0337 대전 042) 862-6638
창원 055) 299-5419 수원 031) 253-2677
군산 063) 452-7852 광주 062) 681-3268
강릉 033) 644-9009

진각학원 법인 설립위 구성

위원장 혜정대정사…심인당 주교 전보인사도

진각종은 구랍 27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제198회 원의회 및 인사위원회를 열고 (가칭)학교법인 진각학원 설립과 관련한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추진위원장에 혜정(교육원장), 법인설립분과위원장에 혜인(통리원 총무부장), 대학설립계획분과위원장에 수성(재무부장), 학교헌장제정분과위원장에 관증(교법부장) 대정사를 각각 위촉했다.

이와 함께 주교의 전보발령 및 기로스승(정년퇴임한 원로스승)의 포교활동을 명하는 교화발령도 단행됐다. 이에 따라 대구 보현심인당 주교에 기로스승 정심화 대전수가 임명됐으며, 인천 덕화심인당 주교에 덕혜 대정사, 서울 법륜심인당 주교에 덕정 정사, 대전 득도심인당 주교에 현수 정사, 대전 응화심인당 주교에 원주 정사, 양산 불일심인당 주교에 도홍 정사가 전보 발령됐다. 한명우 기자

'직지' 상권 금속활자본 복원

무형문화재 오국진씨 1년4개월만에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의 상권(上卷)이 복원됐다.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하권(下卷) 1권만 소장돼 있을 뿐 상권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청주시는 그동안 직지찾기운동본부 등과 함께 해온 직지 찾기 운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00년 9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금속활자 부문 중요무형문화재 오국진 씨에게 의뢰해 1년 4개월여 만에 〈직지 상권〉 금속활자 복원을 완료했다.

총 1억8000만원이 투입돼 복원된 〈직지 상권〉은, 1378년 여주 취암사에서 찍은 목판본을 토대로 금속활자를 주조,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을 각각 200부씩 간행했다. 이은자 기자

성불사 독거노인 돕기

충남 천안 성불사(주지 원경)는 지역의 독거노인 30명에게 구랍 31일 쌀 20Kg씩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성불사는 해마다 독거노인은 물론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지역의 불우시설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한명우 기자

목탁소리

템플스테이 사업비 10억

김 재 경 (취재1부 차장)

"몇 천만원으론 화장실 하나 만들기도 벅차요."

최근 조계종 포교원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을 신청한 '한 교구본사 스님의 말이다.

구랍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02년 월드컵 대비 전통사찰 숙박시설 활용지원(템플 스테이)비는 고작 10억원. 당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결의로 상정된 지원 예산은 35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25억 원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불교계가 추진 중인 전통사찰 개방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안의 축소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계종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찰은 20여곳. 한 사찰에 배정되는 예산은 5천만원 정도로, 사찰의 해우소나 샤워실을 개조 또는 신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민간자본 보조항목'으로 지정돼 사찰의 해우소나 샤워실 등의 개·보수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 템플스테이 예산은, 사찰에서 자부담 60%를 추가하도록 되어있어 불교계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업은 단순히 외국 관광객의 숙박난 해소를 위한 임시변통이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사찰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문화는 불교만의 유산이 아닌 민족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대변하기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문화상품이랄 수 있다. 국가 이미지, 또는 국가 브랜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도 템플스테이 사업이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불교계 역시 템플스테이를 한번에 끝나는 행사로 보기 보다는 종단차원에서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 한국 불교문화를 세계인에 홍포할 포교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게시판

▲어린이 겨울불교학교=통도사 일산포교당 여래사는 12~14일까지 '소중한 나의 가족'이란 주제로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를 연다. 강원도 자연학습원과 치악산 구룡사 등에서 여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4만5천원. (02)905-7766

▲무료급식 및 후원자=서울노인복지센터는 급식사업 및 현물, 식품, 생활용품 후원자를 모집한다. 사회교육, 취미여가, 의료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련된 후원을 할 수 있다. (02)739-9503

▲청소년·어린이 방학특강=부산시 양정청소년수련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어린이 방학 특강을 연다. 벌자리교실, 만화교실, 힙합댄스, 인터넷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051)868-0750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금강불교대학은 2002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 교법사과정, 천태학과 등으로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은 2월 5일까지. 전형은 1차 서류, 2차 면접으로 실시되고, 면접일은 서울 2월 20일, 부산 2월 23일. (02)576-6401 (051)808-0713

▲아동한문예절교실 무료수강생 모집=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겨울방학 아동한문예절교실 무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통예절, 사자소학, 사물놀이 등이 개설될 이번 교실은 은평구 거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입교식은 8일. (02)385-1351

▲불교사회복지전문과정 교육생 모집=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부설 불교사회복지대학에서는 불교사회복지전문과정을 개설, 교육생을 모집한다. 수업기간은 3월 ~ 6월(1학기)과 9월~12월(2학기) 등으로 총 1년 과정이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수강료는 학기당 22만원이다. (02)734-0612~3

상월스님 91회 탄신법요식

11일 단양 구인사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1일 오전 11시 총본산 구인사에서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제91회 탄신봉축법요식을 봉행한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의 증명아래 전 종단 스님들과 신도, 지역 기관장, 불자국회의원 등 3만명이 참석하여 상월원각 대조사 스님의 생애를 추모하고 유훈을 기리게 된다.

이경숙 기자

☞24면 '잊혀진 가람탐방'에서 이어짐

까마귀떼들이 군무를 펼치는 절 입구에는 둘레가 11미터가 되는 은행나무 고목 한 그루가 서 있다. 수령이 무려 1천살이 넘었다는데 역사도 주인도 다 떠 나간 뒤에 홀로 절을 지키노라 그 형색이 매우 지쳐보인다. 피곤하기는 석왕사 느티나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당당하던 대웅전 부처님도 전쟁 통에 전사하시고, 남은 전각조차 87년 큰 물 피해때 다 휩쓸려 갔는데, 간신히 남은 조계문, 설성동루(雪城東樓)를 지키느라 그 어깨가 늘어진 것이다.

안변의 석왕사를 지나친 것은 95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이다. 원산을 거쳐 고성을 향하는 길에 문득 석왕사가 어디쯤이냐 물으니 설봉산 너머 저 쪽 남대천 상류에 있단다. 원산에서 불과 30킬로미터, 지척이었다. 남녘의 대덕 월산(月山)스님 등이 출가하여 널리 알려졌기로 더욱 더 보고싶은 마음이 간절해 갈 방도를 청하였으나, 미리 '조직'이 되지 않아 갈 수 없단다. 북에서는 무슨 일이든 '전시' 개념이어서 사전 계획 수립하는 일을 '조직'이라고 부른다. 그 조직이 되지 않으면 평양에서의 일은 아무리 중요해도 걸국 떼쓰다가 말뿐이다. 그 후 평양에 갈 때 마다 석왕사를 한번 제대로 보려고 하였으나, 북의 친구들은 군사 통제구역이라는 이유로, 교통이 안 좋다는 핑계로 상면을 가로막곤 했다. 그나마 내대신 노구를 이끌고 석왕사에 가서 안부를 전하고, 재(齋)까지 올리고 온 분은 윤이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 여사다. 석왕사가 이 태조에게 썩은 서까래 세 개를 지고 일어서는 현몽을 베풀어 왕이 되게 하였듯이 안국사는 의주로 피난가는 선조를 불러 아픈 발걸음을 쉬어가게 하였다. 이 나라 절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듯 위정자들에게 공덕을 베풀거늘 어찌하여 그 인과는 이렇듯 고독으로, 침묵으로 페허로 나타나는가.

짧은 겨울 해를 뒤로 하고 안국사를 떠나려 할 때쯤 까마귀들도 하나 둘 흩어져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저들도 이제 나와 함께 먼 순례의 길을 떠나려는 듯.

<다음은 금강산 신계사편>

- 목초 수액 시트 -

화제의 발 건강법



◉ 목초수액이란? 나무가 지하로 부터 물을 빨아올리는 힘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뿌리로 부터 수액을 빨아 올려 잎으로 가는 사이에 깨끗하게 정화된다. 이 원리에 의하여 발바닥에 붙여 여분의 수액과 노폐물을 빼주는 방법이다.

◉ 베독요법으로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나무의 천연성분을 분말로 만들어 발바닥과 환부에 붙여 수독을 배출 혈액을 깨끗히 정화하여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체의 약 70%가 수분인데 여기 오염된 수분을 제거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잠자는 동안에 배출한다
전신이 편안한 상태인 수면 중 발 바닥으로 부터 뇌로의 자극전달이 제일 좋으며 낮에 활동하면서 아래로 쌓인 노폐물을 잠자는 사이에 빼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용천에 시트를 붙이면 수분의 빠짐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21C 세로운 건강법 목초 수액시트
우리 몸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건강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몸에 대사기능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인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우리몸의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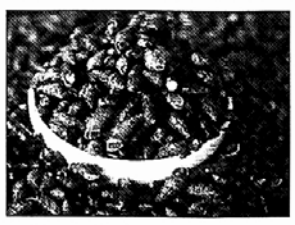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운동선수
❖ 가정주부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 굽어진 근육, 어깨, 무릎, 허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 02]455-6944, 02]453-5851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낭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행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이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중(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이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중(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 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8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풀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계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 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상담문의 ☎ (02)3437-8282

혜암스님 50년 시봉
김광명화 보살

"큰 도인 따라 다니며 공부 영광"



"스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울 필요 없어. 이제 다 던져버리시고 도솔천 내원궁으로 가셨는데 뭐가 슬퍼?"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의 입적을 소리없는 슬픔으로 삭히면서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의연함을 보이는 103세의 김광명화 보살. 혜암 스님의 은사 인곡 스님을 모신 인연을 계기로 50년이 넘는 세월의 인연 속에 30년을 공양주로 혜암스님을 시봉했던 김보살은 "이제 나도 본래의 자리로 가신 큰 스님의 빈 자리를 지키다가 갈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담담히 말한다.

"혜암 스님은 참으로 도인이셨지. 언젠가 원당암 달마선원에 기와를 올리는 날이었어. 그날따라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 기와를 다 올리기 전에 비가 오면 서까래가 쉬 썩어 건물이 이내 상하거든. 그런데 큰스님께서 '용왕아 너 잠자느냐' 고 크게 세 번을 외치셨어. 누굴 꾸지람 하는 듯 했지. 아, 그런데 바로 비가 그쳤어. 다 그친 게 아니라 큰절(해인사)에는 내리고 원당암 일대는 그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큰 스님의 도력이 하늘을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

원당암 103세 '상보살'

김보살은 원래 마산 출신이지만 혜암 스님의 수행처를 따라 다니느라 '전국구' 가 됐다. 쌍계사 칠불암, 문경 봉암사, 태백산, 오대산 등지의 수행처를 거쳐 30여 년 전부터 원당암에서 혜암 스님의 공양을 도맡았다. 원당암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는 절 살림이 가난하여 고시생들을 상대로 하숙을 해야 했다. 그때 혜암 스님은 하루 한번 드시는 식사임에도 그나마 누룽지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고 회고한다. 김보살은 "그때는 찬거리가 될 만한 것을 구하느라 산을 헤매 다니며 나물 뜯기에 하루해가 짧았지"라며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는 듯 잠시 눈빛이 아련해 졌다.

"공양이라야 특별한 것은 없었어. 큰스님은 하루에 한 끼만 드셨고 소식(小食)을 하셨기 때문에 반찬걱정을 하거나 끼니때가 돌아오는 걸 신경 쓸 일은 별로 없었거든. 무김치와 동치미를 워낙 좋아 하셨지."

김보살은 혜암 스님에 대해 너무나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일일이 입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 평소 친분 있던 사람들이 젖은 눈으로 노보살의 손을 잡으면 자신도 모르게 혜암스님에 대한 얘깃 꺼내곤 했다.

"산꽃·들꽃 좋아하셨지"

"문경 봉암사에서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였어. 나는 담석 때문에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지경이 되었는데 큰스님께서 뜰 앞의 풀을 뽑으라고 하셨지. 하지만 나는 몸도 가누기 힘든데 어떻게 풀을 뽑느냐며 문 밖으로 겨우 나갔어. 그 때 갑자기 큰스님이 소리를 치셨어. '보살, 몇 푼어치나 아프요?' 그 순간 나는 몸이 가뿐해지면서 뭔가 머리를 스치는 것을 알았지. 그때부터 나는 '이 뭐꼬' 화두를 받은 셈이야 그 뒤로 화두를 놓지 않고 스님을 모시며 나름대로 정진을 해 왔어. 큰스님께서 늘 '화두 놓치지 말라' 고 독려를 하신 힘에 의해서 말이야…"

무엇보다 김보살은 "공부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강조하신 그 가르침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가르침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혜암 스님의 주장자였다는 것.

"참으로 꽃을 좋아하셨지. 산꽃 들꽃들을 좋아하셨어. 그래서 원당암과 미소굴 주변에는 늘 꽃이 많았고 큰스님이 직접 꽃씨를 뿌리시곤 했어. 일체 중생이 다 꽃이라고 말씀 하시면서."

원당암의 '상보살' 김광명화 보살은 "이 세상에 나서 큰 도인을 따라 다니며 공부하고 시봉한 것은 큰 영광"이라며 큰스님의 법구가 모셔진 해인사를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해인사 = 김두식기자



◇대구 팔공산 성전암에 서있는 3백살 전나무가 '성철스님 나무' 로 불리게 된다. 나뭇가지들이 대쪽같이 뻗은게 성철스님의 법력을 닮았다.

팔공산 성전암 300살 전나무 '성철스님 나무' 로 불린다

대구 팔공산 성전암 앞에 서있는 수령 300살의 전나무가 '성철스님나무' 로 불리게 된다.

성철스님나무 이외, 파계사에 서 있는 수령 250살의 느티나무는 '영조임금나무' 로, 범이 항상 헌응스님을 태워 다녔다고 전하는 파계사 사거리 느티나무는 '현응대사나무' 로 명명된다.

이번에 대구시는 '역사 속의 인물과 나무' 란 사업을 실시, 관내 전설이 깃든 고목 13그루에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의 이름을 달아줄 예정이다.

그밖에, 대구시는 팔공산 표충사 앞에 있는 350년 된 배롱나무 3그루에는 고려 건국 전후로 공산전투 때 태조왕건을 대신해 죽은 신승겸 · 김 락 장군의 충절을 상징하고자 각각 이름을 붙여 준다.

파계사 주지 성우스님은 "명명된 큰스님의 이름만큼, 영조임금의 이름만큼이나 오래도록 이 나무들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자리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인물의 이름은 올 2월말까지 일반시민, 학교 등 관계자의 신청을 받고 고증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성보 4천점 인터넷 서비스

통도사 박물관 1월중…문화재청 후원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스님)이 지난해 전산화 한 불교문화재 4천점을 1월중 불교계 최초로 인터넷상에 제공키로 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전산화 된 불교문화재 4천 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보박물관의 홈페이지(tongdo museum.or.kr)와 1월중 개설되는 문화재청의 '전국문화재 통합홈페이지' 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돼, 불교문화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문화재청으로부터 '2001년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박물관' 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소장 불교문화재 3만 5천여 점 중 1차분 4천 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여기에는 문화재의 재질, 연대 외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자료도 제공된다.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국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전산화 해 문화유산 포탈사이트인 '전국문화재 통합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사립박물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2년 문화유산 전산화 사업에도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괘불 범종 금강계단 등의 불교문화재 자료와 함께 이들의 쓰임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영상 제작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말사 중 소장문화재가 가장 많은 표충사 유물관의 불교문화재도 2003년까지 온라인상에 선보일 계획이다.

불교문화재 전산화 작업을 진행해 온 신용철 학예연구사는 "전산화는 유물의 출생신고와 같은 것"이라며 "유물 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을 전국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성보의 보존,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신행 지침서"

육군 5733부대 정훈실

육군 제5733부대 호국용주사(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불자 장병들은 박운범 신도회장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법회를 운영하면서, 현대불교신문의 내용을 보며 불교정보를 얻고 신행의 지침서로 삼고 있다(사진).

이 부대 정훈공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불교가 법보시로 전후방 각지의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말씀과 신앙활동에 대한 다양한 소재로 군 정신전력 증강 및 신앙심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2년 가건물로 건립된 호국용주사는 500여명의 장병 및 군인가족, 인근 주민들이 찾는 법당이지만, 법사를 모시기 어려워 인근 사찰과 조계종 포교사단의 지원으로 어렵게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신도회를 중심으로 법당 신축불사에 나서면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운범 신도회장은 "군 장병들이 대부분 입대후 불교에 입문하는 점을 감안하면 군포교는 대단이 중요한 사안이다"며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국민은행(예금주 용주사) 833-01-0131-364, 연락처=017-672-8973

김재경 기자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장에 법천스님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장에 윤법천스님(광주 선양사 주지 · 사진)이 구탑 24일 선출됐다. 또 광주 전남 교구 종회의장에는 권인수스님(장흥 장원사 주지), 부의장에는 전동표스님(여수 관음사 주지)이 각각 선출됐다. 법천 스님은 "위로는 원로스님들을 받들고 종도들이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여 화합의 원칙아래 종무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천스님은 1939년생으로 49년 강진 수인사에서 동성스님을 은사로 출가, 6하안거를 성만했으며 태고종 전남교구 지방종회의원, 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경숙 기자

당진 안국사지 복원 '지표 조사'

충남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안국사지 복원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당진군은 현재 진행중인 안국사지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가 끝나는 대로 복원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군은 안국사지 복원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학술적 가치 규명을 위해 학계 관련 연구가와 지역 내 향토사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학술회의를 갖는 등 복원에 따른 사전 작업을 벌여왔다. 안국사지에는 보물 100호인 삼존석불입상과 보물 101호인 석탑이 남아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확실한 것은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복원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웅포대교 -미륵사지 연결 '백제로' 내년 착공

익산 미륵사지(국가사적 150호)와 웅포대교를 연결하는 '백제로' 가 건설된다. 이 도로는 총사업비 600여 억원을 들여 내년상반기 착공, 200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상담 : 02)2201-3333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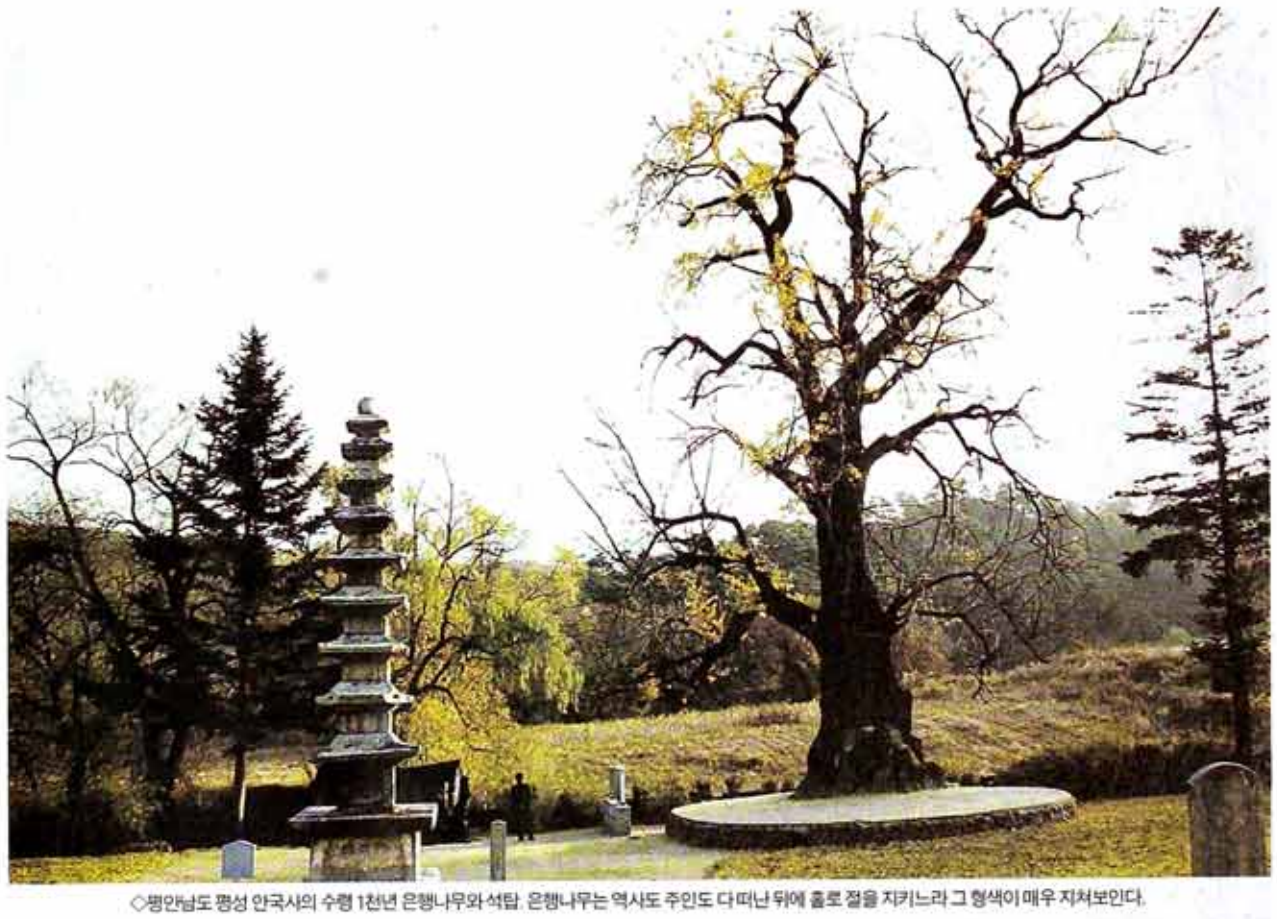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탐험

잊혀진 가람서 역사의 소리 듣는다

5천년 지층에 박힌 영욕 되새겨 한국불교 어제와 오늘 새 조명



◇평안남도 평성 안국사의 수령 1천년 은행나무와 석탑. 은행나무는 역사도 주인도 다 떠난 뒤에 홀로 절을 지키느라 그 형색이 매우 지쳐보인다.

프롤로그

후미로 빠져드는 역사 탐험의 가드 레일이 되리라.

1년여에 걸쳐 길 떠날 채비를 하였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어서 새해부터는 무작정 길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서둘러 나를 아름다운 폐허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것은 구름도 달컹거리며 지나치는 어느 심산유곡의 이름 모를 석불(石佛)들의 눈빛 이다. 초점없는 석불들의 그 눈빛에 나는 눈을 맞추고자 한다. 그들은 그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 내면조차 더이상 보고있지 않다. 그들이 보는 그것을 나는 끝까지 추적하며 찾아가고 싶은 것이다.

마침내 길을 떠난다. 흰 눈발 얼비치는 저 깊은 산하 어딘가에 내가 찾는 그 곳들이 있을 것이다. 더러는 이미 보았고, 더러는 아직 남겨 두었다. 더러는 누군가가 앞서간 길이었고, 더러는 내가 먼저 찾아간 그 길이었다. 잘 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던가. 내가 산발을 털던 황해북도 안악의 구월산 제곡 그 너럭바위가 때론 연백평야 쯤에서 길을 잃은 납자(衲子)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내가 온 몸으로 헤치며 나아 간 남한강변 목계 나루 그 갈참나무 숲이 도심의 미로에서 헤매는 뭇 독자들에게는 소스라치듯 세월의

석불들의 눈빛찾아

'잊혀진 가람 탐험'은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려는 공부이다. 땅가지고 부서진 어제의 불교, 그것이 바로 한국불교의 뿌리요, 본·모습이다. 잃어버린 한국불교의 과거를 찾아 오늘, 이 땅 불교의 주소를 새롭게 조명하려고 한다.

흐처럼 아위어 가는 이 산하 도처에는 수없이 많은 폐사지들이 널려 있다. 어떤 것은 보전되고 발굴되어, 또 어떤 것은 당찬 새 주인을 만나 화려하게 복원되기도 하여, 또 어떤 것은 그대로 방치된 채 낙시터가 되고, 과수원이 되어 겨레와 함께한 영욕을 되새기며 사금파리 조각처럼 오천년 지층에 박혀있다.

폐사지 탐험의 또다른 목적은 폐사지의 복원과 보전에 관해 독자와 함께 새로운 화두(話頭)로서 참구(參究)해 보자는데 있다. 불교계에서는 폐사지에 관해선 불교가 주인이라는 시각에서 무조건 복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있고, 문화계에서는 복원보다는 발굴을, 발굴보다는 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상반된 시각과 예견된 충돌에 관해, 그 현장의 상황은 어떠하고, 저 칠흑의 땅 밑에서 들리는 역사의 목소리는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듣고 싶은 것이다. 우리네 발 밑 조금만 파보면 안다. 이 땅이 얼마나 부처님과 인연깊은 불국토인가를 — 아무렇게나 뒹구는 기와조각이며, 숯덩이들을 — 거기서 새움이 돋아 오늘의 조계, 태고가 되고, 그것이 결가지를 뻗어 오늘의 진각, 천태가 된 것이 아니었던가.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지구 도처에는 살육과 보복의 삼악도(三惡道)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를 '문명간 화해의 해'로 정했음에도 오히려 문명충돌의 해로 전개되었고, 또 한반도는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다짐했음에도 불길하게 불화의 골짜기로 회귀하는 형국이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세상사를 접고, 삼독심과 칠정으로 호두 속처럼 부풀어 오른 뇌수를 떨치고 차라리 저 청초 우거진 숲속에 무두불(無頭佛)처럼 눕고 싶은 때이다. 이 땅의 선지식들은 왜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렇게 무수한 절들을 지으려 애썼고, 왜 또 지금이 그 때인가를 이제라도 반도의 핏결과 후미진 돌담을 뒤지며 민족 정체성의 원형을 짚어 보자는 것이다.

앞으로 2년여에 걸쳐 반도의 곳곳을 누빔 이 여행은 기막힌 구도 여행이 될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갈 수 없는 저 북녘 땅에서부터 남으로는 제주 존자암터까지, 또 시간적으로는 멀리 고구려 아사달 시절부터 가까이 6.25 한국전쟁 시기까지 시공을 가로질러 가슴 쓰린 현장들을 찾아 갈 것이다. 때로는 길 없는 길을 가야 할 것이고, 풀벌레나 들짐승으로 화한 법신(法身)의 당체도 만날 것이다.

다행히 나는 일찍부터 통일운동의 문전을 들락거린 덕분에 갈 수 없는 저 북녘 산하를 열 번 이상 돌아 다녔다. 갈 때마다 조르고 매달려 북의 사찰 20여 곳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나 북의 사찰들은 현존한다고는 하여도 광법사나 보현사 등 몇을 제외하고는 반세기 동안 향화(香火)가 끊겨 폐사지나 다름없었다. 부처님의 체온이 식고, 민중들의 뇌리에서도 떠나버린 절들을 현존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이 여행의 시발점을 저 봉린산 안국사(安國寺)나 설봉산 석왕사(釋王寺)쯤에서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여행의 선명성을 위해 본격 탐사는 금강산 극락고개 신계사터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법씨부터 복원을 약속한 내금강의 장안사, 개성의 영통사는 소식이 닿는 대로 춘심월쯤 복상하기로 해 놓고 말이다.

해방 전 까지 문헌에 등장하는 북녘 땅 가람은 총 1천7백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현존한다고 전해지는 사찰은 60여곳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것들조차 대개는 예불이 끊기고, 승도 객도 없으니 어찌 숨쉬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 드러내놓고 개방한 사찰들은 비록 외부 관광객들에 의해서나마 향촉이 밝혀지지만 형색만 겨우 절인 채 폐사(廢寺)되어가는 현존 사찰들은 어느 것 부터 안부를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

폐사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각은 있으나 부처님이 없고, 부처님은 있어도 돌보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폐사지일 것이다. 북에는 폐사지나 다름없는 전각들이 많고 남에는 어제까지 폐사지였으나 오늘은 당찬 새 주인을 만나 화려하게 부활한 절들이 많으니 앞으로 이 여행에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사뭇 넓고, 남녘만 해도 알려진 폐사지가 2백여 곳이 넘기에, 주제의 엄격성을 위해 우선은 완벽한 폐사지만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6·25의 전화와 큰 수재도 간신히 피하고 살아남은 안변 석왕사 설성동루.

북녘 현존사찰 60곳

평성의 안국사와 안변의 석왕사는 공통점이 많은 절이다. 국가나 왕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공통점이 있었고, 하나는 선채로 박제가 되고, 하나는 육신이 다 소멸된채 불구로 남아 있으니 '잊혀진 절'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형편에 공통점이 있다.

평양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평성 안국사를 찾아간 것은 재작년 초겨울이었다. 평성은 평안남도의 도청 소재지로 옛 지명은 순천이다. 안국사는 평양 인근에 있는 절로는 사격이 제법 큰 것이었으나, 조선불교도연맹의 간부들조차 가보지 못한 '잊혀진 절'이다. 따지고 보면 이 절도 복원된 절인데, 서기 503년 고구려 문자왕 시기 창건·당시에는 현재의 자리에서 2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잡았던 것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후 현재의 자리에 중수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절 왼쪽 최초의 그 사지에는 깨어진 기왓장과 탑 터가 남아있다. 다 저녁때 봉린산(鳳麟山) 기슭에 이르니 봉황은 간데 없고 난데없는 까마귀떼들이 나타나 여기서는 저들이 봉황인 양 시끄럽게 울어댄다.

☞22면으로 계속

폐사지 같은 북녘가람들

안국사 503년 고구려때 창건…깨진 기왓장·탑터만

석왕사 조계문 간신히 남아…李태조 현몽서린 곳



◇필자약력

이번호부터 폐사지 여행 '잊혀진 가람 탐험'을 연재하는 장지현은 사인으로 본명은 장용철이다. 1956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진각대학, 미국 러셀대학 에서 철학을 공부했으며, 지난 8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서울 지옥〉 〈낡은 신〉 등의 시집과 수상집 〈눈은 눈을 보지 못한다〉, 전기분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 등을 펴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진각종 현지법인의 주교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교신문〉 주필과 진각복지재단 사무회장으로 재직중이다.

